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246-10

2021 서울가족보고서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세상 모든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존중받는 사회

세상 모든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라 다양한 가족이 존중받고, 평등하게 돌보는 서울을 향한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가 강화되면서, 비로소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고 돌봄을 공유하는 가족생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울가족변화를 파악하고 가족생활과 관련된 서울시 정책과 서비스를 서울시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서울가족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서울가족보고서는 서울시민의 가족생활 현황과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이며, 1장 서울가족의 오늘, 2장 서울가족의 돌봄, 3장 서울가족의 생활 토대, 4장 서울에서 혼자 살기, 5장 서울가족의 변화와 미래로 세분화한 가족정책과 서비스 정보를 서울시민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가족을 위한 5대 뉴스를 선정하고, 가족생활에 깊숙이 스며든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를 집중조명하는 등 서울가족정책의 변화와 정책의 확장을 살피는 기초자료로써 서울가족보고서가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다양한 가족의 삶을 담아내고자 하는 노력이 서울가족보고서를 통해 유익한 시민소통으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정성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2021 서울가족 5대 뉴스

1. 서울시, 2021년 건강가정시행 계획을 발표하다



서울시는 『2021년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의 ‘가족 다양성 인정’ 및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 목표에 맞춰, 서울시는 7개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11개 부서에서 43개의 사업을 시행 중이다.

2. 서울지역 가족센터, 가족상담 전문성 및 비대면 서비스 강화하다

서울지역 가족센터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가족상담 사업을 강화하고,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운영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 2018년부터 2인 이상 가족 단위 면접 및 집단상담을 강화하였으며, 2021년 전문학회와의 협약을 통해 가족상담사 인력풀을 활용하는 등 전문적인 가족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원활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센터 환경개선과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가족서비스를 강화하고 확대하였다.



3.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하다

서울시는 2021년 5월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경찰, 자치구, 민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 확대·운영,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한다. 또한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에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가 참여하는 등 전국 최초로 객관적인 아동학대 판단시스템을 구축한다.



4. 서울시, 기업의 일·생활균형을 지원하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일·생활균형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의 일·생활균형 제도 도입 및 활용, 조직문화 등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금리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12월 기준 87개 기업이 일·생활 우수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생활균형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

5. 서울시, 보육교사 당 아동 수를 줄인다



서울시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개선한다. 2021년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통해 0세반 2명, 3세반 10명 당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하여 보육교사의 아동집중도움이 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2021 서울가족보고서 사용설명서』

1. 이 보고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족 관련 정책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2.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는 서울시민의 가족생활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 조사로, 2018년 시작되어 올해가 4번째 조사입니다.
 - 1) 본 조사는 서울시민의 일부를 조사하는 표본조사로 조사결과에 통계적 오차가 존재합니다.
 - 2) 본 조사의 결과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세부항목의 합계가 전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본 조사에 제시된 통계표 중 복수응답, 중복응답 설문은 구성비 합계가 100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4) 본 조사에 제시된 통계표의 분석 대상자 수는 설문문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출처에 분석 대상 및 대상자 수를 명시하였습니다.
 - 5)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에서 조사되지 않은 서울시민의 가족생활은 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자료의 출처는 본문과 그래프에 제시하였습니다.
3. 가족 관련 정책과 서비스는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QR코드 및 관련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원자료가 변경·삭제된 경우 QR코드 및 관련 링크가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02-318-816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 서울가족의 오늘

- 1. 관계의 출발, 가족 10
- 2. 코로나19 시대, 가족의 변화 18
- 3. 코로나19 시대, 가족의 힘 28



II. 서울가족의 돌봄

- 1.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 돌봄 36
- 2.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 44
- 3. 가정과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 52
- 4. 코로나19 시대, 공백 없는 돌봄 60



III. 서울가족의 생활 토대

- 1. 가정경제, 생활의 기본 72
- 2. 일과 쉼, 생활의 균형 80
- 3. 주거환경, 생활의 터전 94



IV. 서울에서 혼자 살기

- 1. 코로나19 시대, 나 혼자 산다 104
- 2. 행복하게 혼자 살기, 관계와 건강 107
- 3. 안심하고 혼자 살기, 주거와 안전 117
- 4. 걱정없이 혼자 살기, 경제와 일자리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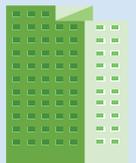
V. 서울가족의 변화와 미래

- 1. 변화하는 서울가족 130
- 2. 서울가족의 기대와 미래 142
- 3. 서울시 가족정책의 지향 153



부록

- 1. 서울시 가족지원 서비스 기관 현황 156
- 2.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조사개요 162
- 3. 2015-2020 서울가족보고서 163





서울가족의 오늘

1. 관계의 출발, 가족
2. 코로나19 시대, 가족의 변화
3. 코로나19 시대, 가족의 힘



카드뉴스 서울가족의 오늘

서울가족의 오늘 #1
서울가족의 오늘

2021년 서울 시민의 가족생활 현주 소는 어떨까요?

1

서울가족의 오늘 #1
서울가족의 오늘

서울 시민의 가족생활은 비교적 행복한 편입니다.

온라인여부에 따른 가족생활 행복도 (2019년 1-3월)

온라인여부	행복도 (%)
전체	65
기혼	68
비혼	62

서울 2021년 서울 가족정책의 현재와 미래

2

서울가족의 오늘 #1
서울가족의 오늘

서울 시민은 가족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도 경험합니다.

생활 및 여가활동 가족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2019년 1-4)

구분	스트레스 (%)
전체	24
남	23
여	25
20대	22
30대	23
40대	25
50대	25
60-64세	23

서울 2021년 서울 가족정책의 현재와 미래

3

서울가족의 오늘 #1
서울가족의 오늘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지려면? '패밀리서울'과 함께!

서울시 25개 시·구·군·강·자치·군은 가족지원 센터를 서울 시민의 행복한 가족생활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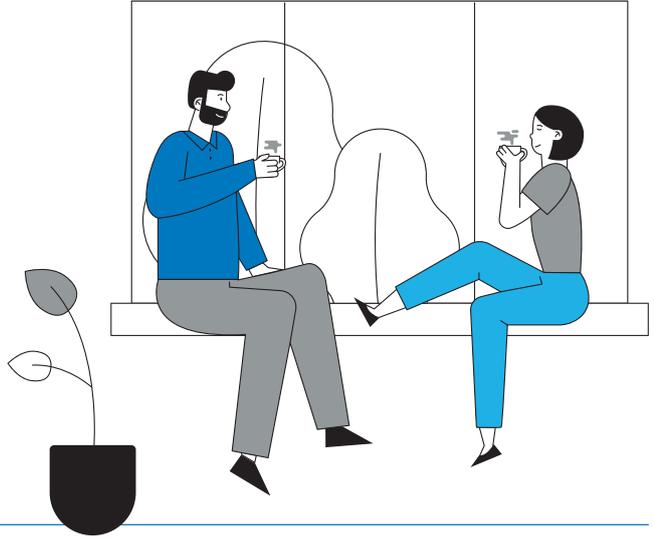


패밀리서울
앱을 다운받으세요

4

1.

관계의 출발,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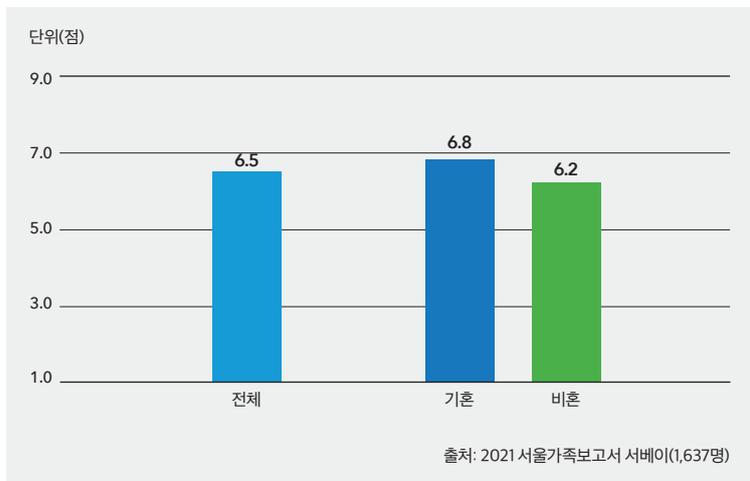


가족생활의 행복 2021 Seoul Family Survey

서울시민의 가족생활은 비혼자보다
기혼자가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귀하의 가족생활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전체 평균 6.5점(범위: 1-9점)으로 행복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가족생활 행복도에 성별이나 연령대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비혼자의 가족생활 행복도(6.2점) 보다 기혼자의 가족생활 행복도(6.8점)가 높게 나타나 결혼지위에 따른 가족생활 행복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혼인여부별 가족생활 행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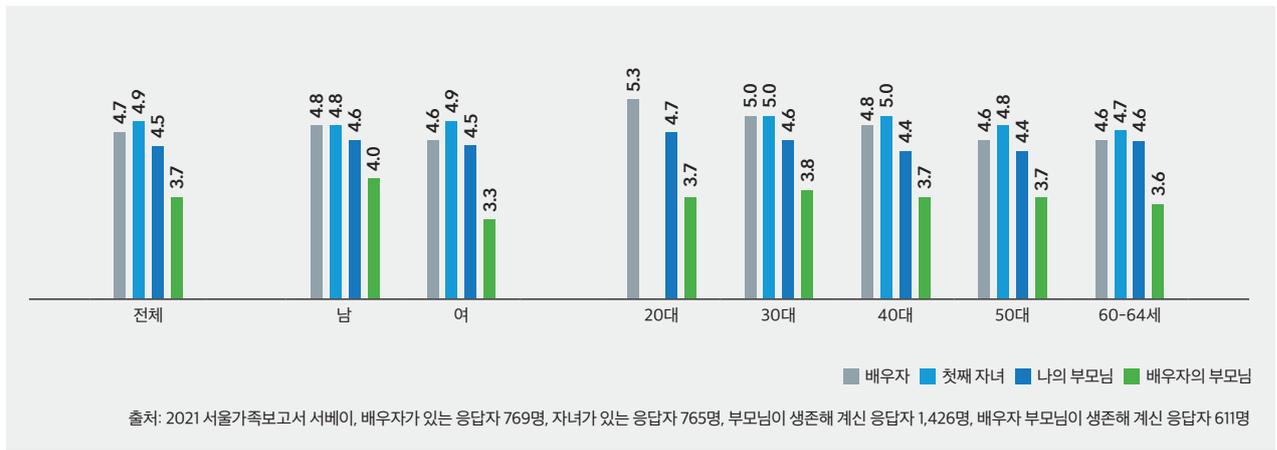


가족 구성원과의 친밀감 2021 Seoul Family Survey

남성은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를 가장 가까운 것으로 여겼고, 여성은 자녀와의 관계를 가장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인생의 현시점에서 귀하는 다음의 가족 구성원과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첫째 자녀’를 가장 가깝게 느끼는 정도가 평균 4.9점(범위: 1-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배우자’(4.7점), ‘부모님’(4.5점)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대별 차이를 살펴보면,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가깝게 느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및 연령대별 가족과 가깝게 느끼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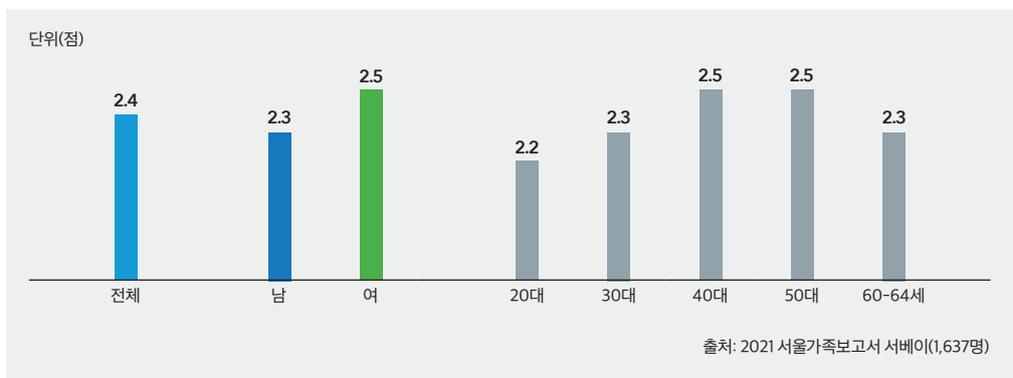


가족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2021 Seoul Family Survey

서울시민의 가족관계 스트레스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고, 40-50대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하는 현재 가족관계 및 가족 간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평균 2.4점(범위: 1-4점)으로 스트레스를 별로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및 가족 간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는 성별 및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40-50대의 스트레스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성별 및 연령대별 가족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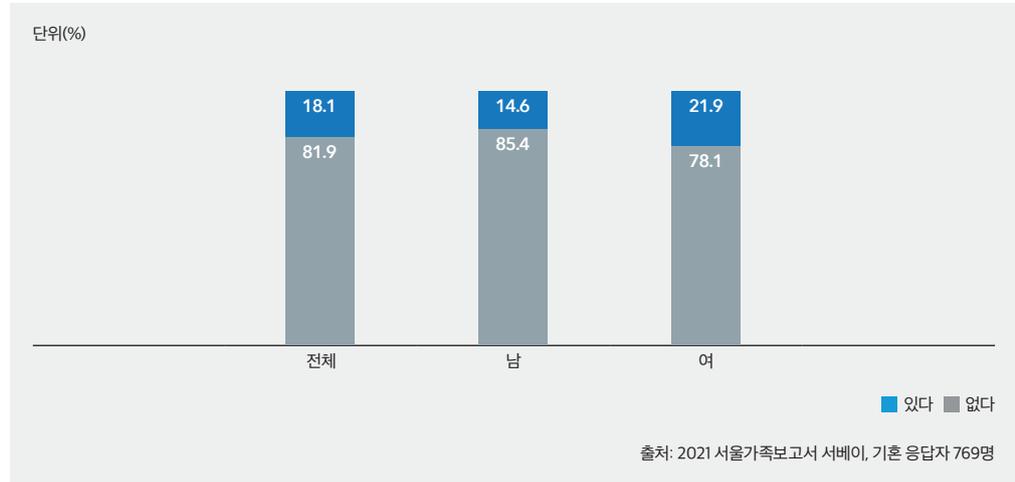


서울시민의 부부관계 2021 Seoul Family Survey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기혼 여성의 비율이 기혼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귀하는 지난 1년간 부부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18.1%는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른 이혼 고려 정도를 살펴보면, 여성의 21.9%, 남성의 14.6%가 이혼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이혼 고려 정도가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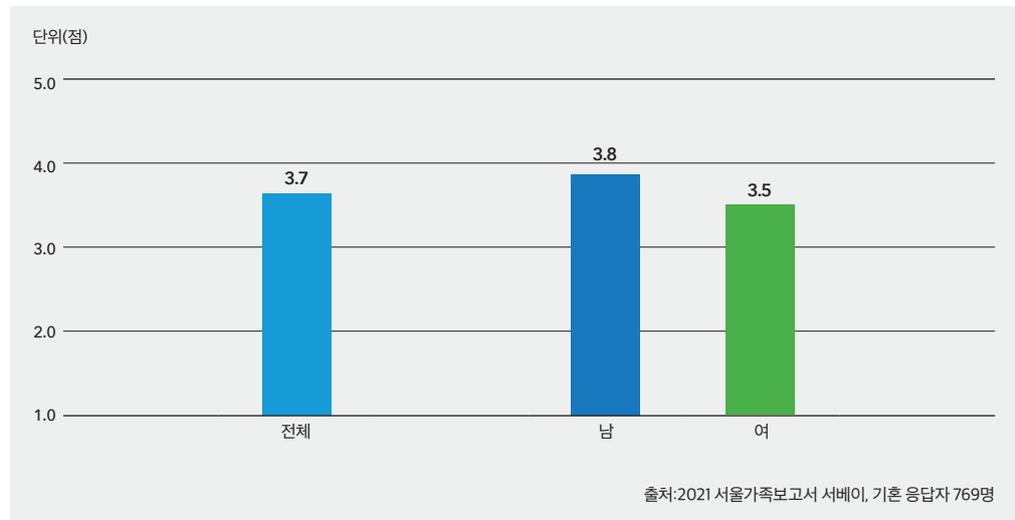
성별 이혼 고려 정도



기혼 여성보다 기혼 남성이 자신의 부부관계를 조금 더 평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 배우자와의 전반적인 관계는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평균 3.7점(범위: 1-5점)으로 기혼자들은 부부관계를 비교적 평등하게 인식하였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기혼 남성은 3.8점으로 기혼 여성의 3.5점보다 높아, 남성이 여성보다 부부관계를 보다 평등하게 인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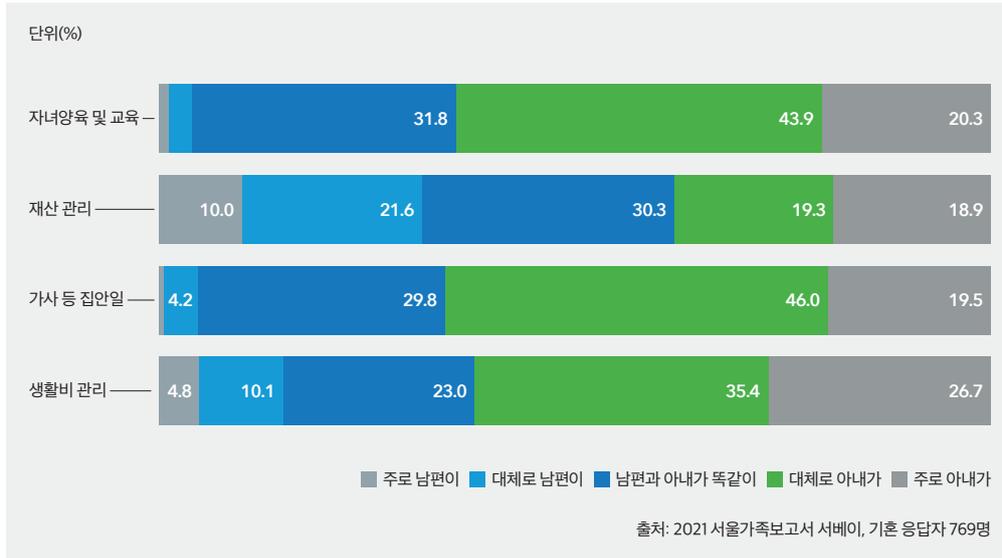
성별 부부관계 평등 정도 인식



서울시민의 약 30%는 자녀양육 및 교육, 재산관리, 가사 등 집안일을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 가정관리 분담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자녀양육 및 교육’, ‘재산관리’, ‘생활비 관리’, ‘가사 등 집안일’은 주로 누가 담당하는지를 질문하였다.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분담한다는 응답이 자녀양육 및 교육은 31.8%, 재산관리 30.3%, 가사 등 집안일 29.8%, 생활비 관리 23.0%로 나타났다.

부부간 가정관리 분담율



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1.

가족관계 점검

우리 가족 행복지수는 몇 점? *Seoul*

총 24문항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통해 우리 가족이 느끼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와 가족생활에서의 만족감을 측정할 수 있다.

우리 가족 행복지수는 몇 점?

Step 1	Step 2	Step 3	결과보기
가족과 함께 집에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정서를 얼마나 자주 느끼세요? 지난 한 달 동안의 경험을 돌이켜보고 1점에서 10점 사이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주세요.			
설문내용	거의 느끼지 않음	매우 자주 느낌	
1.가족과 함께 있을 때 기쁨을 얼마나 자주 느끼시나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2.가족과 함께 있을 때 흐뭇함을 얼마나 자주 느끼시나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3.가족과 함께 있을 때 답답함을 얼마나 자주 느끼시나요?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4.가족과 함께 있을 때 우울함을 얼마나 자주 느끼시나요?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출처: <https://familyseoul.or.kr/survey>

부부결혼검진

결혼검진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부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처럼 1년에 한 번씩 부부관계를 검진하는 서비스이다. 결혼검진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박우철, 2019)에 따르면 결혼검진은 부부관계 이해, 부부관계 향상 방법 이해, 부부관계 향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출처: 박우철(2019). 부부 결혼검진: 부부의 관계건강을 위한 새로운 접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4(2), 45-64.

2.

서울가족학교

효과성이 검증된 서울가족학교 Seoul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는 예비부부교실, 신혼부부교실, 부모교육, 패밀리세프 등 다양한 주제로 가족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020 서울가족사업 효과성 연구에 따르면, 서울가족학교 예비부부교실은 참여자들의 결혼생활준비도 및 관계자신감 향상과 부정적 의사소통 및 우울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이재림, 기쁘다, 박지수, 2020). 이와 함께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도 참여 이전에 비해 참여 이후 양육지식과 양육효능감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서울가족학교

서울가족학교는 가족 간의 공감과 소통을 위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행복한 가족을 꿈꾸는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가능합니다.

부부교육

예비부부교실

‘우리, 가족일까요?’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의 상황을 점검하고 차이점을 조율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결혼생활을 준비하세요.

신혼부부교실

행복한 부부, 가족의 기초다지기!
신혼기에 놓치면 후회되는 항목을 체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청소년기 부모교실
 예비부부교실

부모교육

아동기 부모교실

‘우리 잘 키워 볼까요?’
아동기 발달 이해와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여 양육자도 자녀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아동기 부모교실에 참여하세요.

청소년기 부모교실

‘요즘 들어 아이와의 대화가 줄어들었다. 우리, 잘하고 있는걸까?’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양육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마음가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청소년기 부모교실에 참여하세요.

아버지교실

‘우리 아빠, 힘 내볼까요?’
서울시 소재 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소속된 서울 생활 영역권 아버지를 대상으로 민주적 가족관계 형성을 돕는 아버지교실에 참여하세요.

아동기 부모교실
 청소년기 부모교실
 서울가족학교 운영기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드는 ‘패밀리세프’

패밀리세프

‘우리, 밥상 차려 볼까요?’
요리를 매개로 수평적 가족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패밀리세프와 함께하세요!

출처: 이재림, 기쁘다, 박지수 (2020). 2020 서울가족사업 효과성 연구.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3.

맞춤형 가족서비스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방문 부모교육

가족센터에서는 언어·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생애주기별 방문 부모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집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01. 한국어 교육
3차 맞춤 단계별 한국어 교육!
* 대상: 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
* 기간: 90회기(10개월~12개월)

02. 부모교육 (임신기-유아기-아동기)
자녀양육방법과 한국문화 이해!
* 대상: 결혼이민자
* 기간: 40회기(6개월~1년)

03. 자녀생활서비스
학습, 생활태도, 독서코칭 등 자녀교육!
* 대상: 만3세~만12세
다문화 자녀/중도입국자녀
* 기간: 90회기(10개월~12개월)

✓ 방문교육지도사 선생님이 가정으로 찾아가 **1:1 수업**을 진행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하여 소득관절 후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유형	소득기준	본인부담금
가형	중위소득 150% 이하	없음
나형	중위소득 150% 초과	월 65,280원

☎ 신청 및 문의: 02-846-5432 김민아 사회복지사

*본인부담금 납입(소득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이용 과정)

출처: <http://www.liveinkorea.kr/center/board/ctpg/boardView.do>

입양부모교육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입양가정 부모 및 자녀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민법상 입양부모교육(일반/다문화), 특례법상 입양부모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로그인 ENG 사이트맵

입양안내 입양상담 입양정보 사후서비스 **입양부모교육** 기관소개

교육소개

수강절차

수강신청

내강의실

교육소개

수강대상: 입양인, 입양부모, 입양관련 종사자, 일반인

수강료: 무료

과정 주요내용

과정명	주요내용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 자녀의 발달과 적응 - 아이와 부모의 명확한 소통법
특례법상 입양부모교육	
다문화 입양부모교육	준비 중(2018년도 개별 예정)
위탁모 교육	

출처: <https://www.kadoption.or.kr/adoptedu/adopteduinto.jsp>

2021년 협의이혼 후견 프로그램(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 당사자에게 맞춤형 개별 프로그램 (비대면 영상 의무면담, 장기상담), 부부 관련 프로그램(부부감정치유, 후견프로그램, 자녀의 미래를 위한 가족소통의 기술), 자녀 관련 프로그램(부모-자녀 상호작용 집단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https://s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7896&gubun=41&cbub_code=000230&searchWord=&pageIndex=2

아빠와 자녀 모두 행복한 서울 <아자서울> Seoul

서울시건강강정지원센터는 아빠와 자녀 모두 행복한 서울을 위해 서울아빠 맞춤형 채널 <아자서울>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구 가족센터에는 2021 아자 프로젝트를 운영 중에 있다.



출처: https://www.instagram.com/seoulfamily_official/

정책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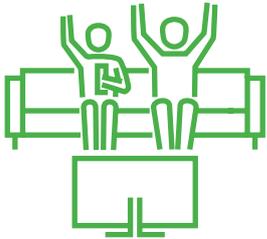
근거기반 서비스 확대

미국 연구 기획 평가국(Office of Planning, Research, & Evaluation)은 아동가족국(Office of the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이용자에게 대한 엄격한 연구와 평가를 통해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고 있다. 가족의 행복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엄격한 실험연구를 통해 효과성이 검증된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가족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축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서울시민의 자발적 가족서비스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출처: <https://www.acf.hhs.gov/opre/about/what-we-do>

2

코로나19 시대, 가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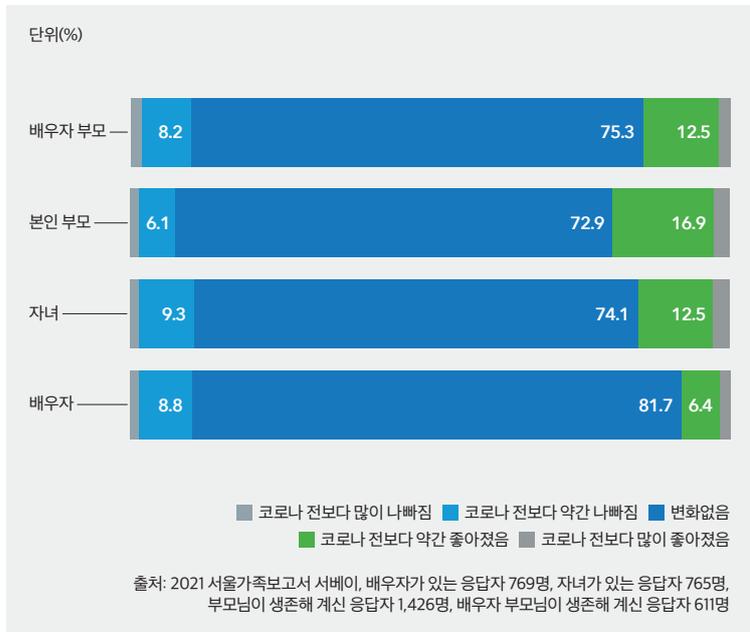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 변화 2021 Seoul Family Survey

서울시민들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가족관계를 이전과 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있는 경우, 배우자, 자녀, 본인 부모와의 관계가 **코로나19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응답이 나빠졌다는 응답보다 많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변화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배우자, 자녀, 본인 부모와의 관계는 '좋아졌다'는 응답이 '나빠졌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코로나19 이후 가족 간의 관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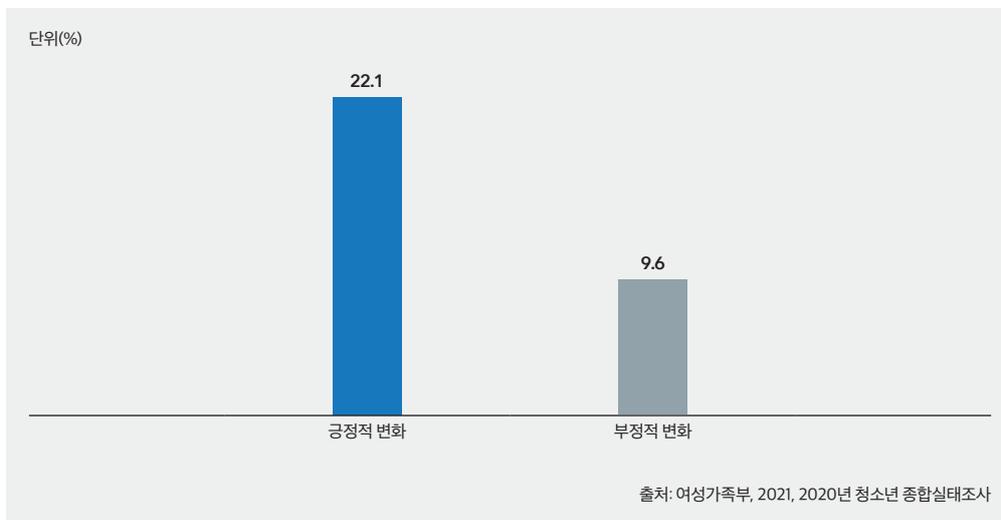


청소년이 인식한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

전국 만 9-24세 청소년 5명 중 1명은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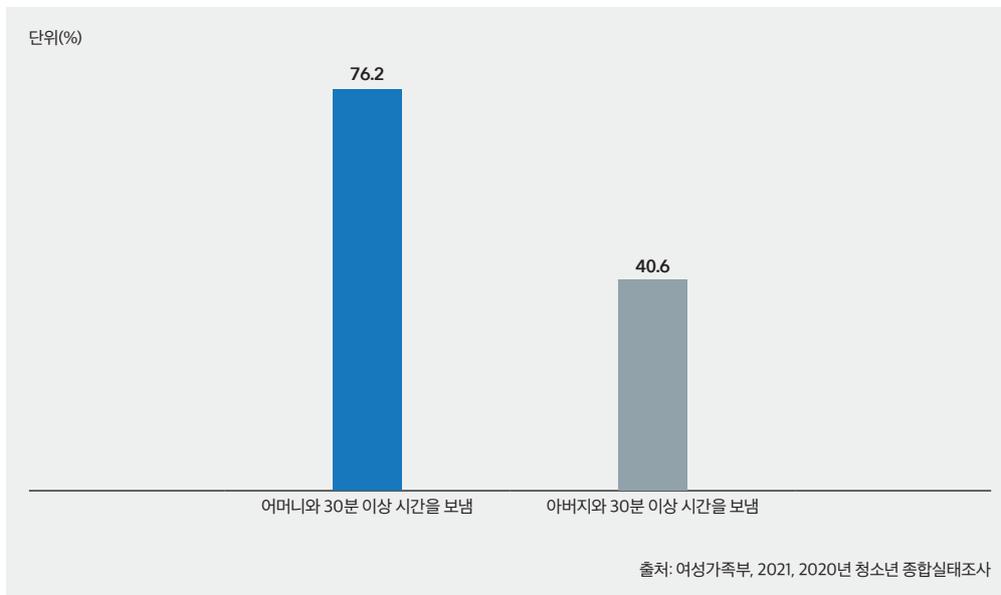
전국의 만 9-24세 청소년 7,170명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여성가족부, 2021),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이 22.1%로 부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9.6%)보다 높게 나타난다.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경우, 어머니와 매일 30분 이상 시간(대화 시간 포함)을 보낸다는 응답이 76.2%인 것과 비교해, 아버지와 30분 이상 시간(대화 시간 포함)을 보낸다는 응답은 40.6%에 불과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의 가족관계 변화



아버지와 매일 30분 이상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은 40.6%에 불과하였습니다.

부모님(또는 양육자)과 보내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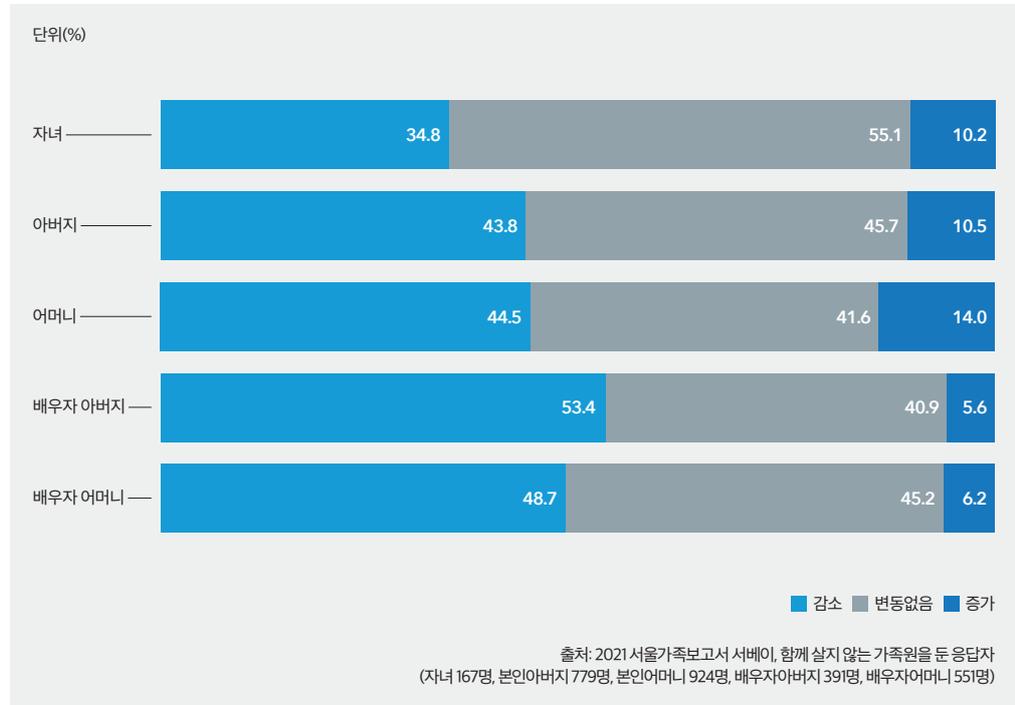


함께 살지 않는 가족원과의 만남 변화 2021 Seoul Family Survey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함께 살지 않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과의 만남의 빈도가 감소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족원과의 만남 빈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떨어져 사는 첫째 자녀의 경우 '변동없음'으로 응답한 경우가 55.1%로 가장 많았으나, 다른 가족원의 경우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함께 살지 않는 가족원과의 만남 빈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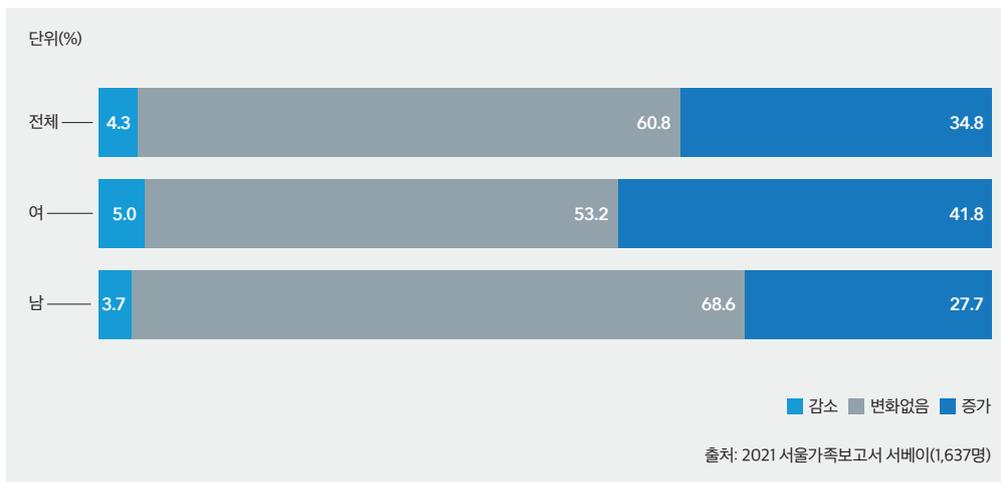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사노동 및 자녀돌봄 변화 2021 Seoul Family Survey

코로나19 이후 **서울시민 10명 중 3명 이상은 가사노동의 양이 늘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사노동의 양 변화에 대해 '변동없음'이 60.8%, '증가'가 34.8%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41.8%가 가사노동 양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남성의 경우 27.7%만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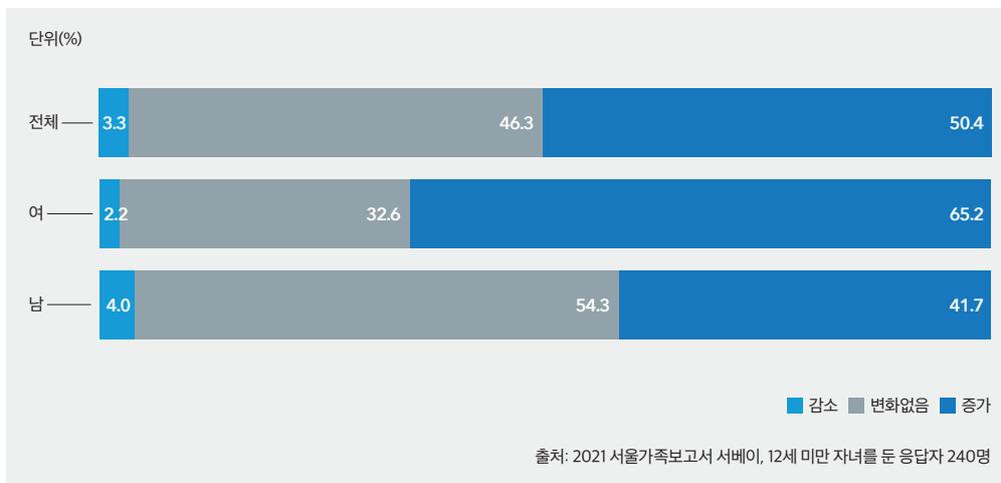
성별 가사노동의 양 변화



남녀 모두 12세 미만 자녀돌봄의 양이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것으로 보고했으나, **남성보다 여성이 자녀돌봄 양이 더 많이 증가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자녀돌봄의 양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50.4%로 나타났다. 여성의 65.2%, 남성의 41.7%가 '증가'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성별 자녀돌봄 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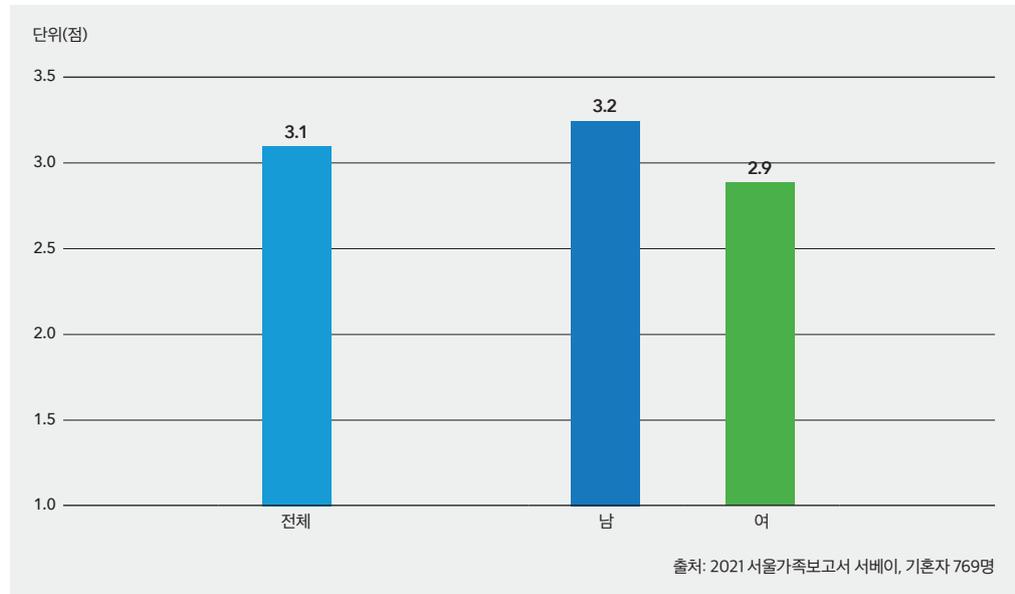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가사노동 및 돌봄 분담 공정성 2021 Seoul Family Survey

여성이 남성보다 코로나19 이후 가사노동 및 돌봄 분담 공정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귀하와 배우자의 가사노동 및 돌봄 분담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평균 3.1점(범위: 1-5점)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공정성 인식을 살펴보면, 남성은 3.2점으로 평균 보다 약간 더 공평한 것으로 인식한 반면, 여성은 2.9점으로 평균보다 약간 낮았다.

성별 가사노동 및 돌봄 분담 공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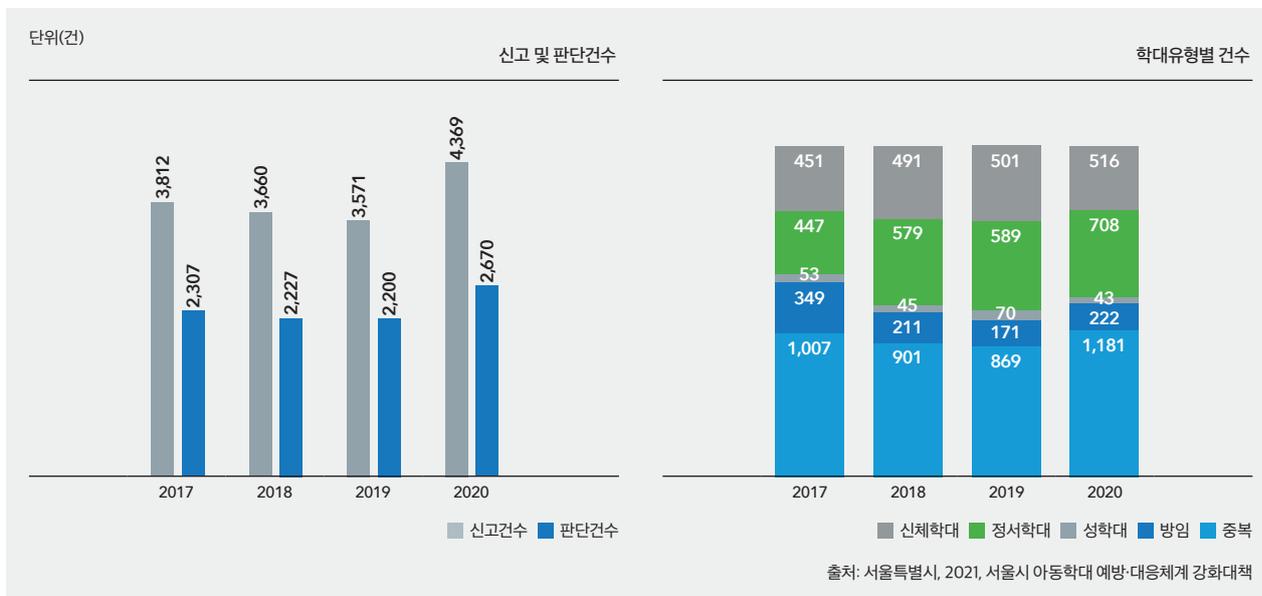


코로나19 위기로 가려진 위기, 아동 및 노인 학대

2020년 서울시 아동학대 판단건수는 2,670건으로 201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 2020년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2,670건으로 2017년 이후 최대치로 나타난다. 학대유형으로는 중복학대,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 순으로 많으며, 방임은 감소 추세였으나 2020년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서울특별시,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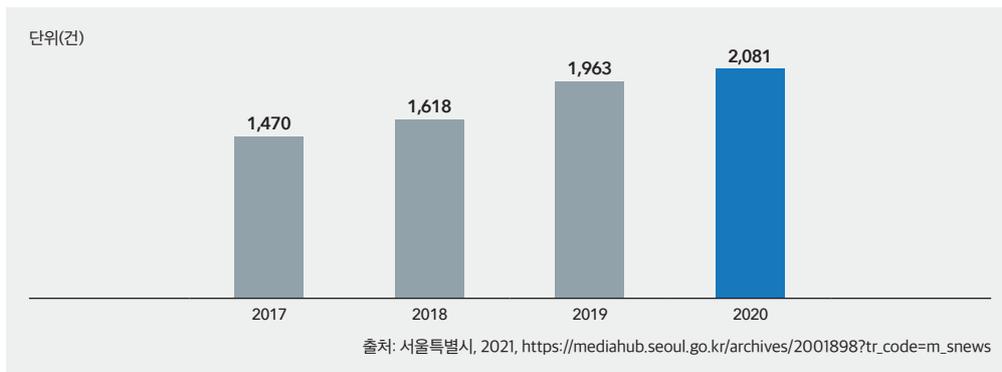
연도별 아동학대 건수 및 학대 유형별 건수



서울시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서울특별시, 2021)에 따르면 2020년도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81건으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52.0%로 가장 많고, 신체적 학대(39.2%), 방임(4.9%) 순이다. 노인학대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94.8%로 가장 많고, 학대행위자는 아들(39.2%), 배우자(38.0%), 딸(10.5%) 순이다.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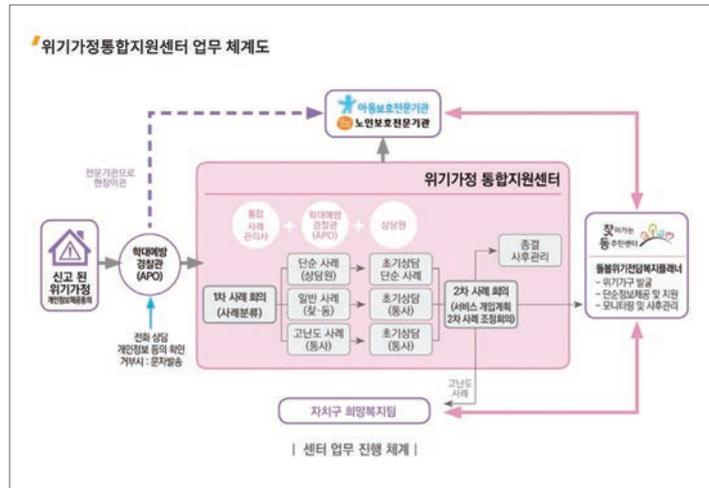
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1.

위기 대응 서비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Seoul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폭력, 학대, 방임 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위기가정을 찾아내고, 초기상담부터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및 복지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112신고(동의) 가구에 대한 전화상담을 통해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하고 개입한다.



출처: <https://wis.seoul.go.kr/hope/care/crisis.do>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Seoul NEW

서울시는 2021년 5월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경찰, 자치구, 민간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확대·운영한다. 또한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에 전문가(의사·임상심리사)가 참여하는 등 전국 최초로 객관적인 아동학대 판단시스템을 구축한다.

출처: 서울정보소통광장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2937623?from=mayor>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에서 4개로 확대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등과 함께 2021년 7월 말까지 '노인학대'로 2번 이상 신고된 고위험 가구를 방문해 점검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 관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3곳(남부·북부·서부권)이 운영되고 있는데, 2021년 하반기까지 동부권에 기관 1곳을 추가 개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출처: <http://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dxno=266741>

2.

가족 역량 강화 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서비스

가족센터는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가족역량강화지원서비스는 취약가족, 위기가족, 이혼 신청 중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취약가족지원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부모교육 및 자녀양육교육 등의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지원을 통해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긴급위기가족지원서비스는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위기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지원, 긴급 가족돌봄 지원,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전문기관 연계, 부모교육·가족관계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안전교육 및 보호조치 등을 통해 가족역량증진을 지원한다.
- 이혼 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은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이혼신청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이혼위기상담, 부모·부부교육, 부부가족캠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처: 여성가족부, 2021, 2021년 가족사업안내(II)



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3.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가족서비스

자치구 가족센터의 서비스 변화

자치구 가족센터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가족서비스 운영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 원활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 개선과 함께,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연속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화상면접지원서비스

서울가정법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교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화상면접지원서비스를 2021년 5월 도입하였다. 비대면 화상면접교섭서비스 이용자는 화상 대화가 가능한 초등학교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후 6개월 이내의 비양육부모이다.

출처: https://si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8100&gubun=41&cbub_code=000230&searchWord=%C8%AD%BB%F3&pageIndex=1

요양시설 '가족의 거실' Seoul NEW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요양시설에 계시는 부모님과의 만남을 갖고 있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 비대면 면회 전용 공간인 '가족의 거실'을 개발했다. '가족의 거실'에서는 방역 글러브 설치를 통해 가족과의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39829?tr_code=new01

정책 제안

비대면 가족서비스 확대에 따른 준비 필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가족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 흐름에 따라 가족서비스에 대한 비대면 서비스 요구는 점차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비대면 가족서비스 확대를 위한 세심한 준비가 요구된다.

우선, 비대면 가족서비스 확대에 따른 가족서비스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대면 서비스를 위해 개발된 콘텐츠가 비대면 서비스에서 그대로 구현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비대면 서비스용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서비스 제공자의 디지털 매체 활용 능력이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에 필수 요건이므로 서비스 제공자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대면 및 비대면 가족서비스에 대한 근거(evidence) 마련이 필요하다. 가족서비스 유형별 대면·비대면 가족서비스 선호도, 대면·비대면 가족서비스 제공 형태별 만족도, 가족서비스 특성 및 대면·비대면 제공 방법에 따른 효과성 연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가족서비스가 변화될 때, 가족서비스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3

코로나19 시대, 가족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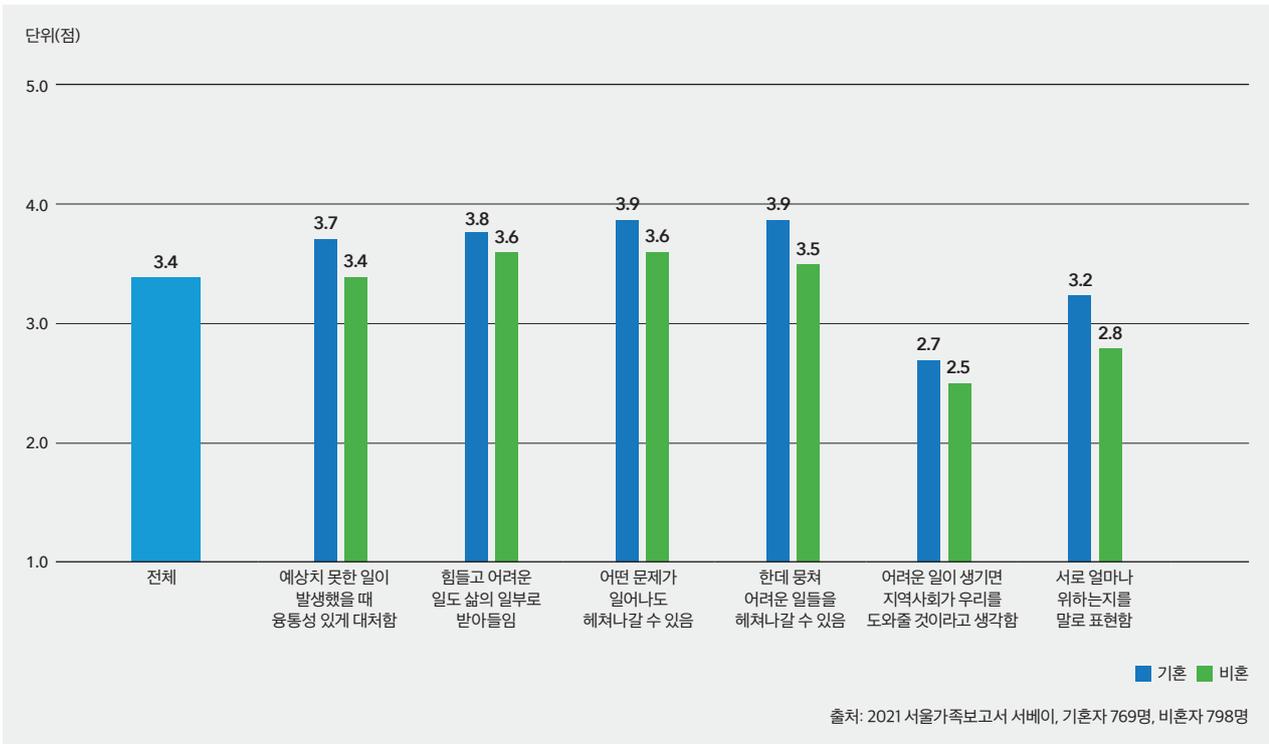


서울가족의 가족탄력성 2021 Seoul Family Survey

서울가족의 가족탄력성은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며, 비혼자보다 기혼자의 가족탄력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족이 어려움을 다루는 모습에 대한 6개 문항을 통해 서울가족의 가족탄력성을 살펴본 결과, 6개 문항의 전체 평균은 3.4점(범위: 1-5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혼인여부별 가족탄력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기혼자의 가족탄력성이 비혼자보다 높았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역사회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문항의 경우, 비혼자 뿐 아니라 기혼자도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혼인여부별 가족탄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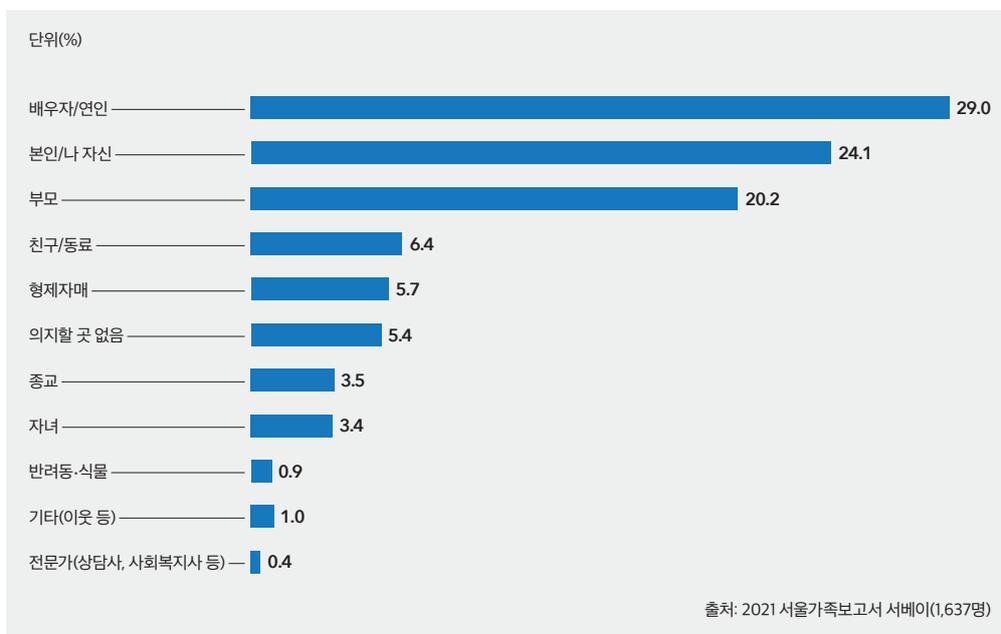


의지가 되는 존재 2021 Seoul Family Survey

서울시민은 **어려운 상황에서 배우자/연인 및 부모 등 가족에게 의지하고** 있었으나, 타인이 아닌 본인에게 의지한다는 응답과 의지할 곳 없음을 응답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귀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심적으로 가장 의지가 되는 존재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에 서울시민은 배우자 및 연인(29.0%), 부모(20.2%) 등 가족에게 의지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인’에게 의지하거나 ‘의지할 곳 없음’을 응답한 경우도 각각 24.1%, 5.4%에 이르렀다. 특히 상담사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를 응답한 경우는 0.4%에 불과하였다.

의지가 되는 존재



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1.

서울시 전문가족상담지원

서울시 가족상담지원사업 Seoul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부, 부모-자녀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고민을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상담해준다. 특히 2018년부터 2인 이상 가족단위 면접상담 및 집단상담을 특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최근 가족상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족상담 관련 전문 민간학회와의 협약을 통해 학회에 소속된 가족상담 전문 인력풀을 활용하고, 자치구센터 소속 상담 인력의 상담 역량도 강화한다.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가족상담지원사업

성북구 부부·가족 무료심리상담

부부, 가족상담(2인 이상참여)

- 심리적 갈등, 어려움 지원
- 목요일아간 및 토요일상담진행
- 2인이상 최소3회 이상 참석
- 대면, 화상상담 진행

문의: 070-7725-0753

성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1 서울가족상담지원사업

가족상담

가족과 부부의 문제결 역할강화를 강화하고, 적절한 태도를 습득하여 스스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상담 - 가족관계 갈등상담 - 이혼 전후 상담 - 임신출산 갈등상담 - 심리검사	부부상담 - 생애주기별 발생하는 부부관계 문제 상담
가족상담 - 2인이상 가족상담 - 본가 관계 갈등 - 형제·자매 갈등 - 원가족 갈등	부모-자녀 상담 - 양육·소통 문제 - 부모-자녀 관계 갈등 - 학교 부적응, 따돌림 문제 등

진행방식: 대면상담, 화상상담 (미술·놀이·독서·오래치료 상담 가능)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이용시간: [주간] 월-금 9:00~18:00 [야간] 화-목 18:00~21:00 [주말] 토 9:00~17:00

신청방법: 전화 또는 센터 내방 후 상담을 통해 신청
 * 비대면으로 신청시 통화 후 '구글폼' 이용하여 신청

비 용: 무료 (6회기)

금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 가족상담사업 담당 070-7487-5508 / 5514

출처: <https://familyseoul.or.kr/>

2.

가족상담 및 가족서비스 정보제공

심리정서지원상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심리정서지원상담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심리정서 상담, 가족정책서비스 종합안내 등을 제공한다. 전화(365일, 08:00-22:00) 및 문자상담 뿐 아니라, 카카오톡 채팅 로봇(챗봇)을 활용한 채팅 상담을 365일, 24시간 실시하고 있다.



출처: <http://www.kihf.or.kr/lay/S1T637C463/contents.do>

3.

가족면역력 강화 정보제공

코로나19 극복 가족관계에도 방역이 필요해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는 '가족면역력' 강화와 관련한 정보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출처: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3&bbtSn=708363

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4.

가족서비스 정보 제공 기관



서울가족포털 패밀리서울 Seoul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서울가족포털 패밀리서울은 서울시 25개 가족센터의 프로그램 정보 뿐 아니라 정책서비스 및 교육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https://familyseoul.or.kr/infant>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의 육아전문지원기관으로 우리동네 보육반장, 녹색장남감도서관 등의 양육지원사업, 어린이집 평가 컨설팅 등 보육지원사업, 서울시 및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아동학대예방사업 등의 기획·총괄사업을 운영한다.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Seoul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강화 종합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기관지원,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한울타리 Seoul

서울시 다문화정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정보, 생활정보, 지역사회모임 정보 등 다문화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총 11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한국생활 적응에 꼭 필요한 기본정보와 다문화 관련 최신정보를 13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생활정보, 교육정보, 취업·채용정보 등 주제별 정보제공 뿐 아니라,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청소년 등 대상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Seoul NEW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담 지원기관으로 전문적인 상담 및 의료·법률, 임시보호 등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주여성출신 상담원(중국어·베트남어 등 6개 언어) 및 통·번역지원단이 피해 여성이 겪는 심리·정서적 충격, 생활·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모국어로 맞춤 상담을 지원한다. ☎ 02-2038-0173



서울온드림교육센터 Seoul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중도입국자녀의 한국 생활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어, 진로 및 취업교육, 멘토링·상담 관계형성 프로그램, 다문화·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을 제공함으로써 중도입국자녀의 안정적 적응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Seoul

장애인가족 대상 정보 제공,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례관리, 지역사회 인식개선, 동료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 등 장애인 가족의 역량 강화 및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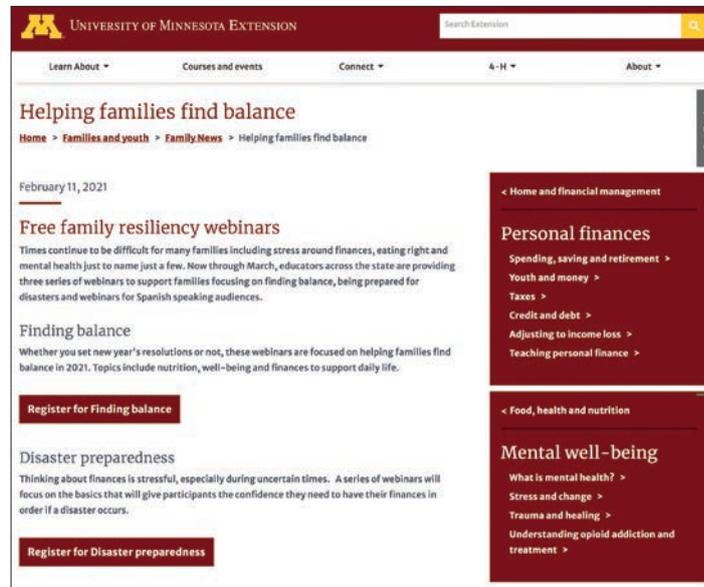
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생활정보제공·취업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미국 | 가족탄력성 증진 화상 토론회

미국 미네소타대학 익스텐션(University of Minnesota Extension)에서는 가족의 탄력성 향상을 위해 무료 가족탄력성 화상 토론회(Webinar)를 운영하고 있다. 화상 토론회에서는 소득감소로 인한 어려움, 가계재무관리, 정신건강, 탄력성 증진, 자기돌봄 등을 다루고 있다.



출처: <https://extension.umn.edu/family-news/helping-families-find-bal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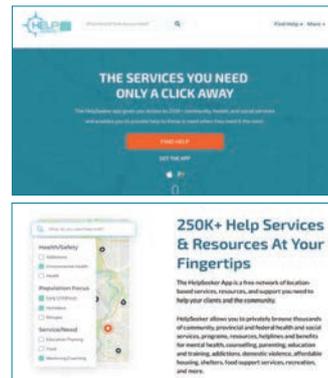
정책 제안

가족서비스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가족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가족서비스 정보제공 앱(예: HelpSeeker)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가족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가족 관련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가족서비스 정보 제공 원스톱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가족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함께 서비스 신청까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https://helpseeker.org/>





서울가족의 돌봄

1.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 돌봄
2.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
3. 가정과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
4. 코로나19 시대, 공백 없는 돌봄



카드뉴스 서울가족의 돌봄

서울가족의 돌봄 #2

코로나19 이후, 서울시민의 자녀돌봄은 어떤 모습일까요?

서울가족의 돌봄 #2

코로나19 이후, 자녀의 신체활동 감소, 미디어 노출에 대한 걱정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자녀에 대한 걱정 (단위: %)

언제 활동이 줄어든	41
TV, 유튜브, 휴대전화 등 screen time 증가	39
만화책과 소셜미디어	35
학업량이 줄어든	34

출처: 2021 서울가족돌봄연구소 4월 10일~22일 서울 2만여명 설문조사 결과

서울가족의 돌봄 #2

코로나19 이전보다 부모의 영향이 커지고 역할이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부모역할의 중요성 인식 (단위: %)

부모역할이 자녀의 학습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	39
부모역할이 더 어려워짐	37
여전히 영향이 높지만	34
자녀에 대한 관심 자체가 줄어	33
자녀교육에 관심이 줄어	31
아직도 영향이 높지만	30

출처: 2021 서울가족돌봄연구소 4월 10일~22일 서울 2만여명 설문조사 결과

서울가족의 돌봄 #2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지친 부모와 자녀의 마음을 지켜드립니다.

부모님을 위한 가정양육상담 특화사업

- 영유아 대상 아동발달평가, 부모 대상 양육태도평가
- 치료 및 케어서비스 지원
- 은평구, 동각구, 용인구에게 시행 중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생명존중 캠페인

- (학교) 찾아가는 플러워트릭
- 마음건강 꾸러미 (디어마이프렌드)
-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 지원

1.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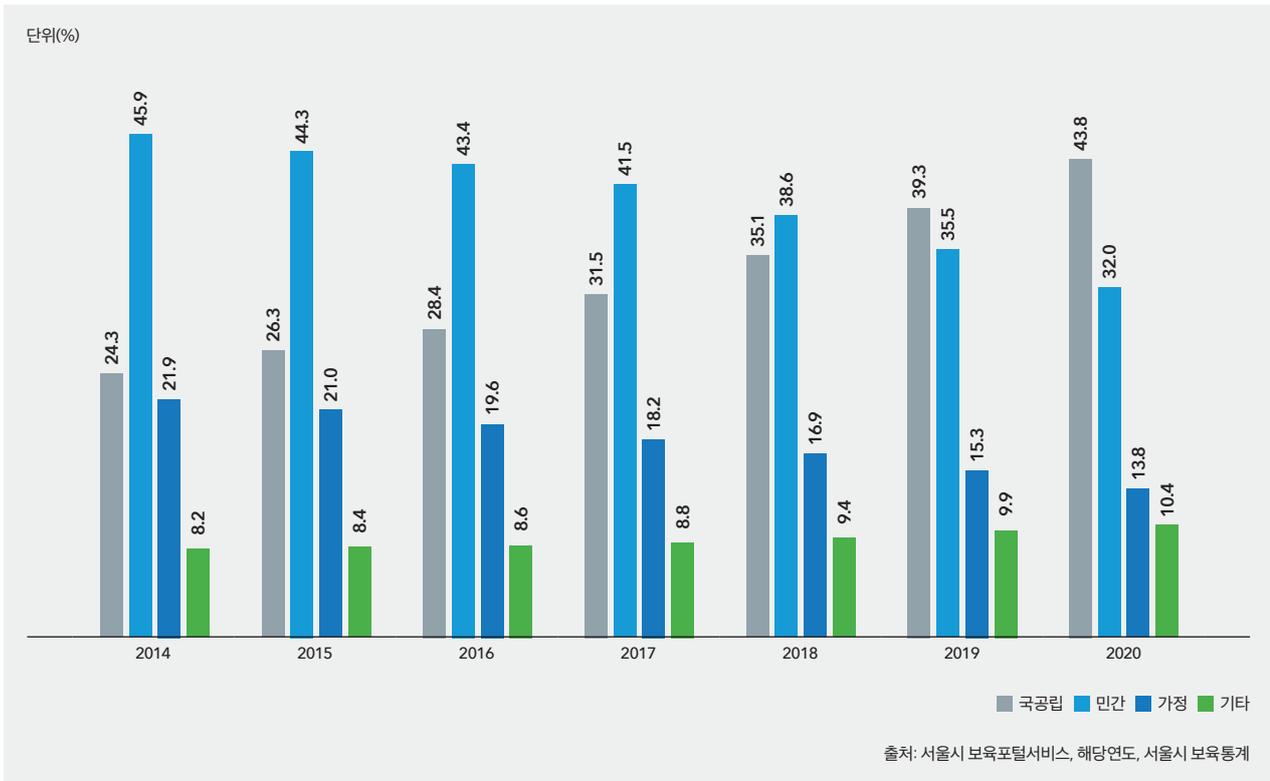


영유아 대상 보육기관 현황

2014년 24.3%인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0년 43.8%로 확대·설치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 서울 영유아의 47.8%는 어린이집에, 18.3%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33.9%는 가정보육을 받고 있다(서울시, 2020). 2014년부터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한 결과 2020년 기준 서울시 영유아 보육기관의 43.8%는 국공립어린이집이다.

연도별 서울시 영유아 대상 보육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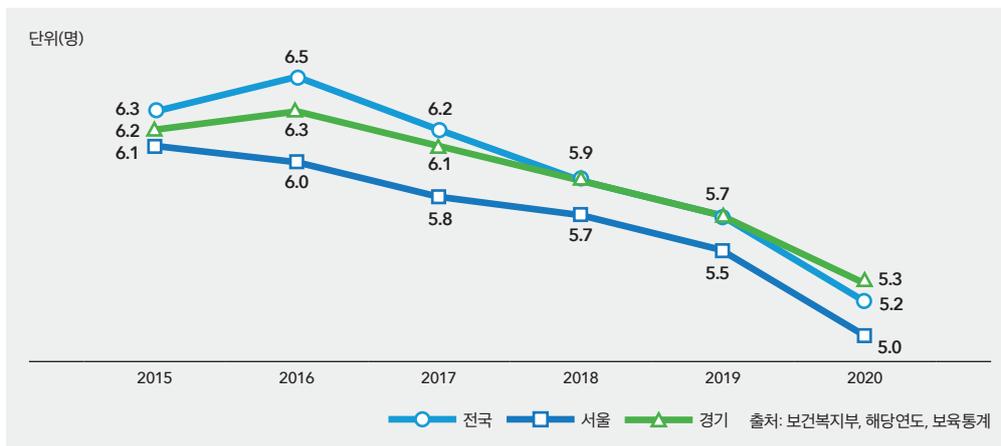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2020년 기준 **서울시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5명으로 전국 및 경기도 보다 낮습니다.**

서울시의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2015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전국 5.2명, 경기 5.3명, 서울 5.0명이다.

연도별 전국·서울·경기도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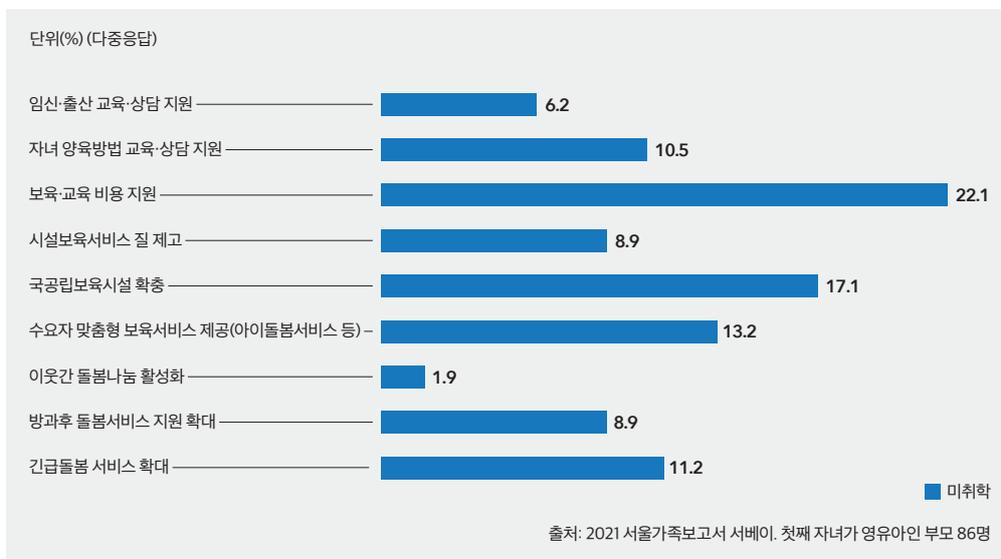


영유아부모의 정책요구도 2021 Seoul Family Survey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는 **보육·교육 비용 지원에 대한 정책요구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영유아부모는 돌봄정책과 서비스 중 '보육·교육 비용에 대한 지원' 요구도가 22.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17.1%),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은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13.2%) 순으로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영유아부모의 정책요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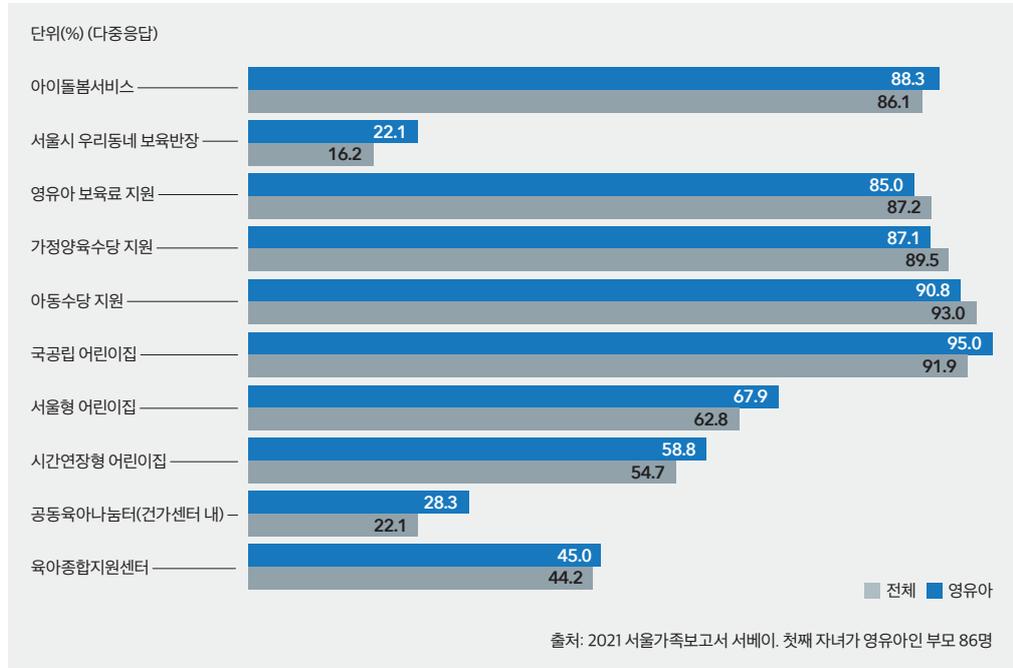


영유아돌봄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인지도 2021 Seoul Family Survey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는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같이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영유아자녀를 양육하는 서울시민의 영유아돌봄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인지도는 ‘아동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같이 영유아돌봄에 필요한 수당 관련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인지도가 가장 낮은 서비스는 ‘서울시 우리동네 보육반장’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돌봄 정책 및 서비스 인지도



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1.

보육사업

서울시 교사 대 아동비를 개선 시범사업 *Seoul NEW*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0세반은 3명, 3세반은 15명당 보육교사 1인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 시범사업을 통해 0세반 2명, 3세반은 10명당 보육교사 1인을 배치하여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줄여 보육교사의 아동 집중돌봄을 실시한다.

출처: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3370>



서울형 어린이집 *Seoul*

보육품질 평가 기준을 통과한 민간어린이집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하고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



다함께 어린이집 *Seoul NEW*

서울시는 어린이집, 부모, 지역사회가 하나의 보육공동체를 이루는 다함께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2021년 8월 실시한다. 참여형 보육모형을 통해 지역돌봄체계를 구축·활성화한다.

출처: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2659>

생태친화 어린이집 *Seoul*

생태친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영유아, 부모가 함께 '생태친화 보육'을 실천하는 어린이집이다. 생태친화 보육이란 유아 숲 체험 등 자연친화적인 보육활동을 넘어 아이의 욕구를 중시하고 아이다움의 구현을 도와주는 보육이다. 기존 보육과정에서 취약할 수 있는 자연경험, 놀이체험 그리고 교사와 부모의 인식변화를 중시하고 있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Seoul NEW*

서울시는 도보 이용권에 있는 3-5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하나로 묶어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공동보육모형을 2021년 8월부터 8개 자치구에서 시작한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원아를 공동 모집하고 각 어린이집이 보유한 교재·교구를 공동 활용하며 보육 프로그램과 현장학습도 함께 기획·운영한다.

출처: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4127>

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든든어린이집 *Seoul*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든든어린이집의 운영비전은 '공공이 책임지는 아이중심 보육환경 구축'으로, 서울시 보육정책을 수행하며 전문성 있는 보육교직원이 보편적 보육 책무성을 가지고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한다. 자치구 보육사업 및 이용자 수요를 고려하여 야간연장형, 장애아통합, 다문화아동, 시간제보육의 맞춤형 취약보육을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연번	어린이집명	계합명	정원	주소	취약보육
1	노원든든어린이집	'20.03.01	45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현산로2가길 동계생태힐마을1리길 4 내	야간연장, 장애통합
2	서대문든든어린이집	'20.05.01	71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북로100 제이안우선데이 아파트 단지 내	야간연장, 시간제
3	과주개치나이 어린이집(통합)	'20.07.01	60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1394길 17	야간연장, 장애통합
4	용산행복어린이집(통합)	'20.07.01	90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20 낙원6반6동새마을아파트 내	야간연장, 장애통합
5	영등포든든어린이집	'20.09.01	60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35가길 9	야간연장, 다문화아동
6	김천든든어린이집	'20.09.31	90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이수로 53가길 110(강일동)	야간연장, 장애통합
7	송파든든어린이집	'21.03.01	77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계로225 학계로225신 13단지	야간연장, 장애통합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시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이다.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방 *Seoul*

공동육아나눔터는 만 1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육아 네트워크 공간으로, 부모들은 자녀양육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공동육아방은 서울시가 만 6세 이하 영유아와 보호자가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놀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다.

출처: https://icare.seoul.go.kr/icare/dolbomSVC/dolbomSVC_4.jsp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Seoul*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영유아 건강 간호사가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살피고 양육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치구 보건소에 신청하며, 임신부터 출산, 아기가 만 2세까지 영유아 건강 간호사의 가정방문(보편방문, 지속방문) 서비스가 제공된다.

2.

보육정보 서비스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Seoul*

서울시의 어린이집과 보육서비스를 실시간 검색, 조회, 예약할 수 있는 보육통합 포털시스템이다.

- 보육정보 제공
우리동네 어린이집, 보육뉴스, 보육자료실, 서울시 보육통계 등
- 보육서비스 실시간 예약
야간연장보육, 거점형야간보육, 휴일보육, 365열린어린이집
- 보육교사 대상 서비스
보수교육 신청, 보육교사 소통방, 보육인력 구인구직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전자책 발간 *Seoul*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직접 수집한 25개 자치구별 지역 육아정보를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우리동네 키움포털서비스,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출처: 우리동네키움포털 홈페이지
출처: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Seoul

서울시의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웹과 모바일로 제공하고,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등 8종의 모자보건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영유아 건강관리 모바일 서비스

보건소에서 영유아의 신체적성 검사 실시 후 스마트 폰 앱을 통해 보건소-어린이집-가정이 검사결과를 공유하고 모니터링하는 원스톱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이다.

출처: <http://k-paps.co.kr/>



3.

자치구별 특화 서비스



강동 iMOM택시

Seoul NEW

‘강동 iMOM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와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에서 정기검진, 예방접종 등 의료목적으로 병·의원 방문시 이용할 수 있는 전용택시 서비스이다. 서비스는 2021년 8월 17일부터 개시한다.

이용방법: 앱 설치(i.m/아이.엠) → (메뉴) 아이맘택시 → 강동구 선택 → 회원가입 → 택시이용 → 2일 내 병원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4.

보편적 영유아 지원 사업



아동수당

- 대상: 0세-만 7세 미만(0-83개월) 아동(난민 인정 아동 포함)
- 금액: 10만 원/월
-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bokjiro.go.kr)



보육료 지원

- 대상: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아동(소득수준 무관)
 - 금액: 어린이집 보육료 100%(민간어린이집 이용시, 서울시는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액 전액 지원)
 - 이용방법: 어린이집 등록 전 복지로(bokjiro.go.kr)에서 사전신청하여 '국민행복카드' 발급
- ※ 2021년부터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가 국민행복카드 한 가지로 통합되어 어린이집(보육료 결제), 유치원(유아학비 인증),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및 사회서비스 전 자바우처 등의 사용 가능



유아학비 지원

- 대상: 유치원 재원 중인 만 3-5세(소득수준 무관)
- 금액: 국공립(80,000원/월), 사립(260,000원/월)
-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bokjiro.go.kr)



가정양육수당

-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초등학교 미취학인 경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를 돌보는 경우 지원(소득수준 무관)
- 금액: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bokjiro.go.kr)

정책 제안

부모의 자녀양육역량 강화 지원

서울시의 영유아돌봄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줄이는 보육인프라의 질적 개선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의 자녀양육역량을 강화하는 두 개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부모의 자녀양육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시는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수집한 자치구별 육아정보를 담은 '우리동네 꿈꿈 육아정보'를 2019년부터 발간하고, 코로나19로 가정 내 자녀양육 시간이 늘어난 것을 대비해 올바른 자녀양육법을 안내하는 '온라인 아빠교실', '다자녀 양육 지침서'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러한 사업들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도 함께 성장·변화해야 하는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돌봄 정책인지도 중 부모역할 교육 및 상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영유아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는 아동발달이나 신체돌봄과 같은 점에 관심을 두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자녀가 자라나면서 부모역할이나 내 자녀에게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서울시 우리동네 보육반장과 같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자치구 단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거주하는 자치구의 보육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출처: 서울시, 발로 뛰며 수집한 '25개 자치구 육아정보 꿀팁' 전자책 발간(<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39399>)

출처: 서울시, 코로나시대 '온라인 아빠교실', '다자녀 양육지침서' 개발·배포(<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0898>)

출처: 2021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1,637명), 첫째 자녀가 영유아인 부모 86명

2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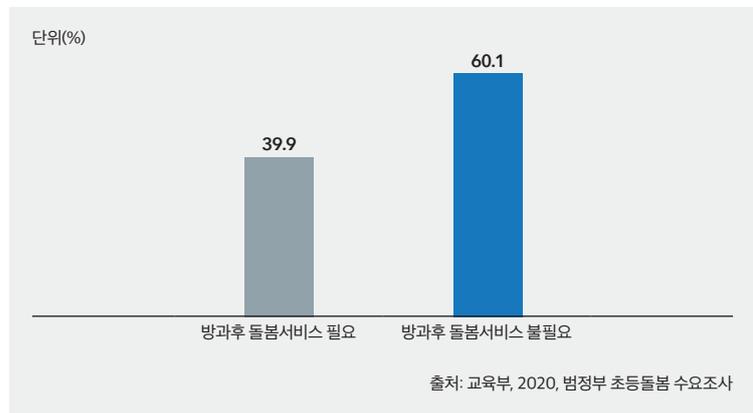


초등돌봄 서비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의 **5명 중 2명은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초등돌봄 수요조사(교육부, 2020)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예비, 재학생)를 둔 서울 시민은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대해 '필요하다' 39.9%, '필요하지 않다' 60.1%로 응답하였다. 초등학생 대상 돌봄서비스로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초등돌봄 교실 73.8%, 지역아동센터 12.8%, 다함께돌봄센터(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8.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2%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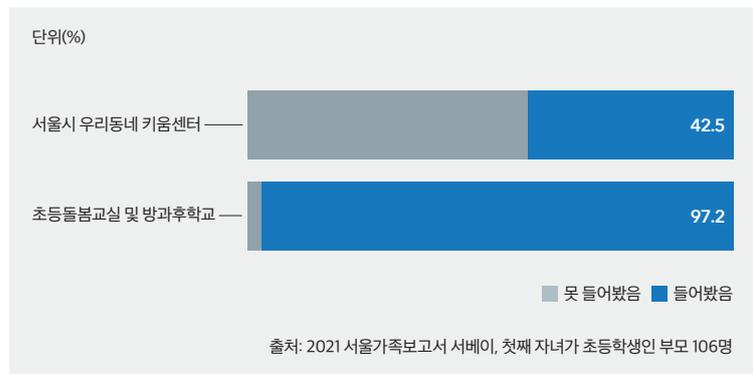
초등돌봄 서비스 필요도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서울시민의 초등돌봄 서비스 기관 인지도**는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보다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가 더 높았습니다.**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에서 초등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97.2%로 거의 모든 응답자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들어봤다'는 응답은 42.5%로 나타나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초등돌봄 서비스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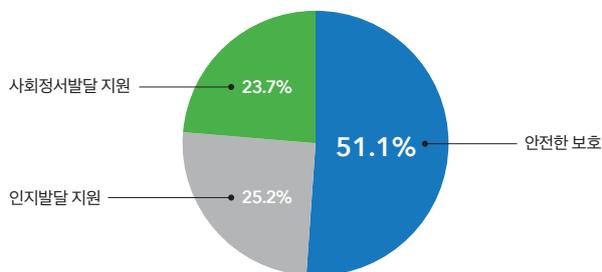
초등돌봄의 요건

방과후 초등돌봄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안전한 보호'**입니다.

서울시(2018)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생각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중요 요건은 '안전한 보호'(51.1%), '인지발달 지원'(25.2%), '사회정서발달 지원'(23.7%) 순이었다. 초등돌봄은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함께 아동의 인지·사회정서발달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초등돌봄의 요건

단위(%)



출처: 서울특별시, 2018, 서울시 초등방과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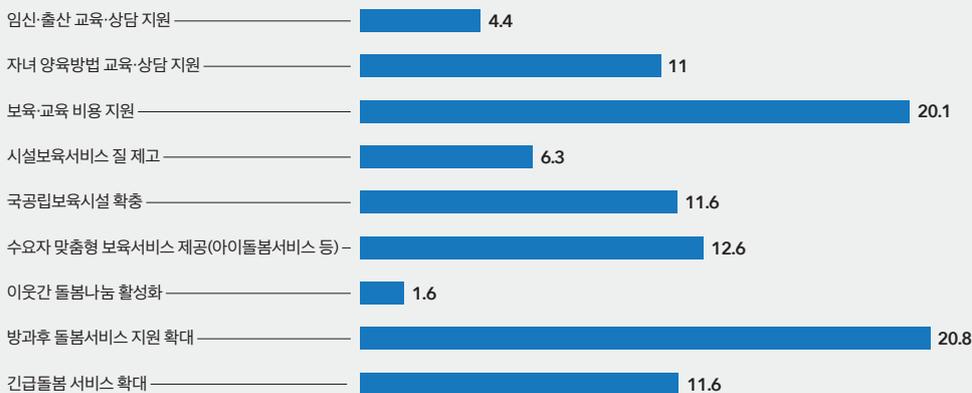
초등부모의 정책요구도 2021 Seoul Family Survey

초등자녀를 둔 부모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초등부모의 정책요구도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가 20.8%로 가장 높았으며, '보육·교육 비용 지원'(20.1%),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은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12.6%)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부모의 정책요구도

단위(%) (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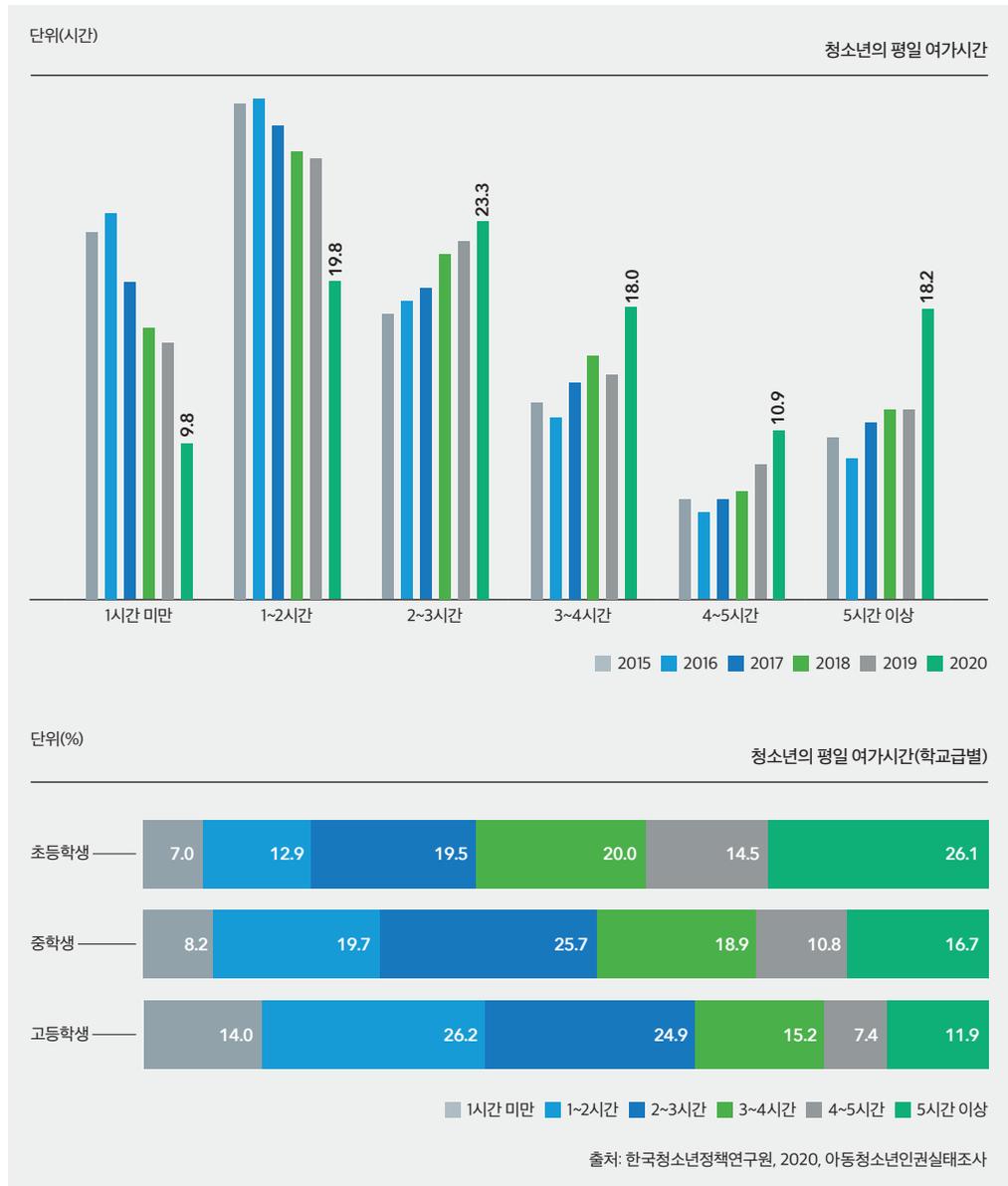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부모 106명

청소년의 생활

청소년의 평일 여가시간은 점차 길어지고 있으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평일 여가시간은 짧아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초·중·고등학생이 평일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2-3시간(23.3%), 1-2시간(19.8%), 5시간 이상(18.2%), 3-4시간(18.0%) 순이며, 최근으로 올수록 평일 여가시간은 점차 길어지고 있다. 하지만 학교급이 높을수록 평일 여가시간이 2시간 미만인 학생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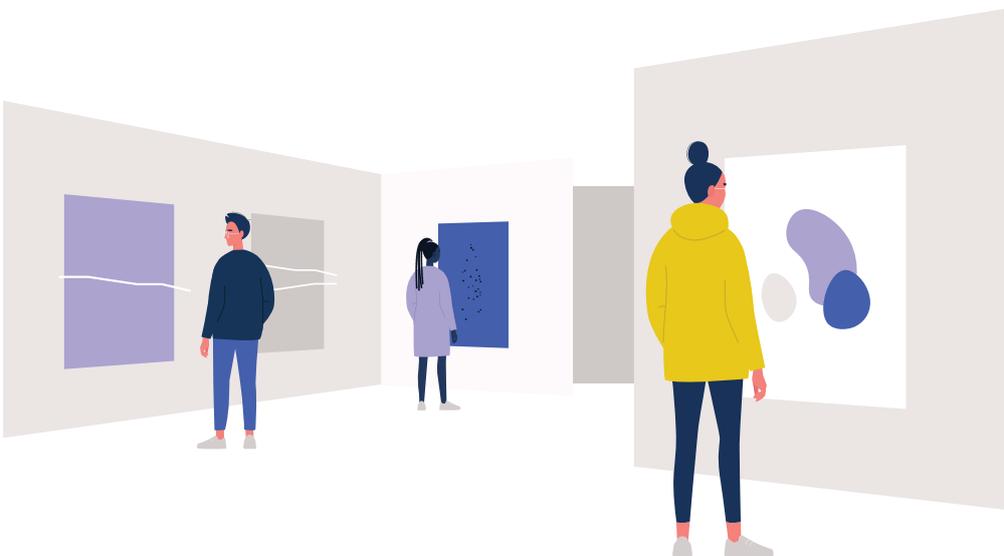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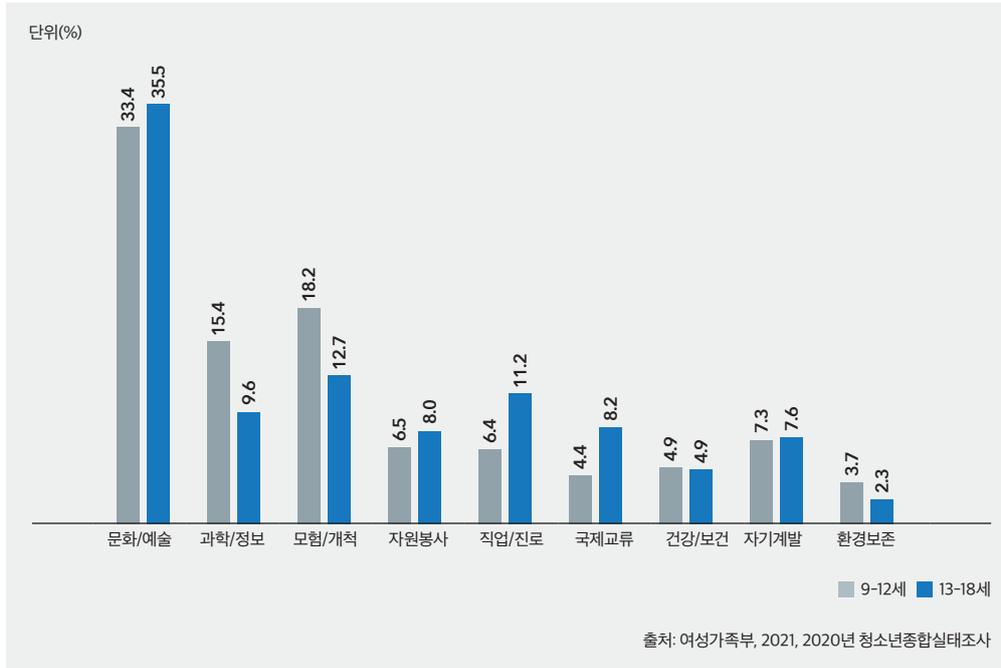
청소년의 평일 여가시간



연령과 상관없이 청소년이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문화·예술 관련 활동**입니다.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연령과 상관없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기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다음으로 '모험/개척' 활동, '과학/정보' 활동 순으로 나타난다.

연령대별 청소년이 희망하는 활동



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1.

아동청소년을 위한 돌봄 및 교육 서비스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Seoul*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만 6-12세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심·여가·놀이공간을 마련·제공함으로써 방과후 초등학생 아이에게 돌봄을 제공한다.

- 신청방법: 이용을 희망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에 전화 및 방문상담
- 운영시간: 정기돌봄(종일돌봄, 시간제돌봄), 일시돌봄
- 이용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범위 내(지역여건 및 제공 서비스 등에 따라 자치구별 이용료 상이)



출처: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홈페이지



출처: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인스타그램



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은 별도 시설(전용 또는 겸용교실 등)이 갖추어진 공간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활동이며, 주로 초등 1-2학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방과후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활동으로, 학교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이다. 초등학교 1-6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도담도담마을학교 Seoul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협력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도담도담마을학교를 운영한다. 학교 수요조사를 통해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하여 3가지 모델로 운영된다.

1. 원격학습지원형: 학교와 마을 주변 마을공간에서 마을학교를 열어 원격학습 지원
2. 방과후활동 지원형: 마을공간(마을공방, 아파트 커뮤니티실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과 후 활동 지원
3. 마을선생님 멘토링형: 학생과 마을 어른이 친구맺기를 통해 정서, 심리 및 학습 지원

출처: <http://www.edu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32>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둔 종합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이다.

- 이용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학교밖 청소년으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 포함) 중 소득기준,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으로 선정
- 운영시간: 월-금을 포함하여 주 5일, 1일 8시간 상시 운영
- 이용료: 무료
- 신청: 보호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Seoul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단계의 학업중단학생들의 학습, 상담, 진로 지원을 서비스로 제공하여 건강하게 학교나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처: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홈페이지

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e청소년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과 기관 및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봉사활동 등록 및 선택을 지역별로 할 수 있고 자유학기제나 비대면 청소년활동도 찾아 볼 수 있다. 봉사활동 실적은 1365와 연동되며 활동 확인서도 받을 수도 있다.



노는 은평, 크는 아이(Play Eunpyeong, Build Children) Seoul

은평구에 거주하는 만 6세~12세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아동의 놀이권을 되찾기 위해 숙련된 놀이활동가가 아동의 발달 정도에 맞춘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6-8명으로 구성된 소그룹 체험놀이나 은평구에 있는 다양한 실외 시설을 이용한 놀이 콘텐츠를 제공한다.



우리 아이 꿈 그리기, 꿈 부르기(성북구) Seoul

고가의 예체능 교육을 저렴하게 제공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여 아동이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초등학교생이며, 문의 및 접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가 담당한다.

정책 제안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식 개선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선택권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들이 안전, 인성, 사회정서를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며 실제 이용하고 있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는 학교 안 돌봄(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학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2018). 초등방과후 돌봄 서비스 중 학교 안 돌봄인 초등돌봄교실은 아동의 학교 밖 이동이 없다는 점에서 부모의 선호가 높으나, 초등돌봄교실은 경쟁률이 높고 일부 학년만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 안에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안전 관련 부담이 있다. 반면 지역사회에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이나 민간기관들은 학교 안 돌봄서비스와 비교할 때 놀이와 체험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신체 활동을 포함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 이는 부모가 원하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는 학교 밖 지역사회에도 다수 존재하나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학교 안 돌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아동과 청소년이 방과후 이용할 수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118개), 지역아동센터(429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23개)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 단위 방과후 돌봄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되 실질적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재학 중인 학교에서 가까운 곳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종합하여 제공하거나 이를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정보와 함께 제공한다면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학교 밖에 있는 지역사회 방과후 돌봄 인프라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고 더불어 부모와 자녀가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선택·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서울시(2018). 서울시 초등방과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스코틀랜드 | 학령 전 무상보육시간 1,140시간으로 확대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3-4세 아동에 대한 연간 무상교육 및 보육시간을 기존 600시간에서 1,140시간으로 두 배 늘려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학부모가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스코틀랜드의 방과전·후 돌봄 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학령 전 학습 및 보육'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의 학령 전 시기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입학과 그 이후 학교생활에 필요한 능력과 자신감을 배양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는 근무, 훈련,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https://www.tes.com/news/landmark-early-years-policy-all-set-after-covid-delay>



싱가포르 | 기어업(Gear-Up: After School Engagement Programme)

싱가포르 교육부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기어업(Gear-Up: Guiding & Empowering students for Affiliation and Resilience to Unlock their Potential)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9년 60개 학교에서 2021년 약 120개 학교로 확대하였으며 지금까지 약 6,700명 이상의 중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학생이 방과후에 독립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음악 및 스포츠와 같은 활동을 통해 또래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 모니터링을 통해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교사, 커뮤니티 파트너 또는 자원봉사자가 학생의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 기어업 프로그램은 장기결석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을 지원하는 업리프트(Uplift: Uplifting Pupils in Life and Inspiring Families Taskforce) 프로그램과 함께 불우한 배경의 학생들이 출신배경으로 학교에서의 수행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parenting-education/after-school-support-in-secondary-schools-has-helped-boost-student>



미국 | YAR(Youth as Resources) Project

청소년을 지역사회의 가치있는 자원으로 인식하고, 긍정적인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성인의 협력자로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에 의해 계획되고 주도된 지역사회기반 봉사활동 프로젝트로 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힘과 능력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을 정책 수립과 결정 과정에 주요하고 동등한 활동가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청소년과 성인 간의 협력관계모형을 만들어 냈다.



출처: <http://www.youthasresources.org/>

3

가정과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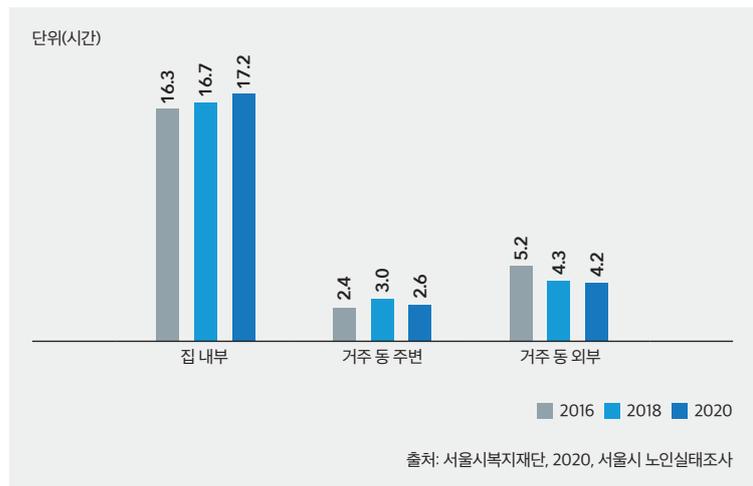


서울노인이 시간을 보내는 장소

서울노인은 **하루 평균 17.2시간을 집 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서울시복지재단, 2020)에 따르면, 65세 이상 서울노인은 주중·주말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수면시간 포함)이 평균 17.2시간으로 가장 길고, 나머지 시간은 거주 동 외부(4.2시간), 거주 동 주변(2.6시간)에서 보낸다.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점차 증가하여 2016년 16.3시간, 2018년 16.7시간, 2020년 17.2시간으로 점차 길어지고 있다.

서울노인이 시간을 보내는 장소



서울노인의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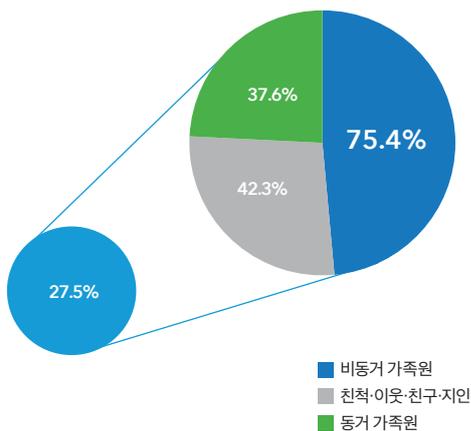
**노인은 가족 및 친인척에게 돌봄을 받지만,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서울시의 노인 가구(독거 포함) 중 27.5%는 일상생활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사람(가족 등)에게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움을 받는 사람은 비동거 가족원(75.4%), 친척·이웃·친구·지인(42.3%), 동거 가족원(37.6%) 순이다. 노인 가구의 20.8%는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수발, 간호, 육아 등의 도움을 주며, 도움을 주는 대상은 배우자(55.7%), 손자녀 및 손자녀의 배우자(46.7%),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45.0%) 순이다. 노인은 가족에게 돌봄을 받는 동시에 돌봄을 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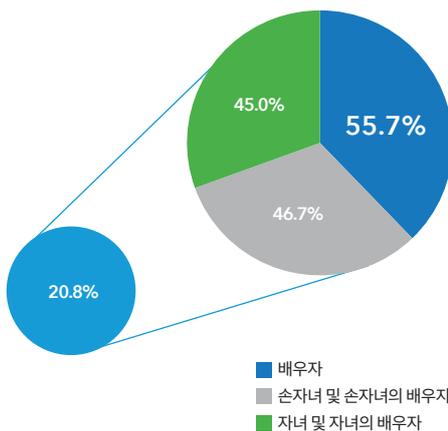
노인이 돌봄을 주고 받는 사람

단위(%)

노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



노인이 도움을 제공하는 대상



출처: 서울시복지재단, 2020,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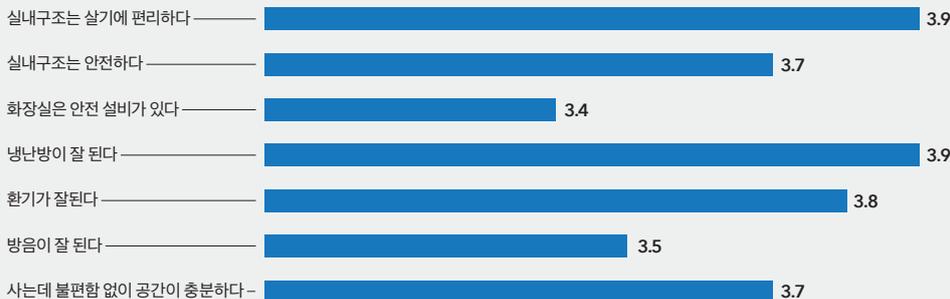
노인과 지역사회

서울노인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화장실 안전설비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습니다.**

2020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서울복지재단, 2020)에서 현재 거주하는 주택과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 서울노인은 화장실의 안전설비에 대한 만족감이 평균 3.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고(범위: 1-5점) 외출 시 계단/경사로(44.5%)가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노인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지역사회 내 거주, 이동/외출과 관련한 고령자 친화 인프라가 필요하다.

현재 거주 주택에 대한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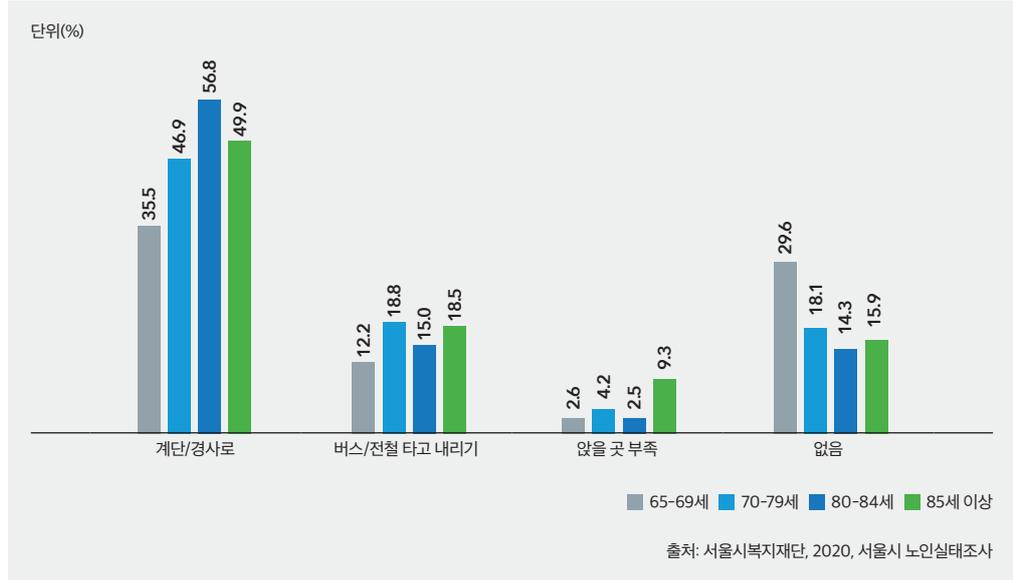
단위(점)



출처: 서울시복지재단, 2020,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서울노인은 외출시 계단/경사로가 가장 불편하며 이동 및 외출 관련 불편함이 큼니다

서울노인이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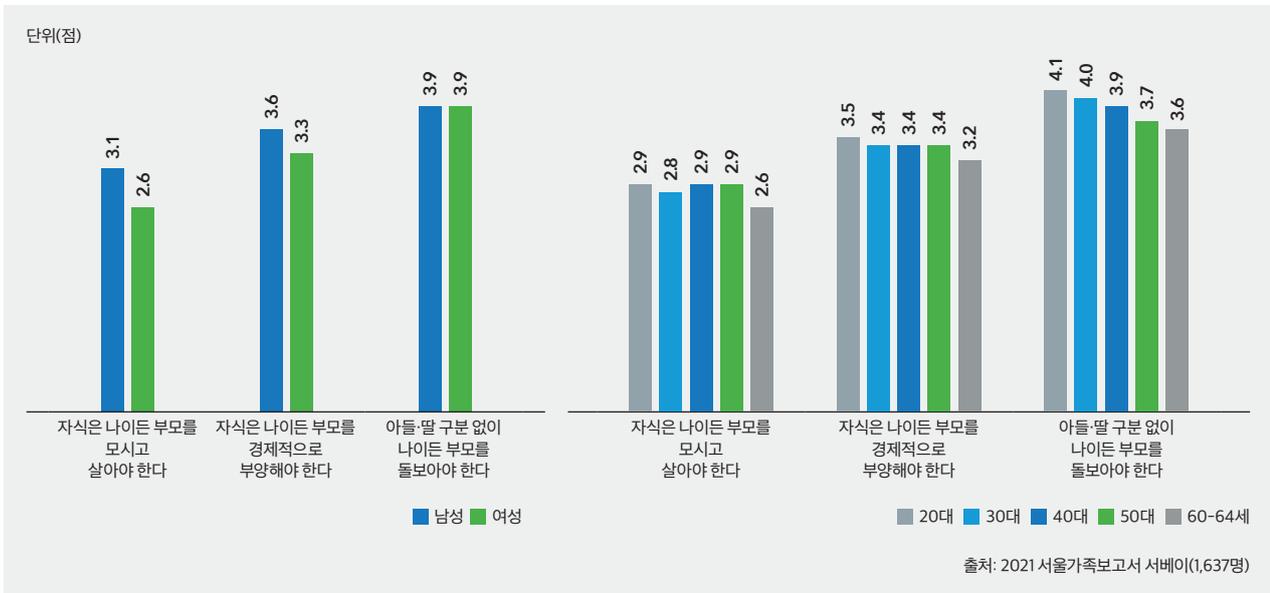


성인들의 부모부양 의식 2021 Seoul Family Survey

노부모 부양책임의식은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민의 부모부양의식을 조사한 결과(1-5점), 나이 든 부모를 자식이 모시고 살거나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 부양책임의식은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낮아질수록, 노부모 부양책임 의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대별 서울시민의 부모부양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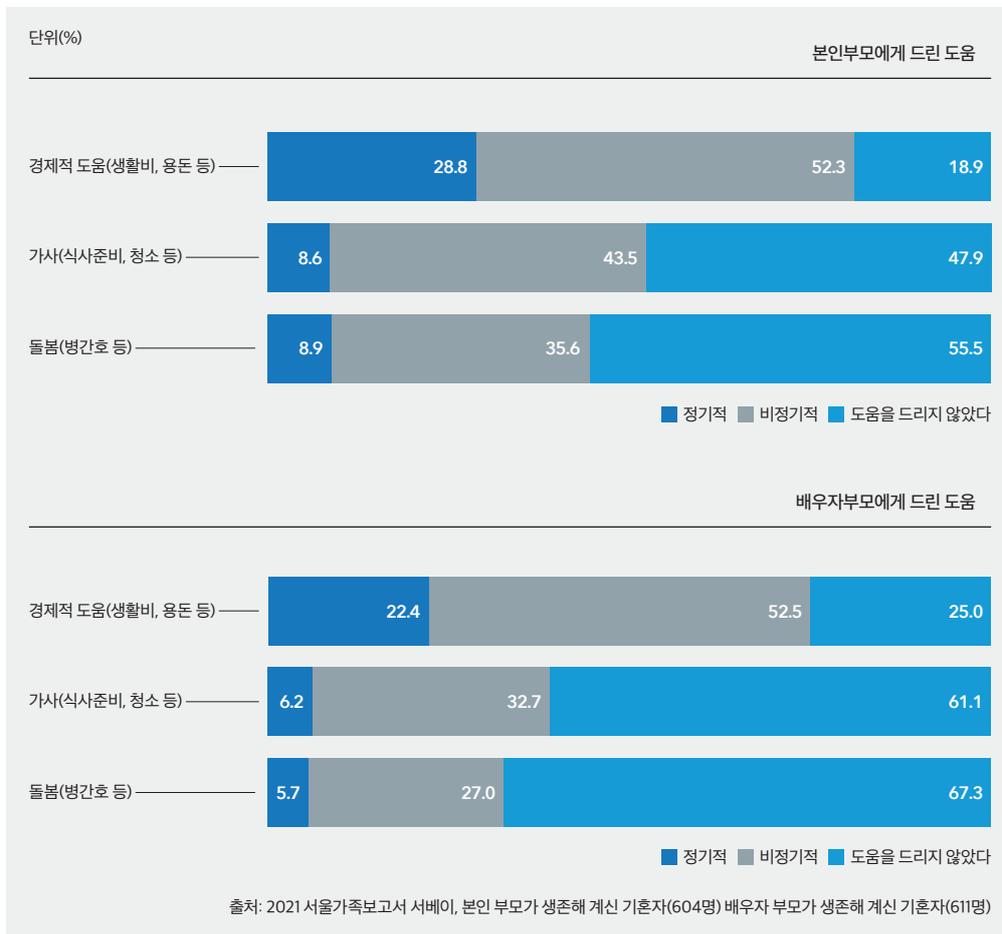


노부모에 대한 경제, 가사, 돌봄 도움 2021 Seoul Family Survey

서울의 기혼남녀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에게 **경제, 가사, 돌봄 순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혼남녀는 지난 12개월 동안 본인 부모에게 드린 도움(정기적+비정기적)은 생활비, 용돈 등 '경제적 도움' 81.1%, '가사' 52.1%, '병간호 등의 돌봄' 44.5% 순이었다. 배우자 부모에게 드린 도움은 '경제적 도움'이 74.9%로 가장 많았고 '가사'(38.9%), '돌봄'(32.7%)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배우자 부모에게 드리는 경제, 가사, 돌봄 도움



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1.

서울형 노인돌봄

어르신돌봄가족 휴가제 Seoul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노인성 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 휴식을 지원하는 제도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치매가족돌봄휴가제와 달리 휴가비와 돌봄비를 제공한다. 휴가비는 당일 15만 원, 1박2일 30만 원, 2박3일 45만 원이며, 여행에 어르신이 동행하지 않는 경우 어르신을 돌보는 돌봄비용으로 당일 5만 원, 1박2일 10만 원, 2박3일 15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기관은 어르신돌봄가족 지원센터이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 Seoul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은 어르신 돌봄시설의 데이케어센터(주간보호시설), 노인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노인의 인권보호, 시설의 안전성 및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 충족시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돌봄SOS센터 Seoul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일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이 직접 개입하여 돌봄서비스 신청부터 종결까지 책임있게 수행하는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 창구이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중 1)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3)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출처: 서울시어르신돌봄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출처: <https://www.dobong.go.kr/Contents.asp?code=10008226>

서울형 어르신 커뮤니티케어 *Seoul*

커뮤니티케어(Commynity Care)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어르신,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의미한다.



1. 광진구 우리동네나눔반장: 돌봄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

- 광진구의 돌봄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은 우리동네나눔반장 사업단을 통해 재가요양사업과 ‘열린밥상(노인식당)’을 중심으로 어르신 대상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2. 노원구 케어안심주택: 주거기반 통합돌봄 시범사업

- 노원구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주택’을 운영한다.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 연계, 일상건강관리(의약품복용지도 등), 의료지원(주치의제, 방문진료 등), 정서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 *Seoul*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사업은 건강, 안전,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어르신 가구에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기기를 설치해 일상을 관리하고 위급상황시 대응하는 서비스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관계단절, 우울, 고령 등으로 안전확인이 실시간으로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 돌봄 공백을 ‘비대면 돌봄’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2020년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사업 대상자를 총 1만 가구로 확대하였다.



출처: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2655>

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2.

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 신청대상: 1)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서비스 내용: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만 65세 이상)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 연계, 안전 확인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며, 대상에 따라 중점돌봄군(16~40시간 미만)과 일반돌봄군(16시간 미만)으로 구분된다.

- 신청방법: 본인, 신청자의 친족, 이해관계인이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서비스 내용: 안전지원, 생활지원, 사회참여, 연계서비스 등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노인돌봄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 내용: 치매등록서비스, 치매조기검진서비스, 치매환자서비스, 치매가족 지원서비스, 치매예방서비스 등



출처: <https://nid.or.kr>

정책 제안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한 도시개선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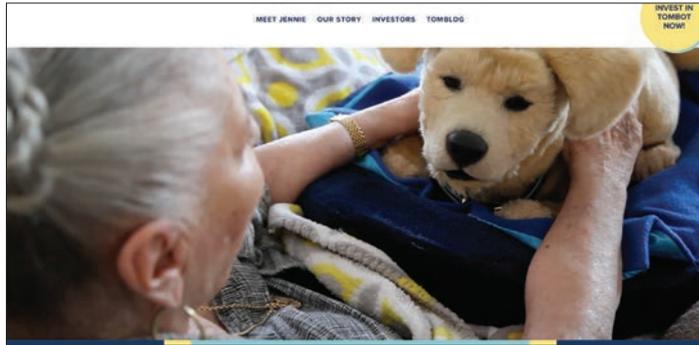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보내고 있으며, 건강이 유지되는 한 현재의 주거지에 계속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노인은 정주성이 높기 때문에 노년기 건강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과 지역사회 인프라가 노인친화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노인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 중심적 정책추진보다 유아, 장애인 등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고려한 도시개선사업이 필요하다.

출처: 정상윤, 손동욱(2019).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환경 평가 연구: 서울시 사대문안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5(1), 117-125.



미국 | AI 로봇을 활용한 노인 돌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제3세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세계적으로 비대면 노인 돌봄 제품 및 서비스에서 확대되고 있다. 세계 최초 인공지능 기반 노인 돌봄 안부 전화 서비스인 케어엔젤(Care Angel), 인공지능 활용 고령층 건강 모니터링 및 예측 팔찌 템포(Tempo), 고령자를 위한 반려강아지 로봇 제니(Jennie), 활동적 시니어를 위한 소셜로봇 엘리큐(ELLI Q) 등이 있다. 톰봇(Tombot)인 제니는 반려견 로봇으로, 치매나 파킨슨병을 앓는 노인의 마음을 치유할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사람이 만지면 꼬리를 흔들고 반갑다고 소리 내 짓기도 한다.



출처: <https://tombot.com/>



중국, 스페인, 독일, 일본, 덴마크, 영국 등 | 노인놀이터

최초의 노인놀이터는 1995년 중국에서 만들어졌으며 2000년대 영국, 일본, 핀란드, 독일, 캐나다, 스페인 등으로 확산되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는 300개 이상, 미국에는 53개의 야외 노인놀이터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본에서는 간호예방공원이라 부른다. 노인놀이터는 신체단련, 교류와 교제에 목적을 둔다.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cities/gallery/2016/apr/29/playgrounds-elderly-seniors-in-picture>

4

코로나19 시대, 공백 없는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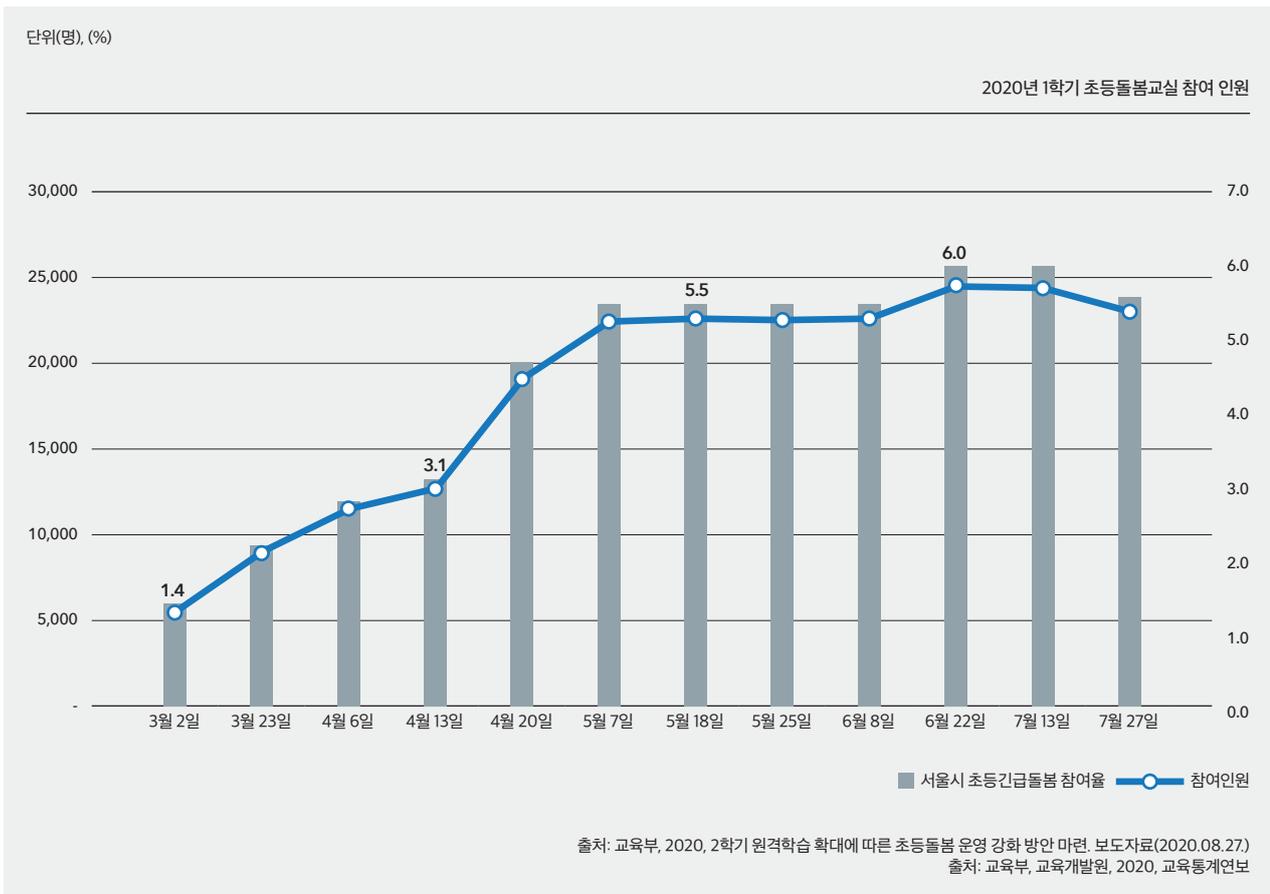


코로나19와 자녀돌봄 2021 Seoul Family Survey

2020년 1학기 서울시 초등학생의 약 6%는 초등긴급돌봄교실을 이용하였습니다.

2020 상반기 초등돌봄 현황분석에 따르면(교육부, 2020) 서울시 초등학생의 최대 6%는 초등학교의 긴급돌봄교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시기 초등학생 자녀돌봄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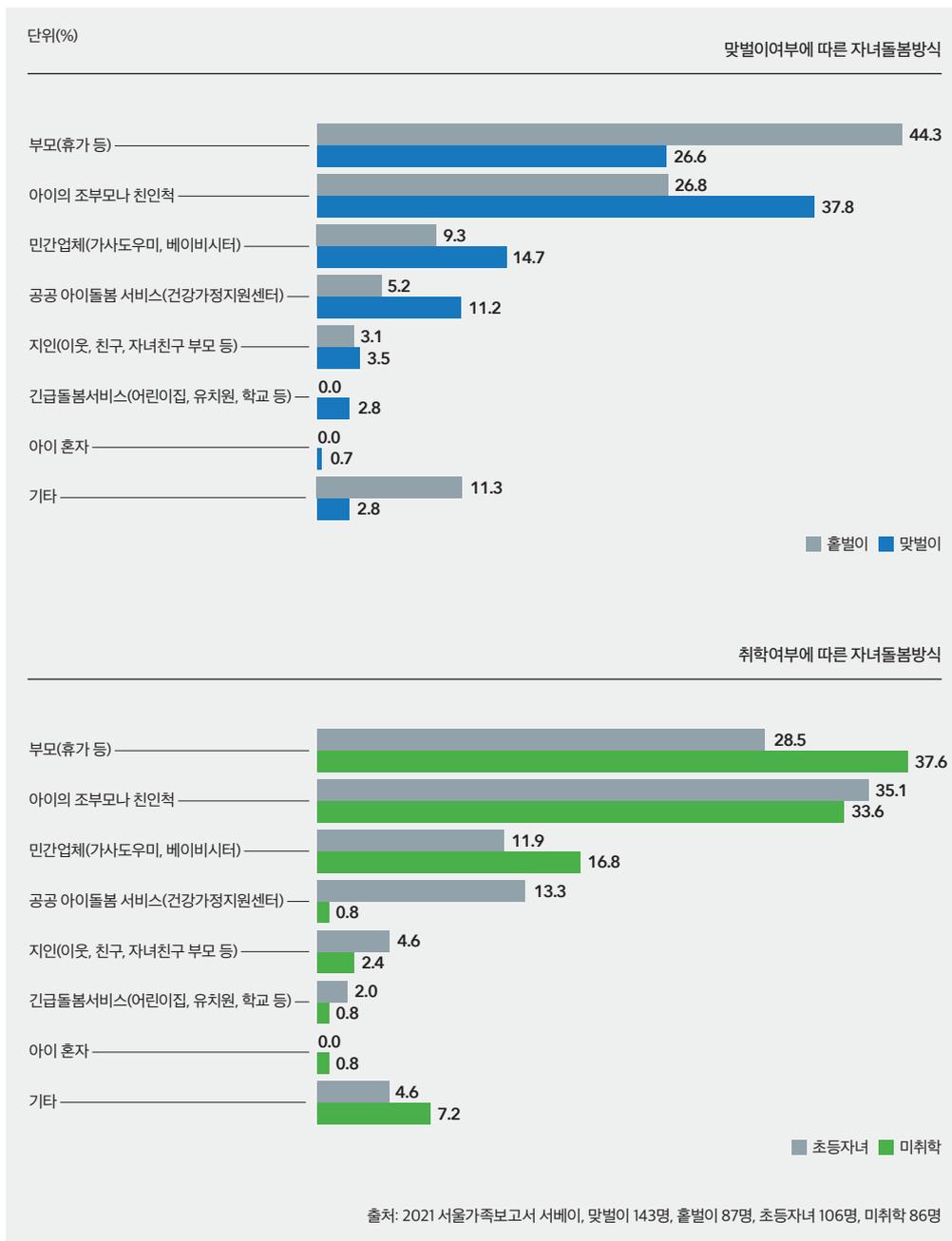
2020년 초등긴급돌봄교실 참여 현황



코로나19 시기 초등학생 이하 자녀돌봄 방법은 부모의 맞벌이 여부와 자녀의 취학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자녀돌봄은 주로 부모와 조부모(친인척 포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초등돌봄교실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6% 정도에 불과했다. 맞벌이 부모는 조부모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돌본 경우가 많은 반면(37.8%) 홀벌이 부모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44.3%)가 가장 많았다. 자녀가 미취학인 경우 부모의 돌봄이 37.6%로 나타나 초등학생 돌봄(28.5%)에 비해 부모의 참여가 더 많이 이루어졌다.

맞벌이여부 및 자녀 취학여부에 따른 코로나19 시기 자녀돌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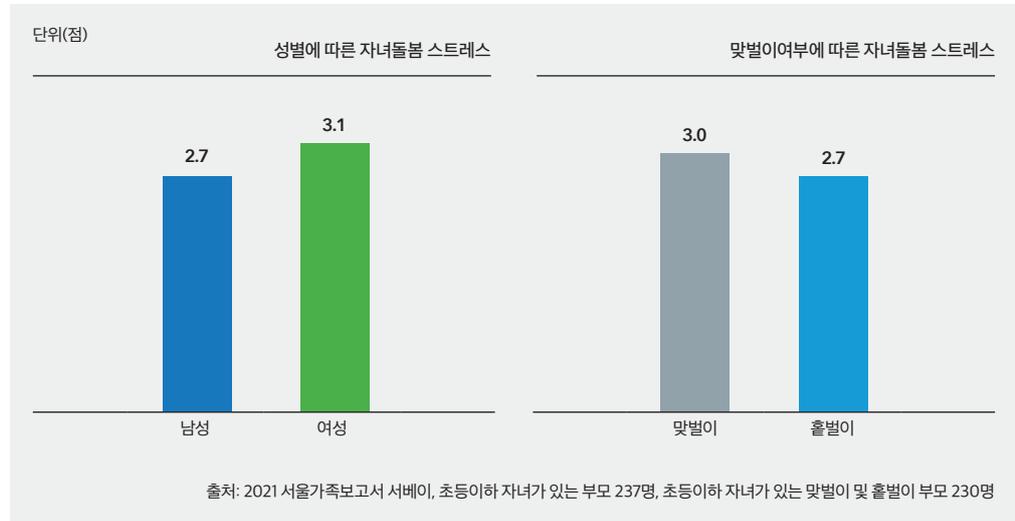


코로나19 시기 자녀돌봄 스트레스 2021 Seoul Family Survey

코로나19 시기 **자녀돌봄 스트레스는 남성보다 여성이, 홀벌이 부모보다 맞벌이 부모가 더 높게** 느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부모의 자녀돌봄 스트레스(1-4점)는 평균 2.9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자녀돌봄 스트레스는 부모의 성별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2.7점)보다 여성(3.1점), 홀벌이 부모(2.7점)보다 맞벌이 부모(3.0점)의 자녀돌봄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자녀돌봄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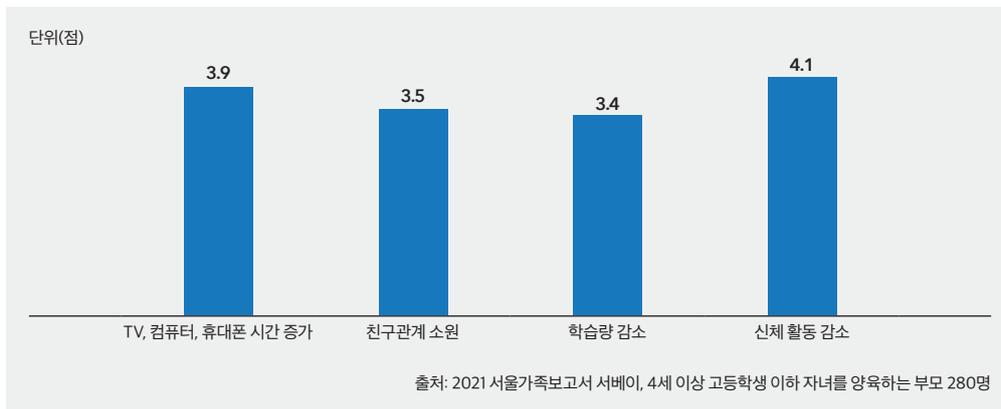


코로나19 시기 부모의 자녀 걱정과 인식 변화 2021 Seoul Family Survey

부모들은 코로나19 이후 **자녀의 신체활동이 줄어든 점**을 가장 걱정하였습니다.

만 4세 이상-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우려(1-5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체활동이 줄었다' 4.1점, '컴퓨터, 휴대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3.9점, '친구관계가 소원해졌다' 3.5점, '학습량이 줄어들었다' 3.4점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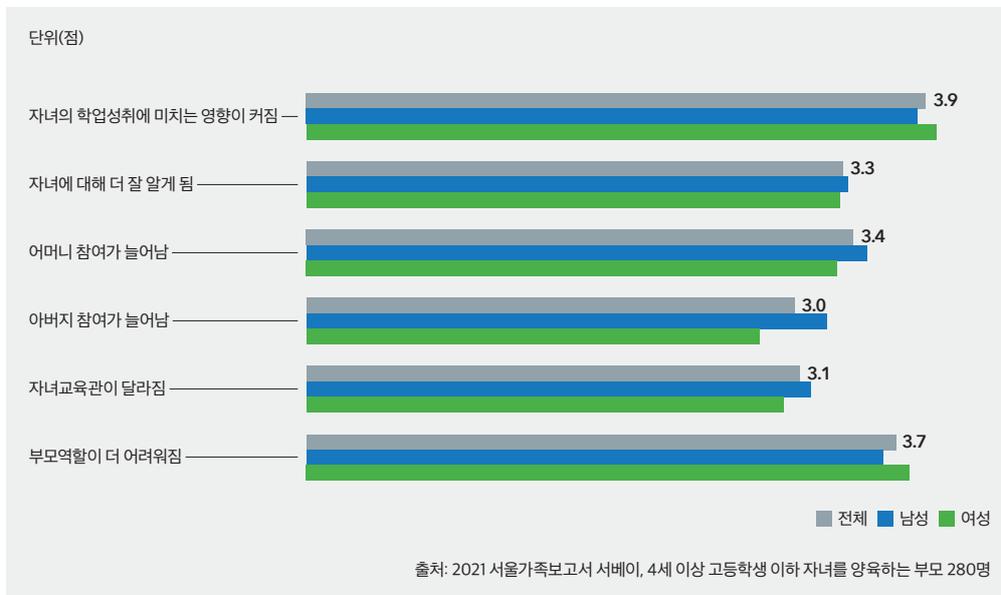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자녀 관련 걱정



부모들은 **코로나19 이후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부모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부모역할의 변화에 대한 문항(1-5점)에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이 커졌다'는 응답이 3.9점으로 가장 높았고, '부모역할이 더 어려워졌다'는 응답도 3.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은 '아버지 참여가 늘어났다'에서 성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부모역할의 중요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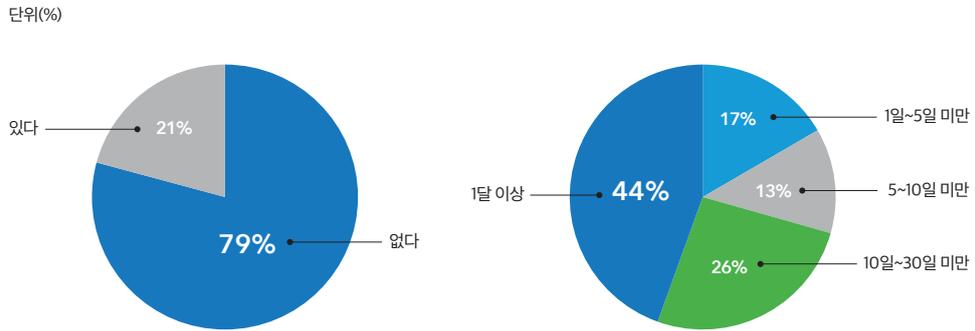


코로나19와 노인돌봄

서울지역 **요양보호사의 21%는 코로나19 시기 돌봄업무를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조사(2020)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중 노인돌봄업무를 중단한 경험이 있는 요양보호사는 21%이며, 이를 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1달 이상이 44%, 10일~30일 미만이 26%이다. 일을 중단한 사유는 '이용자 또는 가족의 요청'이 74.2%, '감염우려 등 본인의 의사로' 17.1%, 기관의 요청으로 중단한 경우는 8.7%이다.

요양보호사의 업무중단 경험과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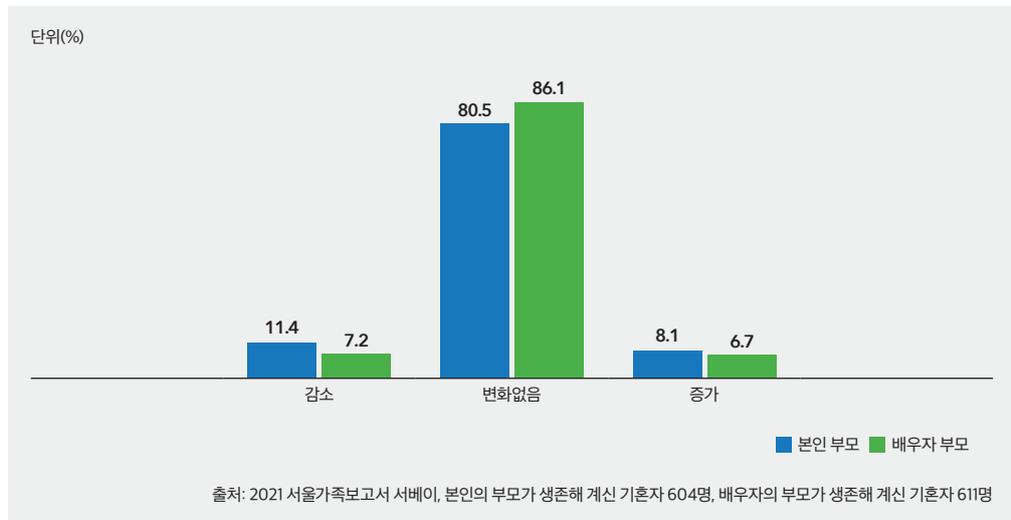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코로나19 시기 병간호 등의 **부모돌봄은 코로나 이전과 비슷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증가한 경우보다 감소한 비율이 조금 높았습니다.**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에 참여한 기혼성인자녀의 코로나19 시기 부모돌봄을 조사한 결과, 본인과 배우자 부모에 대한 병간호 등의 돌봄이 코로나19 이전과 '변화없다'는 응답이 80.5%와 86.1%로 가장 많았다. 부모돌봄의 변화 여부를 분석한 결과, 본인 부모에 대한 돌봄은 증가하였다는 응답(8.1%)보다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11.4%로 더 많았다. 배우자 부모에 대한 돌봄도 증가하였다는 응답(6.7%)보다 감소하였다는 응답(7.2%)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 부모돌봄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본인의 부모가 생존해 계신 기혼자 604명, 배우자의 부모가 생존해 계신 기혼자 611명

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1.

코로나19 아동돌봄 서비스

어린이집의 긴급보육 서비스

- 어린이집 휴원기간 중 가정 돌봄이 극히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긴급보육 제공
- 운영시간: 오전 7:30-오후 7:30

유치원, 초등학교의 긴급돌봄교실 서비스

- 대상: 초등학교 저학년
- 운영시간: 아침돌봄(오전 7시-9시), 원격수업(오전 9시-12시), 오후돌봄(낮 12시-오후 5시), 저녁돌봄(오후 5시-7시)

지역아동센터의 긴급돌봄 서비스

- 대상: 기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운영시간: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 운영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의 긴급돌봄 서비스

- 대상: 초등학교생
- 이용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 대상: 개학개원 연기 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
- 운영시간: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공동육아나눔터

- 대상: 만 2세-12세 이하 자녀에 있는 가정
- 운영시간: 오전 8시-오후 9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대상: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4학년-중등학교 3학년
-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9시

장애학생 대상 월 40시간 특별활동 추가 지원

- 대상: 지자체에 등록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 현재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서비스 내용: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학습도우미(통역, 필기), 등·하교 보조, 병원방문·산책 등 외출시 신체활동 지원

출처: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5521

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2.

코로나19 아동·부모 지원 서비스

초중고교생 대상 '마음친구 꾸러미' 지원 사업
Seoul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마음친구 꾸러미'를 제작·배포하였다. 여러 종류의 심리안정물품으로 구성된 심리정서지원세트를 학교급교, 위(Wee)센터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배포하였다.



출처: 서울시교육청 블로그

서울시교육청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 사업
Seoul
 2021년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사업은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서울 소재 초·중·고 학생 약 56만 명 중 희망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에 편의를 기하였다.



학교 밖 아동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초·중학교 학령기에 속하지만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아동을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 특별돌봄과 비대면학습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제공하였다.

중학생 이하
우리 아이, 돌봄 및 비대면 학습을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이하 **20만원** 중학생 **15만원**

아동 1인당 현금(계좌) 지급

지급 대상·방식

미취학 아동 '14.1월~'20.9월생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지급	초등학생 중학생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개별학교에서 스쿨뱅킹을 통해 지급 ※ 스쿨뱅킹 계좌 미동용자 또는 별도계좌 수령 희망자는 신청 접수 후 지급	학교 밖 아동 '05.1월~ '13.12월생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급 ※ 신청기간: '9.28~'10.16
--	--	--

4차 추경 '아동양육 한시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및 비대면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학교 밖 아동 신청 관련 자세히 보기

출처: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3178>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뉴쌤(newSSEM)
Seoul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학생·학부모를 위해 쌍방향 실시간, 비실시간 화상 수업 및 화상 회의 도구를 제공하고 원격수업을 관리할 수 있는 학습이력관리 시스템(LMS)을 포함한 공공형 플랫폼이다.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참여형 강좌서비스를 제공하며 강의형 콘텐츠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3.

코로나19 노인돌봄 서비스

사회서비스원의 긴급돌봄지원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3월부터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하여 코로나19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있는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재가방문요양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뿐 아니라 서울시 격리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장애인과 함께 입소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발생자
지원내용	일상생활 및 외부 활동 지원, 위생관리 지원 등 돌봄서비스 업무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margin-bottom: 5px;">유형 1 보호자의 부재로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위기 이용자 대상 재가방문 지원 <li style="margin-bottom: 5px;">유형 2 확진자 접촉 등으로 인한 서울시 격리시설 입소자 동반입소 지원 <li style="margin-bottom: 5px;">유형 2-1 코호트격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서울시 격리시설 전원 조치 시 동반입소 지원 <small>※ 코호트격리 지원시설 유형: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small> <li style="margin-bottom: 5px;">유형 3 코호트격리 사회복지시설 내 대체인력 지원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margin-bottom: 5px;">유형 1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seoul.pass.or.kr)상 신청서 작성 후 팩스(02-2038-8749) 또는 이메일 (hj3@seoul.pass.or.kr) 전송 <li style="margin-bottom: 5px;">유형 2-1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 전화(02-2038-8725)로 신청 <li style="margin-bottom: 5px;">유형 2 서울시 격리시설 입소희망자가 거주지 소재 보건소를 방문하여 경제 채취·음성확인 후 입소신청 시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신청 가능 <li style="margin-bottom: 5px;">유형 2-1 거주지 보건소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신청내역 통보 → 서울시 격리시설 입소승인통보 → 서비스원 출동인력 배치 및 입소 지원 <small>※ 노인요양원 및 요양병원이 코호트 격리되어 음성확인 후 격리시설로 이송되는 어르신은 격리시설 이용이 종료된 이후의 관리주체를 지자체에서 명확히 한 이후 위폐도착 사건 조치 필요</small> <li style="margin-bottom: 5px;">유형 3 코호트 격리 기간 중 동반 격리 된 종사자의 확진 등 해당 시설 내 이용자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되어 공적 돌봄 인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 <small>※ 해당 시설은 (노년요양) 코호트 격리 → 돌봄공백 발생 → 직각구 담당부서 신청 → 사회서비스원 신청 → 서비스원 내부당에 승료 일일료 정지율 거쳐 화전(단체별) 후 내부요료, 코호트(중·장기)승료 확인 필수 ※ 코호트격리시설의 경우, ① 확진/비확진자 분리 ② 돌봄가능 병상 확보 ③ 내부방역 완료 등이 조치된 기관만 가능</small>
신청기간	코로나19 긴급돌봄 상황 종료시까지
문의사항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 전화 02-2038-8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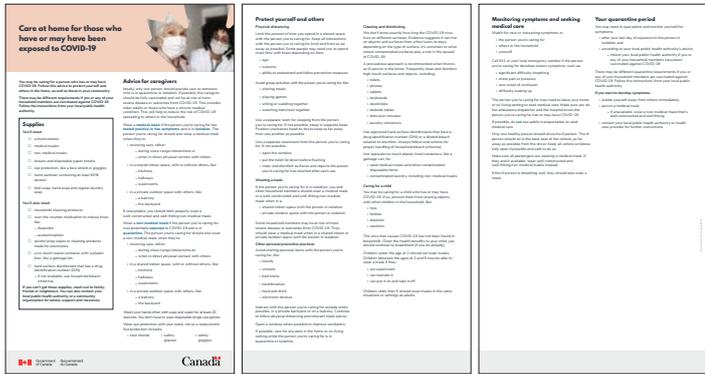
서비스내용 자세히 보기

출처: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6038>

해외 사례



캐나다 |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린이를 집에서 돌보는 방법: 간병인을 위한 권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자녀를 집에서 돌보는데 필요한 정보를 모아 부모와 간병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 뿐 아니라 다른 가족 및 지역사회 주민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수칙을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주요증상, 어린이의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법, 타인에 대한 감염을 예방하는 법,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법, 필요한 물품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23개국어로 번역되어 제공하고 있다.



출처: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publications/diseases-conditions/how-to-care-for-child-with-covid-19-at-home-advice-for-caregivers.html>



미국 | 앨러맨스 버추얼 스쿨(Alamance Virtual School) 온·오프라인 학습 지원
 노스캐롤라이나 앨러맨스-버링턴(Alamance-Burlington School System)은 2020년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크롬북(chromebook)을 제공하고,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한 학생들에게도 학교와 연결이 가능한 핫스팟을 제공하였다. 2020년 한해 3,500개 이상의 핫스팟과 17,000개의 크롬북을 학생들에게 배포하였다. 2021년 오프라인 등교가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및 학부모가 온라인 등교를 원하면 앨러맨스 버추얼 스쿨(Alamance Virtual School)을 통해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기도 한다.

출처: <https://www.elonnewsnetwork.com/article/2021/08/alamance-virtual-school-continues-remote-learning-option-2021-22-abss>



일본 | 영케어러(Young carer) 지원을 위한 복지·돌봄·의료·교육 연계 프로젝트
 영케어러(Young carer)란 성인 보호자가 담당해야 할 가사, 노동, 가족 돌봄 등을 대신하는 어린이를 의미하며, 주로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부모 대신 어린 형제·자매를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을 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케어러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외부에서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나이와 성장수준에 적합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특성이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영케어러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복지 및 교육서비스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출처: <https://www.mhlw.go.jp/content/000780548.pdf>

정책 제안

코로나19 시기 가정 내 아동 및 노인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코로나19 시기 아동에 대한 돌봄은 기존의 보육·교육 인프라를 토대로 확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가정돌봄이 큰 역할을 하였다. 가정돌봄은 식사, 놀이, 여가 등의 일상적 돌봄 뿐 아니라 학습이 동반되면서 가정돌봄을 수행하는 부모, 특히 어머니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었다. 코로나19 이전 시기 가정에서의 학습지원은 학교교육과정까지 깊숙하게 관여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시기 자녀의 학습진도와 학습여부는 가정에서의 학습지원 수준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맞벌이 부모를 둔 아동의 경우 일상적 돌봄 뿐 아니라 학습지원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아동의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학습수준 저하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코로나19 시기 자녀돌봄과 학습지원에 취약한 사례를 파악·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이재림, 김영선, 최정아, 2020).

코로나19 시기 우리나라 노인은 일자리, 여가시설 부재, 돌봄 공백, 우울감 확대 등 여러 문제를 겪고 있다(정재환, 2020). 노인은 코로나19에 취약하기 때문에 함께 살지 않는 가족 및 지인과의 교류가 조심스러워지고 가족 외적 돌봄도 중단되면서 노인돌봄은 노인 개인 또는 가족의 부담이 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거주시설의 경우 방역 인력이 지원되는 등 노인돌봄이 가능하지만 노인 혼자 거주하거나 가족의 돌봄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경우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감 등이 동반되는 경우 즉각적인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나 코로나19로 현장파악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 있어 긴급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인 개인이나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 처한 어려움이나 실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세우고 전문성을 기초로 사례를 분석하여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처: 이재림, 김영선, 최정아(2020). 코로나19 시기 학부모의 경험: 초등학교 4학년 어머니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출처: 정재환(2020) 노인들의 코로나19 감염 현황과 생활 변화에 따른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761호. 국회입법조사처.



서울가족의 생활 토대

1. 가정경제, 생활의 기본
2. 일과 쉼, 생활의 균형
3. 주거환경, 생활의 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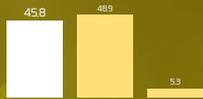


카드뉴스 서울가족의 생활 토대

코로나19 이후,
서울시민의 가계경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코로나19 이후,
서울시민 2명 중 1명은
가계 경제가 나빠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가계 경제상태 변화



서울시민 2명 중 1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경제,
서울시(복지포털, 일자리포털)가 함
께하고 있어요!



1.

가정경제, 생활의 기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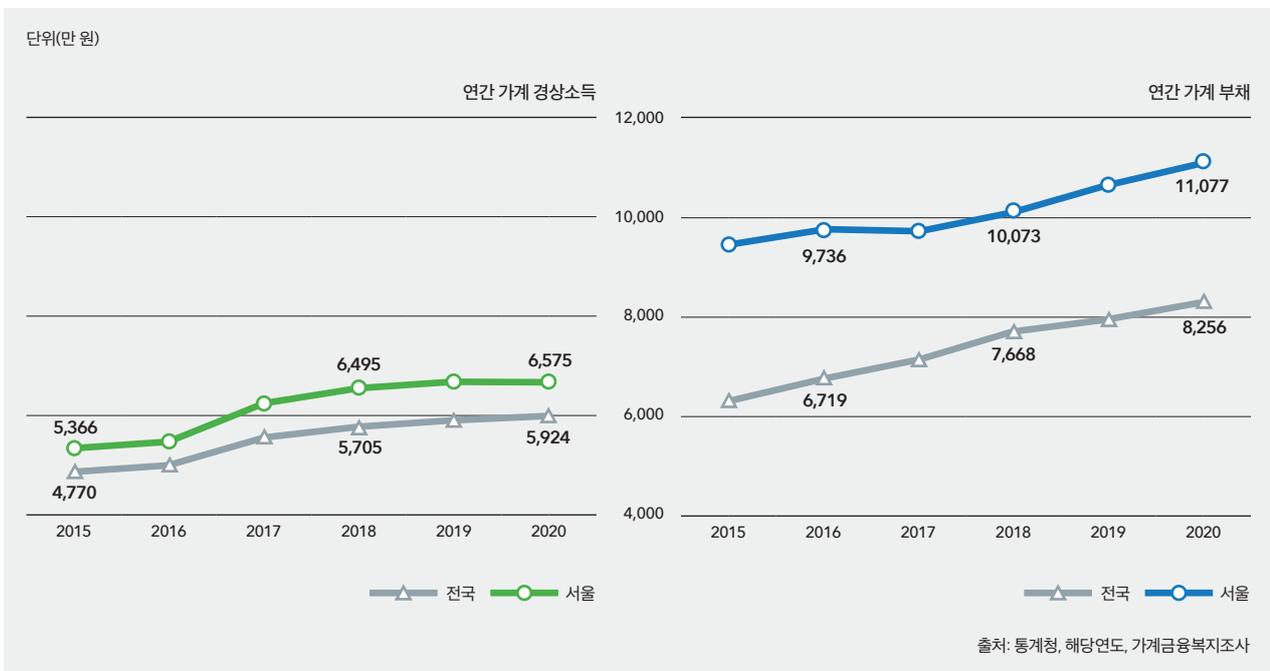


연간 가계 경상소득 및 부채

서울시 연간 가계 경상소득은 2020년 기준 평균 6,575만 원, 가계 부채는 평균 11,077만 원입니다.

서울시 연간 가계 경상소득(연평균 가계소득)은 2020년 기준 평균 6,575만 원으로, 이는 전국 평균 5,924만 원 보다 높다. 서울시 연간 가계 경상소득은 꾸준히 상승해 왔으나 2019년 이후 소폭 하락하였다. 서울시의 연간 가계 부채는 2020년 기준 11,077만 원으로 이는 전국 평균 8,256만 원보다 높다. 연도별로 봤을 때 서울시 연간 가계 부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해당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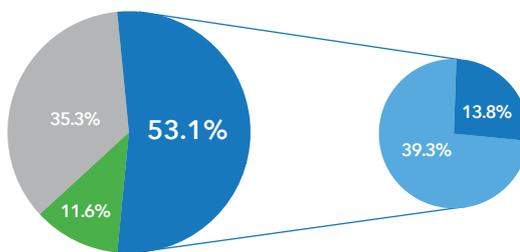
전국-서울 연간 가계 경상소득 및 부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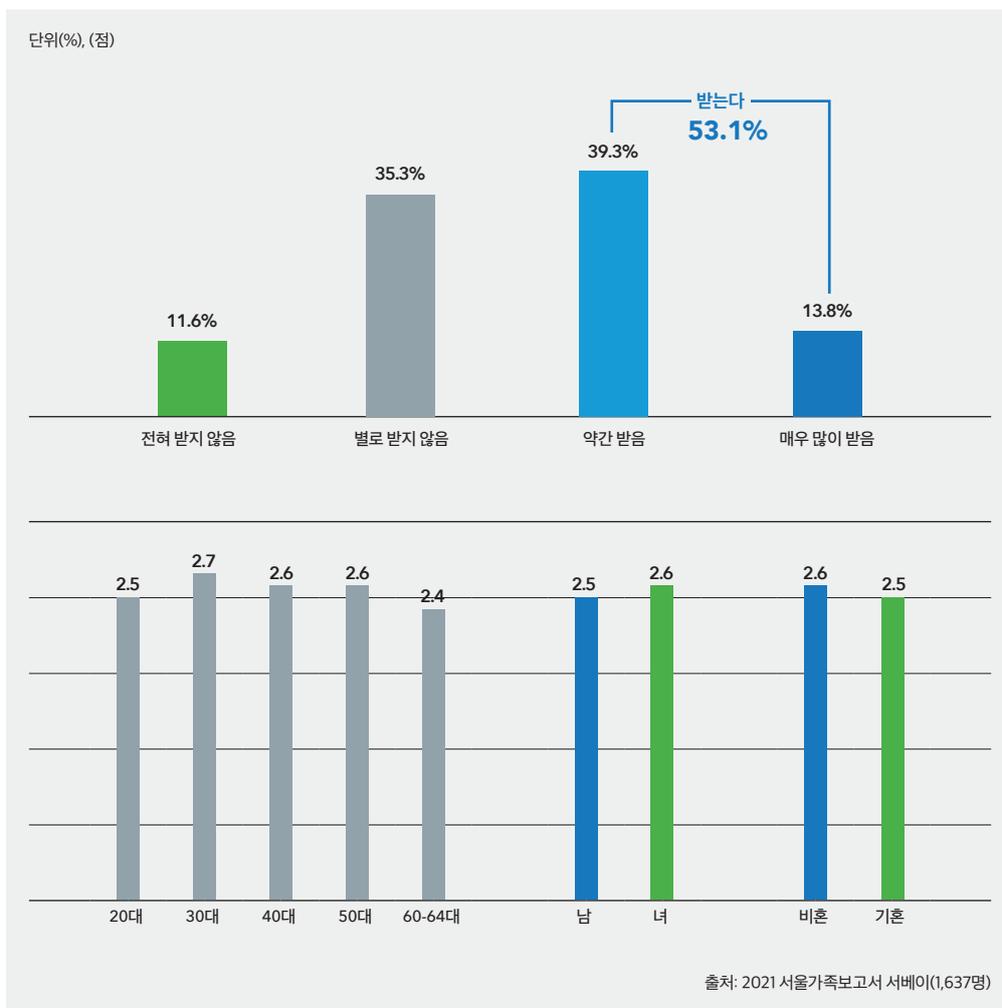
경제적 스트레스 2021 Seoul Family Survey

서울시민 2명 중 1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서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3.1%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수는 평균 2.6점(범위: 1-4점)으로 남성(2.5점)보다 높았다. 연령대로 보면, 30대(2.7점)가 다른 연령대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비혼자(2.6점)가 기혼자(2.5점)보다 경제적 스트레스 지수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성별, 연령대별, 혼인여부별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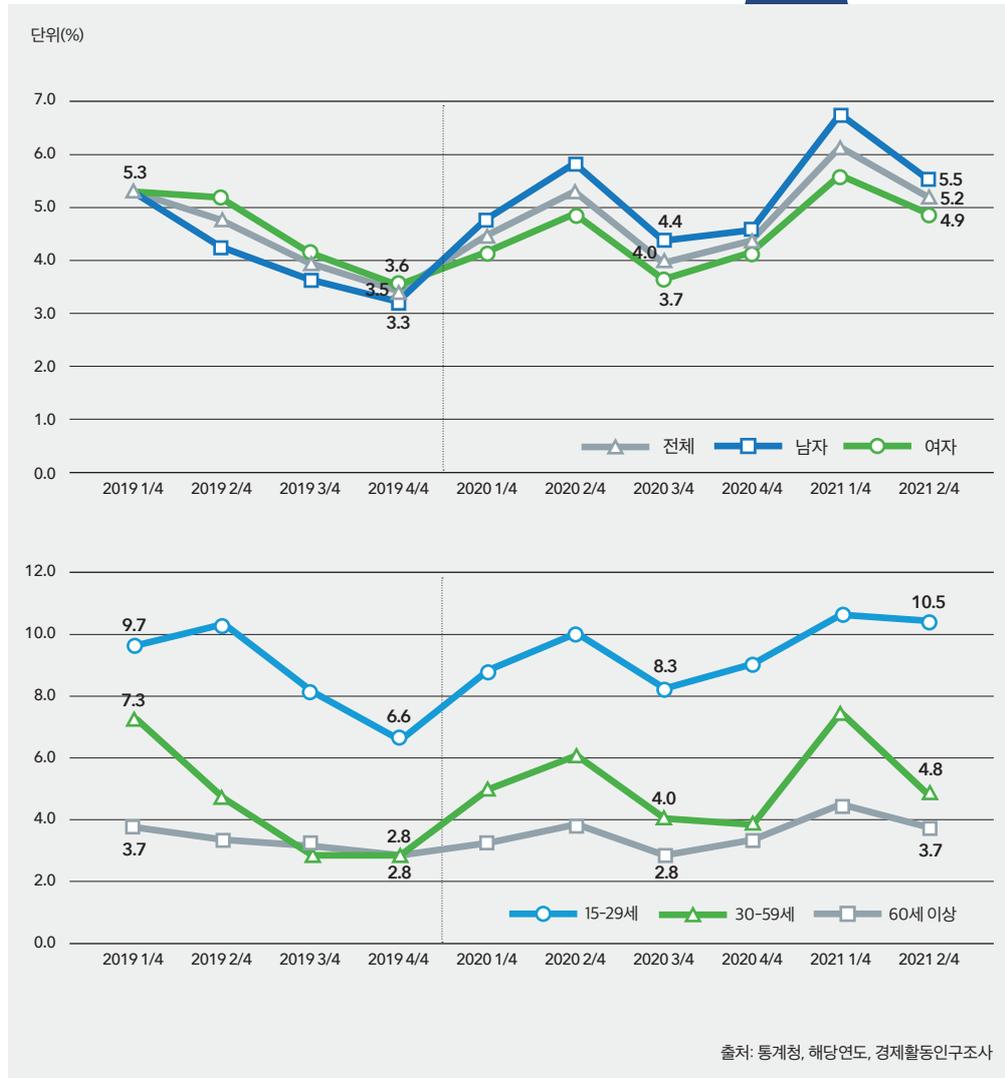
실업률

서울시 실업률은 **2021년 2/4분기 기준 5.2%**이고,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높습니다.**

서울시 실업률은 2021년 2/4분기 기준 5.2%이고, 여성의 실업률(5.5%)이 남성의 실업률(4.9%)보다 높다. 연령대 별로는 15-29세의 실업률이 10.5%로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히 높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실업률은 2019년 4/4분기를 기점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징적인 것은 여성의 실업률이 2019년까지는 남성의 실업률보다 낮았으나 2020년부터 더 높게 나타난다(통계청, 해당연도).



성별, 연령대별 서울시 실업률 현황



코로나19 이후 가계경제 변화 2021 Seoul Family Survey

서울시민 2명 중 1명은 코로나19 이후 가계 경제상태가 전반적으로 **나빠졌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코로나19 이후 귀댁의 전반적인 경제상태는 어떻게 변화했습니까?’라는 질문(범위: 1-5 점)에 ‘나빠졌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45.8%, ‘변동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48.9%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에 따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경제상태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에 있어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7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62.8%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 코로나19 이후 가계 경제상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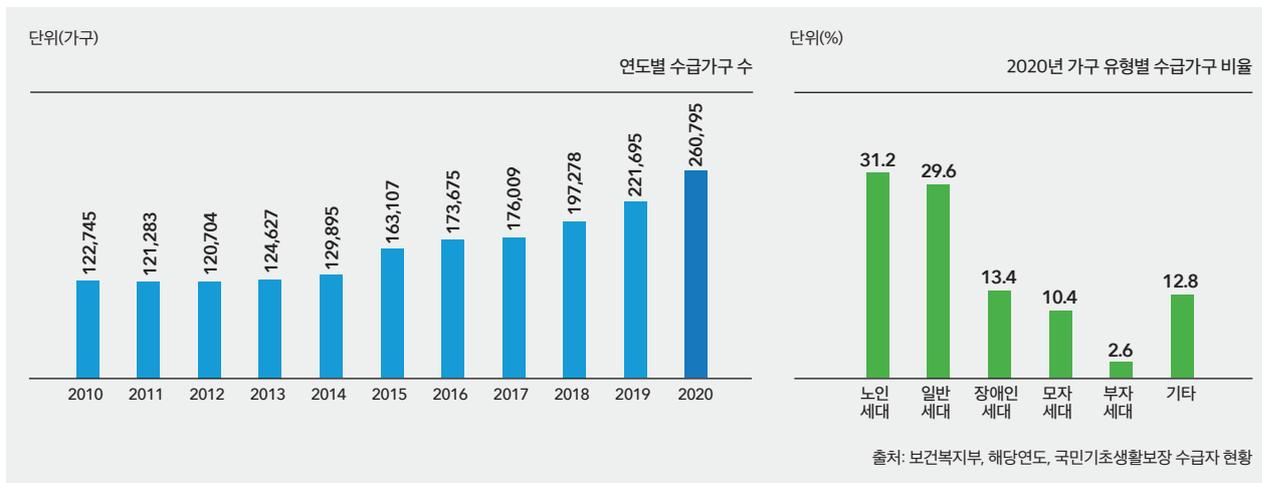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1,637명), 현재 직장이 있는 응답자 1,331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2020년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노인세대 가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서울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수는 2020년 기준 260,795가구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수급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정책적 결과로 볼 수 있다. 가구 유형별 수급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노인세대 가구가 31.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일반세대 가구(29.6%) 순으로 나타난다(보건복지부, 해당연도).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현황



출처: 보건복지부, 해당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1.

저소득가족 대상 경제적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Seoul*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및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제공된다. 본인이나 친족 혹은 기타 관계인이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Seoul*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법정급여 외 서울시 자체의 부가급여를 지원한다. 분기별로 교통비가 제공되고, 2월, 9월에 명절 위문품비, 11월에 월동대책비가 제공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Seoul*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기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등을 제공한다. 생계비, 주거비 및 의료비, 초·중고 자녀 교육비, 기타비용(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이 제공된다.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기금 *Seoul*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생활 유지가 어렵지만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주거비, 기타 긴급비용 등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역자활센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현재 서울에는 광역센터와 30곳의 지역센터가 운영 중이다.

2.

다양한 가족 대상 경제적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통비 등의 복지급여를 지원한다.



다자녀 가정 지원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게 다둥이행복카드와 국민연금출산크레딧이 제공되고, 세 자녀 이상인 가정은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영유아 의료비,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사회정착, 그리고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3.

일자리 지원



서울시 일자리 포털 Seoul

서울시 일자리 포털은 다양한 연령대(청년, 여성, 중장년, 어르신, 노숙인, 장애인)의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및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 '창동 아우르네' Seoul NEW

서울시 '창동 아우르네'는 창업을 꿈꾸는 청년부터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공유형 일자리 복합지원시설이다. 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서울창업허브 창동',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청년 창업가와 예술가를 위한 공공주택 '창동 아우르네빌리지', 시민단체 활동공간인 '서울시 동북권NPO지원센터' 등의 4개 시설이 입주해있다.



서울시 50+보람일자리 Seoul

만 50~67세 서울시 거주자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커리어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참여자에게는 활동비와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 어르신취업지원센터 Seoul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를 맞이하여 노년설계, 은퇴 이후의 사회참여, 취업 및 전문 직무 교육 등 시니어세대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4.

여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취업준비 청년층 여성과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모든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창업 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 예방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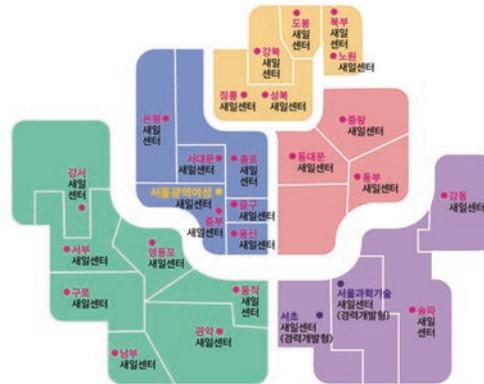


사진 출처: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여성창업보육센터

여성 (예비)창업자는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창업공간을 제공받고, 홍보 및 행정지원, 컨설팅, 멘토링, 교육 서비스 등을 통해 사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서울우먼업 Seoul

서울우먼업(Seoul Woman Up)은 서울시 18개 여성인력개발센터, 5개 여성발전센터,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등 24개의 여성인력개발 기관 네트워크를 통칭하는 서울시 여성일자리 통합정보망 포털사이트이다.



1.

일자리 보호 정책



독일 |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Kurzarbeit)

독일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해고 대신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정부가 단축된 시간에 대한 임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코로나19 시기 독일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를 확대 적용한 덕분에 실업률을 안정화하고 전문인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출처: 김영민 (2020).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으로 일자리 지킬 것. 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 Gasser, J., Tackner, N., & Kraemer, K. (2020). 코로나19 위기대응: 독일과 오스트리아 사례.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10, 41-51.



덴마크 | 일자리 유지 계획(midlertidig loenkompensation)

덴마크는 코로나19에 따른 대량 실업 위기에 맞서 일자리 유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일자리 유지 계획은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직 기간을 주는 경우 정부가 일자리 유지 지원금(휴직 기간동안 노동자 임금의 75%까지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출처: 김현경, 김기태 (2020). 유연안정성 모델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 노동정책: 덴마크와 네덜란드. 국제사회보장리뷰, 13, 36-46.

2.

근로 지원 정책



미국 | 미국 연방 저소득 중고령자 직업훈련 프로그램(SCSEP: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미국 연방 정부의 저소득 중고령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저소득 중고령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지역사회의 학교, 병원, 탁아소, 노인센터 등 지역사회의 비영리 및 공공시설에서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업무 경험 및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주당 평균 20시간을 일하며 최저 시급을 받게 된다. 훈련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SCSEP 담당자와 함께 구직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일부 참가자들은 SCSEP 프로그램과 연계된 회사 및 기관들에서 고용을 전제로 약 12주간 수련 기간을 갖고, 수련을 마친 뒤에 정식 채용이 되는 절차를 갖는다. 참가자는 취업에 성공한 후에도 약 1년 동안 SCSEP 담당자를 통해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출처: 여혜수 (2021). 미국의 중고령자 근로 지원(Employment support) 프로그램: 미국 연방 저소득 중고령자 직업훈련 프로그램(SCSEP: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16, 113-119. <https://www.dol.gov/agencies/eta/seniors>

2

일과 쉬, 생활의 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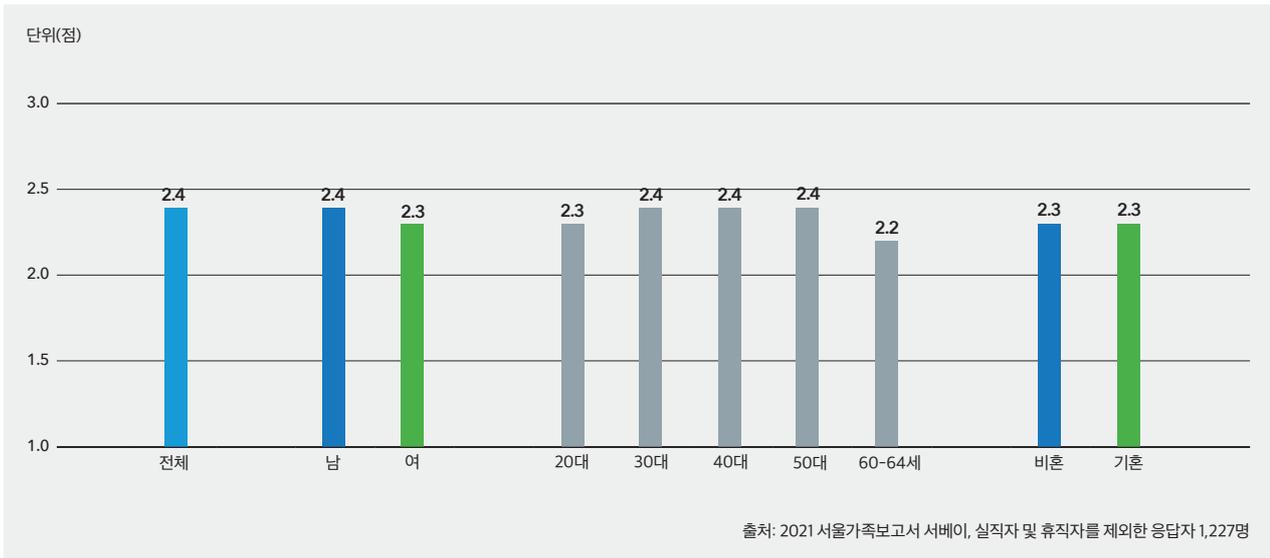


일·가족 균형의 어려움 2021 Seoul Family Survey

서울시민의 일·가족 균형의 어려움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30, 40, 50대가 높았습니다.**

서울가족의 '일·가족 균형의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은 2.4점(범위: 1-5점)으로 보통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족 균형의 어려움에서 성별, 혼인여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령대에서는 30, 40대, 5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일·가족 균형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대별, 혼인여부별 일·가족 균형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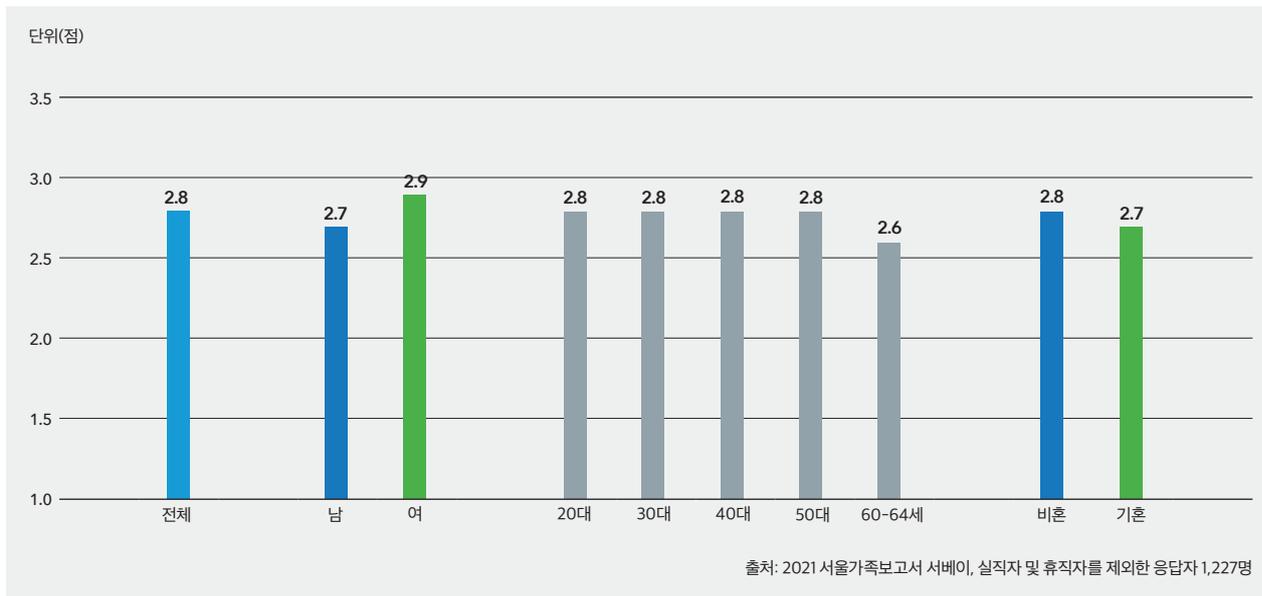


일·여가 균형의 어려움 2021 Seoul Family Survey

서울시민의 일·여가 균형의 어려움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습니다.

서울가족의 '일·여가 균형의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평균은 2.8점(범위: 1-5점)으로 일·여가 균형의 어려움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여가 균형의 어려움에 있어 연령대별, 혼인여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별에서는 여성(2.9점)이 남성(2.7점)보다 일과 여가생활 간의 균형을 이루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대별, 혼인여부별 일·여가 균형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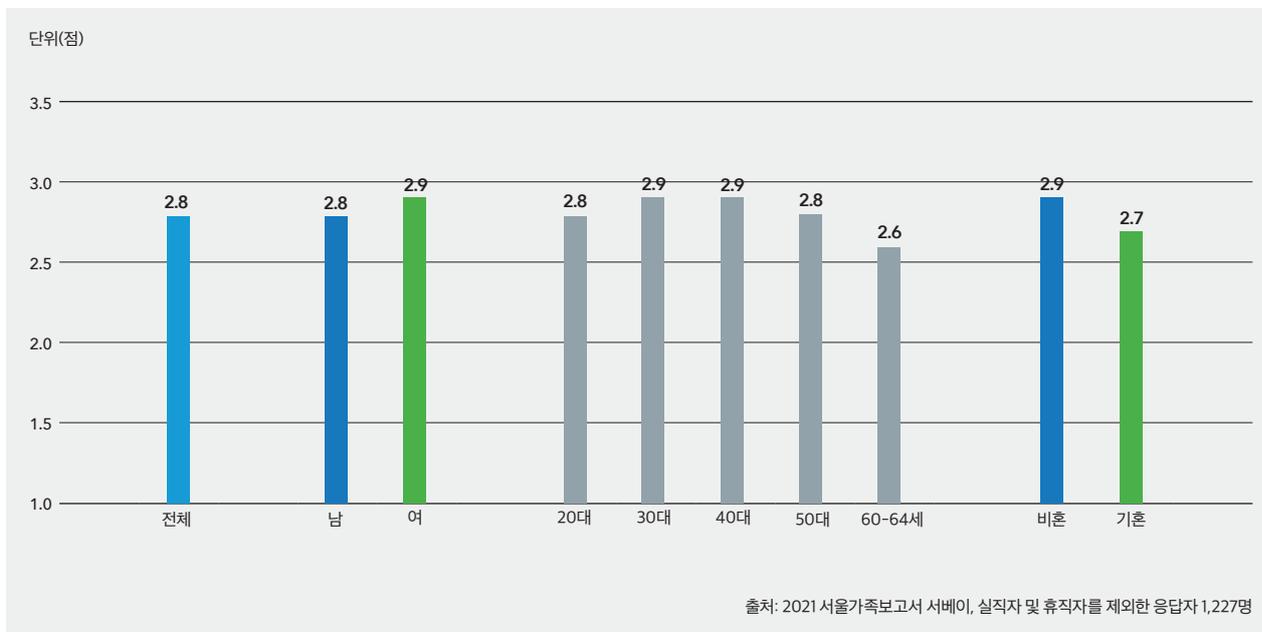


일·성장 균형의 어려움 2021 Seoul Family Survey

서울시민의 일·성장 균형의 어려움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습니다.

‘일 때문에 자기계발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와 같은 여러 질문을 토대로 서울가족의 ‘일·성장 균형의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평균은 2.8점(범위: 1-5점)으로 일·성장 균형의 어려움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성장 균형의 어려움에 있어 연령대별, 혼인여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별에서는 여성(2.9점)이 남성(2.8점)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대별, 혼인여부별 일·성장 균형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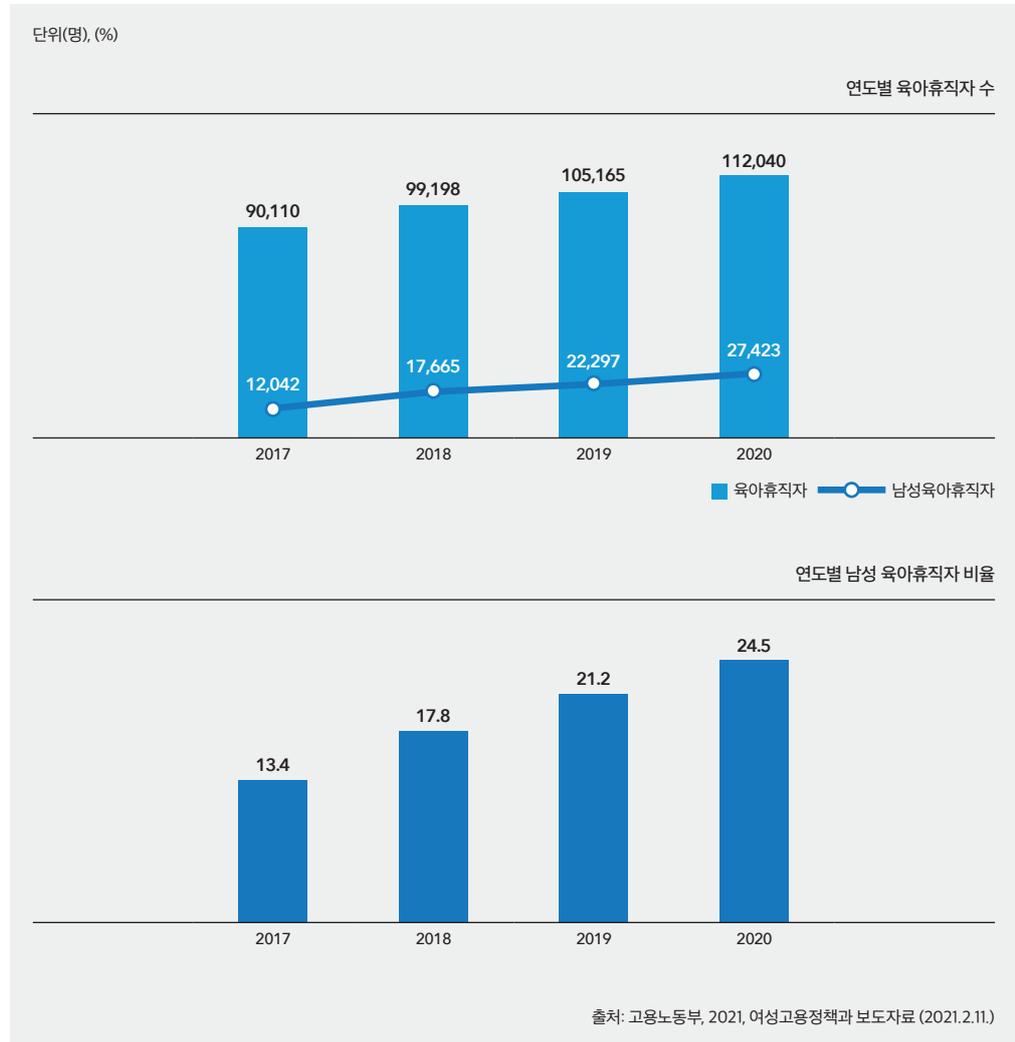


육아휴직자

2020년 기준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전국 육아휴직자는 112,040명이고, 이 중 24.5%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7년 13.4%에서 2020년 24.5%로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용노동부, 2021). 이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시행 등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가족친화지원사업' 등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육아휴직자 수 및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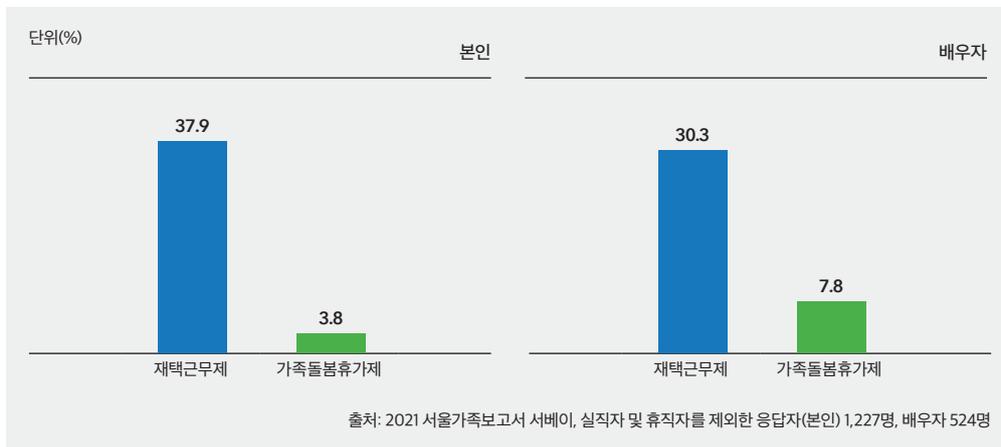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가족친화제도 이용 2021 Seoul Family Survey

서울시민 10명 중 4명은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제'와 '가족돌봄휴가제'의 이용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응답자 중 37.9%, 응답자의 배우자 중 30.3%가 '재택근무제'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휴가제'의 경우 응답자의 3.8%, 배우자의 7.8%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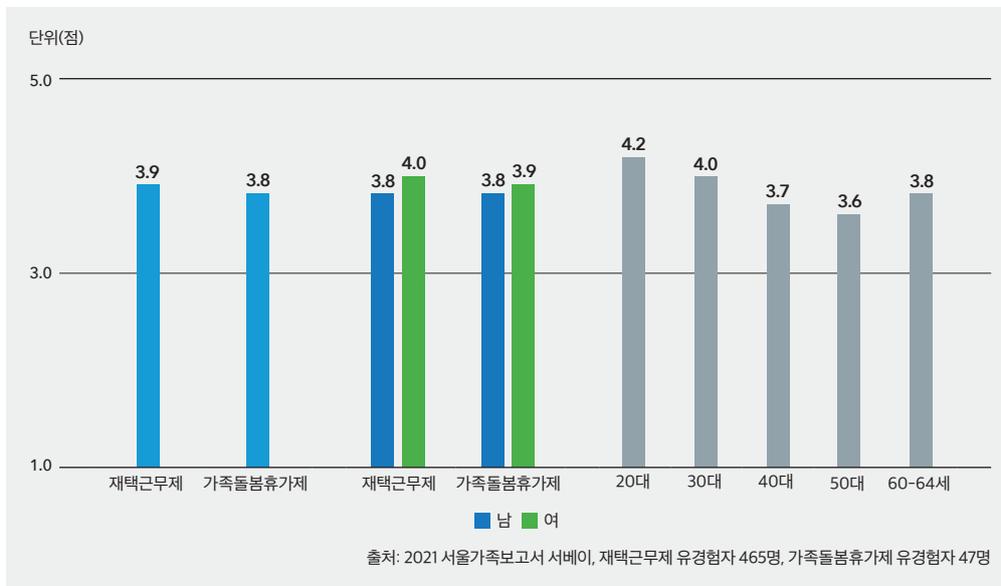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제 및 가족돌봄휴가제 이용 경험



재택근무제 및 가족돌봄휴가제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습니다.

'재택근무제'와 '가족돌봄휴가제' 이용자의 만족도(범위: 1-5점)를 살펴본 결과, '재택근무제'는 평균 3.9점, '가족돌봄휴가제'는 3.8점으로 나타나 두 제도 모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성별에 따르면 두 제도 모두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재택근무제의 경우 20대의 만족도(4.2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 연령대별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제 및 가족돌봄휴가제 이용 경험 만족도



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1.

일·생활 균형 가족지원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Seoul

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의 직장 내 어려움, 가족관계 및 돌봄 문제, 개인 스트레스 등 다양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원스톱 종합상담(전화, 온라인, 이메일, 찾아가는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스페이스 살림 Seoul NEW

‘스페이스 살림’은 여성의 일·가족·생활 균형을 위한 공간 제공을 목표로 창업, 돌봄, 배움, 휴식을 하나의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성 일자리 복합문화공간이다. 교육과 창업에 필요한 공간을 비롯하여 자녀 돌봄을 위한 시설 및 공유공간 등이 제공된다.



아빠넷

‘아빠넷’은 아빠 맞춤형 육아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남성 육아후직자들의 심리적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 Seoul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한부모가족의 시간 빈곤을 해소하여 일·생활의 균형을 찾고, 자녀와의 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청소, 세탁, 설거지)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 Seoul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는 성평등한 관점에서 일·생활균형을 위한 연구, 교육, 컨설팅, 실태조사, 그리고 문화조성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2.

일·생활 균형 휴가 및 휴직 제도



출산전후 휴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유급 휴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한다.

유산·사산 휴가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최대 90일까지의 유급 휴가를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 휴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최대 1년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 통상임금의 50~80%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4~6개월은 80%, 7개월 이후 종료시까지 5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엄마(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족돌봄휴직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다. 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이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 및 긴급가족돌봄비용 지원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할 경우 무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이며,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 원, 최대 10일간 긴급가족돌봄비용이 지원된다.



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3.

일·생활 균형 근로시간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단축 기간 중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한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건강을 돌보거나 55세 이상으로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단축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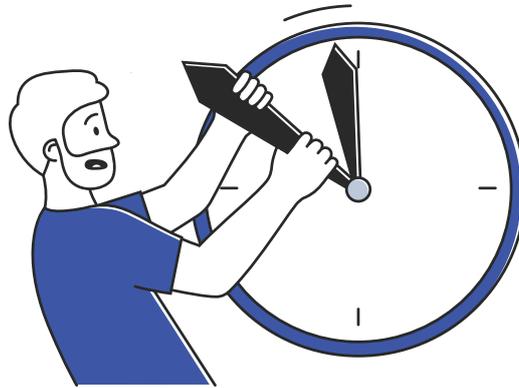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자신의 여건을 고려하여 근무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유연근무제에는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가 포함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가 전일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일·생활 균형, 휴직 후 업무복귀 완충 기간, 고령자의 점진적 퇴직준비 등을 위해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받는 제도이다.



4.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



서울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 Seoul

서울시는 2009년부터 매년 일·생활균형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기업은 ①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여성고용 우수기업 특별자금 지원자격 제공 ②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산점 부여 ③ 서울시 표창 ④ 우수사례 홍보물 제작 및 배포 ⑤ 서울가족사랑기업 BI 사용 가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제

여성가족부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대출 시 금리 우대, 각종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책 제안

재택근무: 역할 경계의 모호함과 이중고 탈피를 위한 대안 마련 필요

일·생활 균형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유연근무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활발히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재택근무의 경우 주거지에서 근무하는 동시에 가사노동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생활 균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실제 상황에서는 업무 집중도 하락, 일과 돌봄의 역할 경계 불분명과 이중 역할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고단함, 고용 불안감 등 의도하지 않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이유경, 이현주, 2020; 정희정, 2019). 즉, 아직은 과도기 단계인 재택근무가 지닌 긍정적 측면 너머의 부작용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포스트코로나’,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노동방식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검토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출처]

이유경, 이현주 (2020). 코로나-19시대 재택근무로 전환된 부부의 갈등경험과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아내의 경험을 중심으로. 가족문화, 33(1), 70-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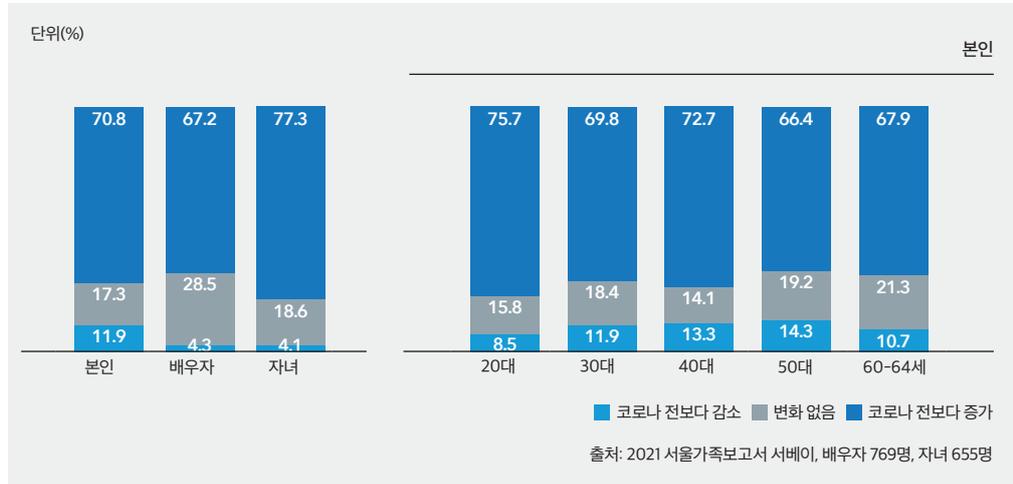
정희정 (2019). 일·생활 균형 및 성평등 현안과 유연근로제의 한계. 국제사회보장리뷰, 8, 49-60.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 2021 Seoul Family Survey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본인의 70.8%는 ‘코로나 전보다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배우자의 경우 67.2%가, 자녀의 경우 77.3%가 집에 있는 시간이 ‘코로나 전보다 증가’하였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코로나 전보다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20대의 비율(75.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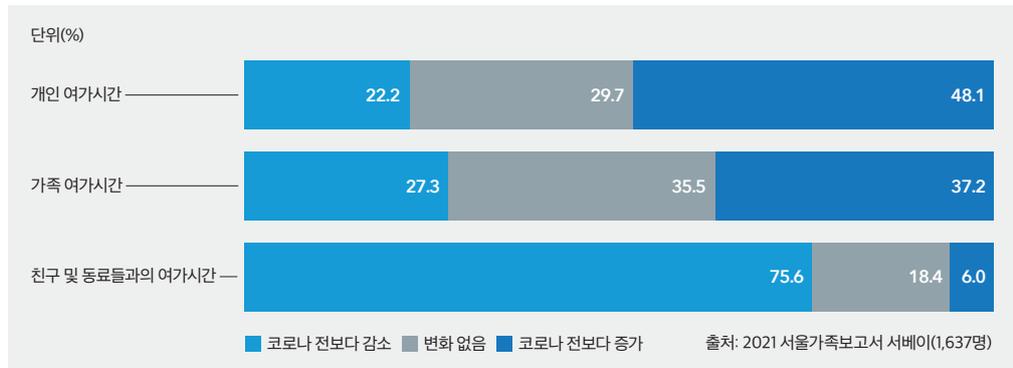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여가시간 2021 Seoul Family Survey

코로나19 이후 **개인 및 가족 여가시간은 증가**한 반면, **친구·동료들과의 여가시간은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여가시간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서 ‘개인 여가시간’의 경우 48.1%가, ‘가족 여가시간’의 경우 37.2%가 ‘코로나 전보다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친구 및 동료들과의 여가시간’은 75.6%가 ‘코로나 전보다 감소’하였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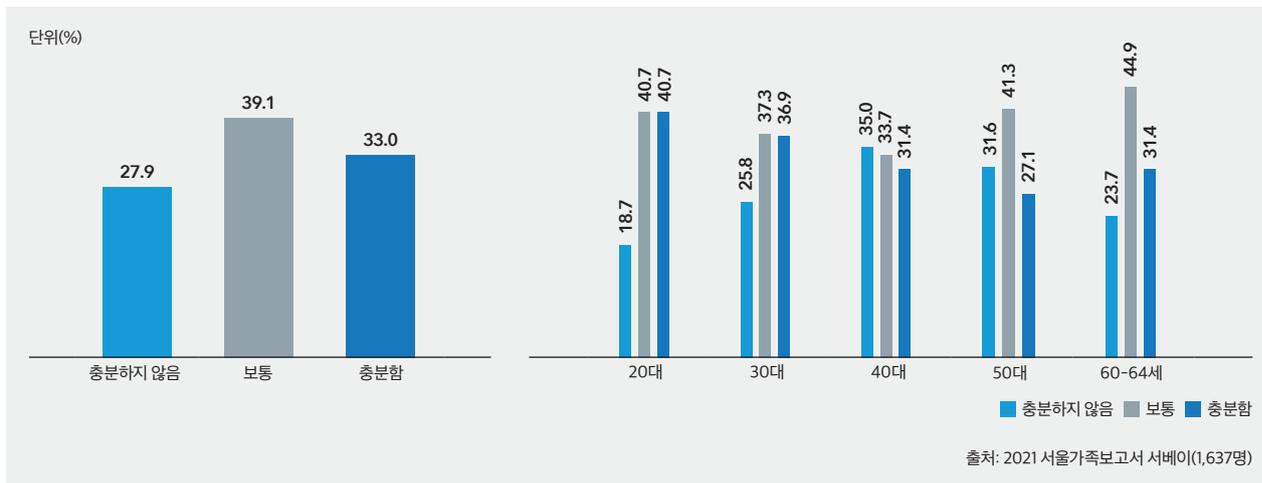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개인·가족·친구 및 동료들과 보내는 여가시간의 변화



서울시민 10명 중 3명은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개월간 귀택에서 가족이 함께한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 응답자 중 27.9%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가족과 함께한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에 있어 40대(35.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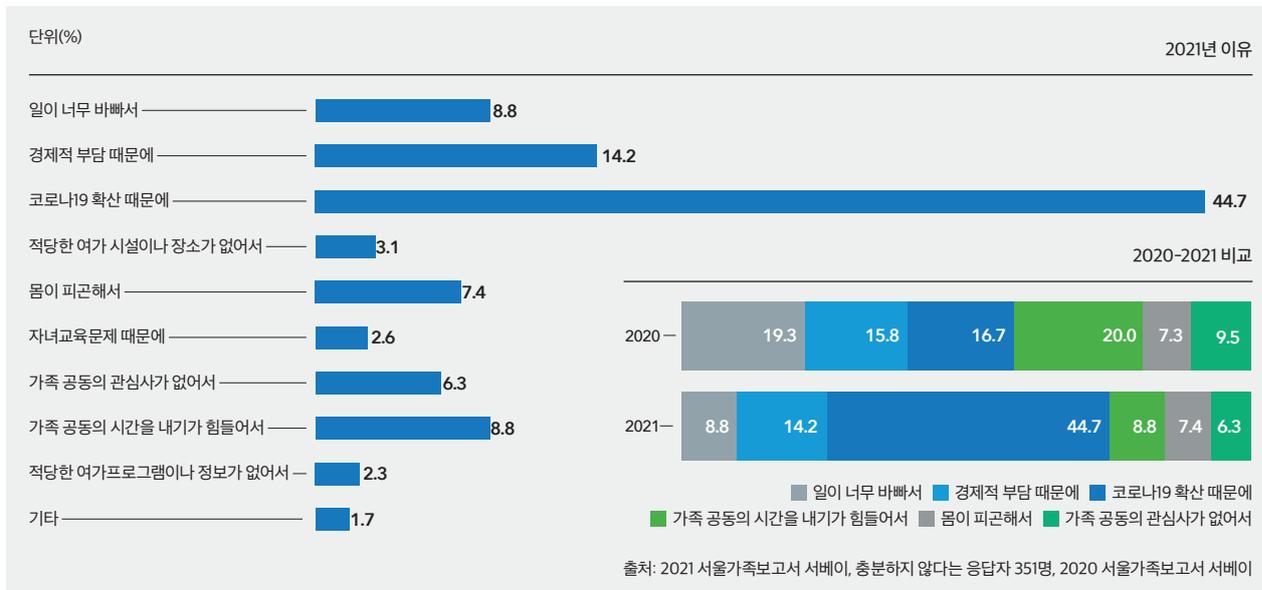
연령대별 최근 3개월간 가족과 함께한 여가시간 충분성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0년 16.7%에서 2021년 44.7%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자 가운데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했을 때 ‘코로나19 확산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44.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 부담’(14.2%), ‘일이 너무 바빠서’(8.8%), ‘가족 공동의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8.8%)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결과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16.7%에 그친 반면 2021년에는 44.7%로 크게 상승하였다.

가족과 함께한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



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1.

가족 여가생활 사회적 분위기 조성

가족사랑의 날

여성가족부는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하고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과 협력하여 근로자들의 정서퇴근 및 가족과 함께 저녁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는 다양한 가족사랑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

가족사랑의 날 중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되어, 전국 주요 영화관, 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야구장 등을 할인된 가격이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여가친화인증사업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여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운영하는 기업(관)을 선정하여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 선정된 기업(관)은 포상과 함께 홍보 및 여가프로그램 등을 지원받는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mcstkorea/222301978667>)

2.

문화생활 맞춤정보

서울시 문화생활 정보 포털 Seoul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 축제,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문화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은 다음과 같다.



3.

문화활동 공간지원

생활문화 거점공간 「서울생활문화센터」 Seoul

서울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인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공간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문화센터 4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악기·음악 중심 '낙원'	공연·청년 중심 '서교'	생활오케스트라 중심 '체부'	미술·전시 중심 '신도림'

출처: 2021 서울시 문화본부 주요업무보고

산악문화체험센터 Seoul NEW

2021년 개관한 '산악문화체험센터'는 산악 관련 전시, 교육 및 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산악문화융합 공간이다.



출처: 2021 서울시 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

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4.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



문화누리카드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공연·전시·영화 관람 및 음반·서적 구입이 가능하고 국내 여행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가 발급된다.



서울시민카드 Seoul

서울시민카드는 서울도서관, 세종문화회관, 녹색장난감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센터 등의 다양한 공공시설 이용시 필요한 회원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모바일 카드이다. 공연 및 프로그램 예약이나 도서관 대출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다양한 쿠폰정보가 안내된다.



5.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여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문화행사 전환 [2021 인터넷으로 즐기는 강남구다문화축제]

Seoul

강남구가족센터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과 외부활동이 제한되는 시기에 가족이 함께 온라인으로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코로나 우울을 극복할 수 있는 '2021 인터넷으로 즐기는 강남구다문화축제'를 진행하였다.



문화포털: 집콕문화생활

문화포털은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예술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도서관

스마트도서관은 시간적 제약 없이 24시간 비대면 도서대출·반납이 가능한 '무인도서 예약·대출·반납 시스템'이다. 지하철 역사 등에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출처: 서울시, 2021,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2306>

정원가꾸기(Gardening): 코로나19 시대 주목받는 취미 활동

코로나19는 일상생활은 물론 여가생활과 취미생활에도 변화를 일으켰다. 각종 규제와 격리조치에 따른 활동 제한으로 많은 취미활동이 실내 활동으로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작은 식물 화분을 가꾸는 것부터 집 앞 정원·텃밭 가꾸기 등 '정원가꾸기'가 코로나19 시대 건강하고 보람 있는 취미 활동으로 또는 생존·자급자족을 목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아일랜드



사진 출처: <https://www.irishtimes.com/life-and-style/health-family/how-new-hobbies-help-ease-the-stress-of-difficult-times-1.4315790>



미국



사진 출처: <https://crosscut.com/environment/2020/03/wwii-era-victory-gardens-make-comeback-amid-coronavirus>



브라질



사진 출처: <https://www.scielo.br/j/oh/a/Hk3DtT4r7TdmM87BK73pVnm/?lang=en#ModalFig3>

3

주거환경, 생활의 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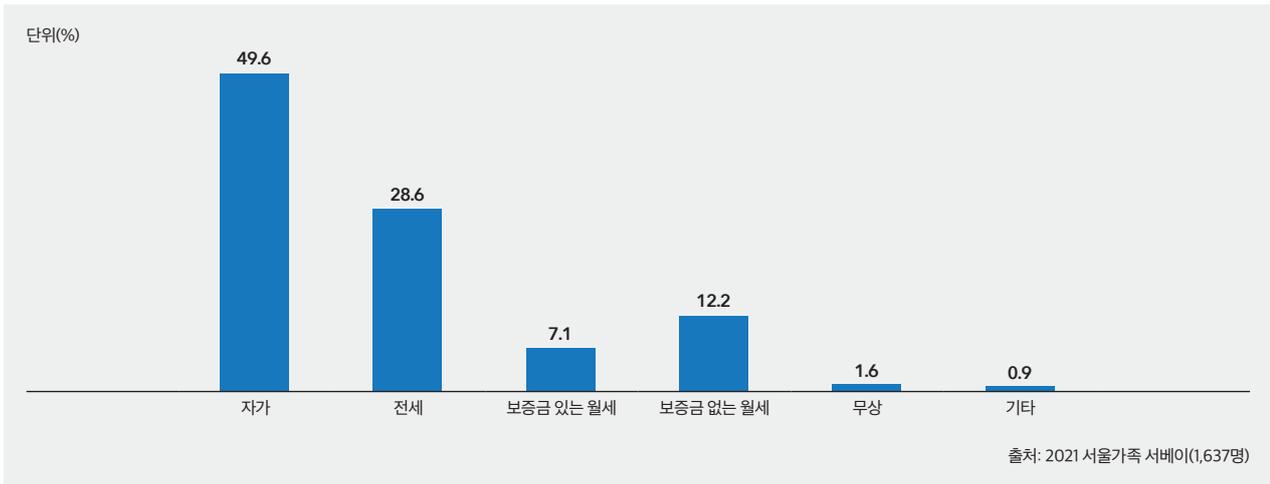


주택 점유 형태 2021 Seoul Family Survey

2021년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응답자 2명 중
1명은 자기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응답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점유 형태는 ‘자가’ 49.6%, ‘전세’ 28.6%, ‘보증금 없는 월세’ 12.2%, ‘보증금 있는 월세’ 7.1%, ‘무상’ 1.6%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족 주택 점유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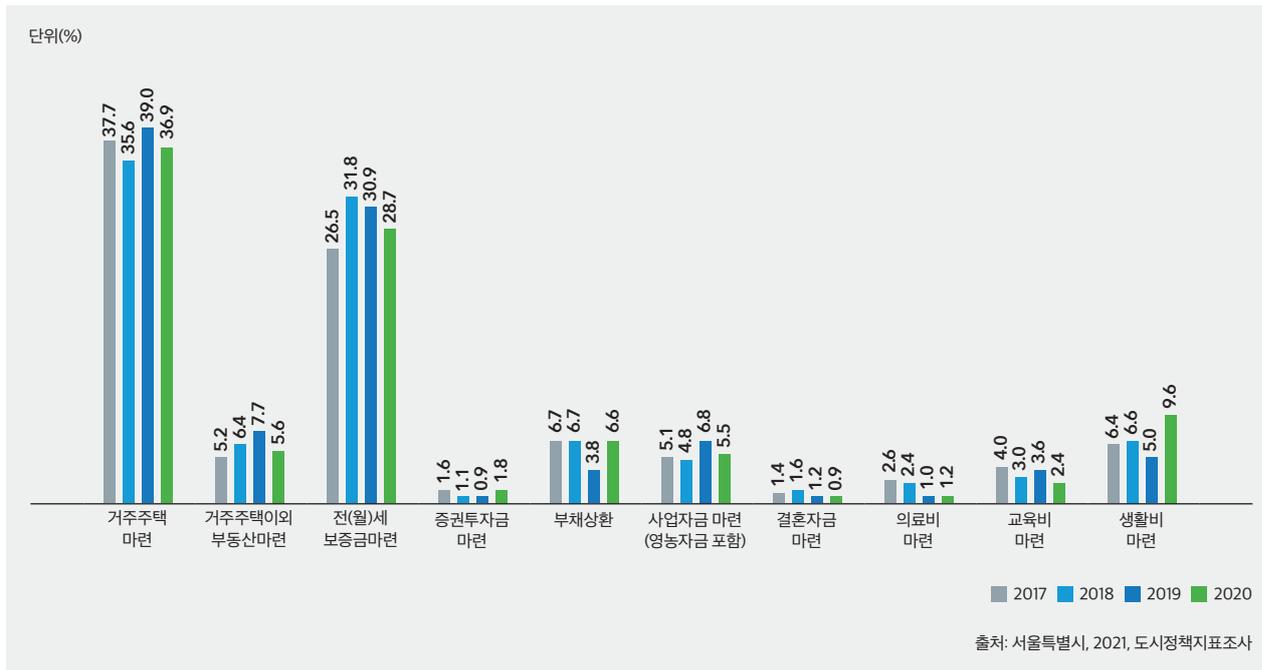


가계 부채 이유: 주택 마련 및 보증금

2020년 기준 서울가구의 주된 부채 이유는
‘거주주택 마련’과 ‘전(월)세 보증금 마련’입니다.

2021년 도시정책지표조사(서울특별시, 2021)에 따르면, 서울가구의 주된 부채 이유는 2020년 기준 ‘거주 주택마련’이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전(월)세 보증금 마련’이 28.7%로 나타난다. 연도별로 살펴봐도 부채의 주된 이유에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주택 관련 비용 마련이 서울시민 부채의 주요 이유인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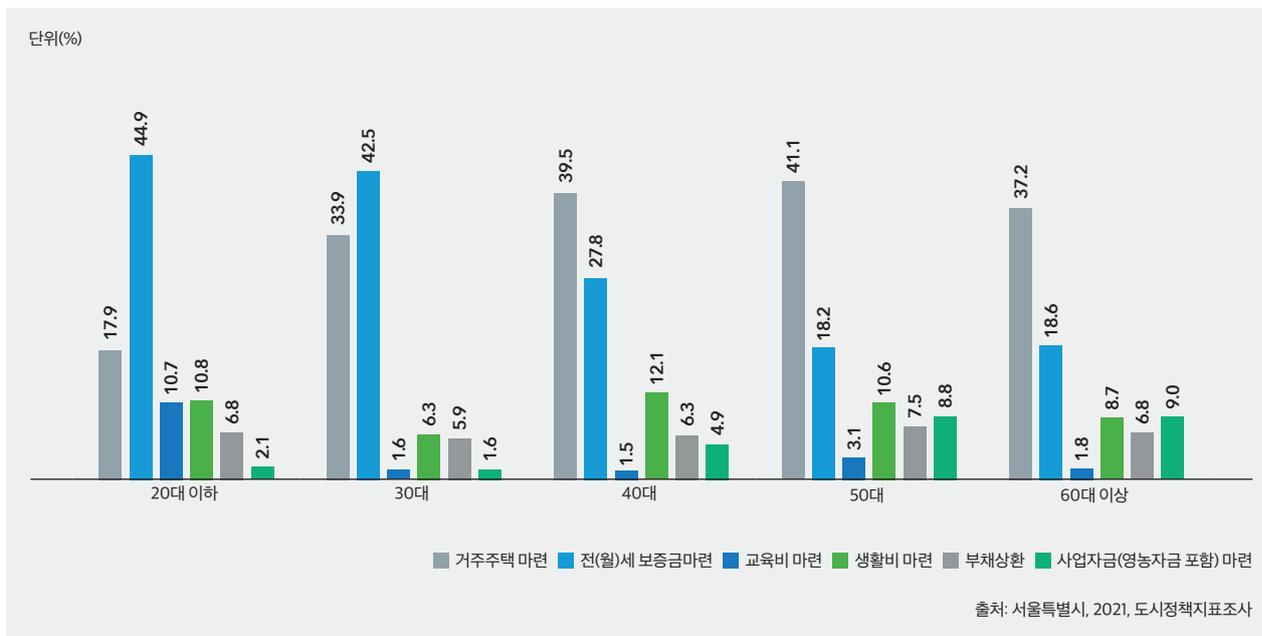
서울가구의 주된 부채 이유



2020년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20-30대는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40-60대는 '거주 주택마련'을 위해 주로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주된 부채 이유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에서는 '전(월)세 보증금 마련'이 부채의 주된 이유로 나타나지만 다른 연령대에서는 '거주목적의 주택마련'이 부채의 주된 이유로 나타난다.

연령대별 서울가구의 주된 부채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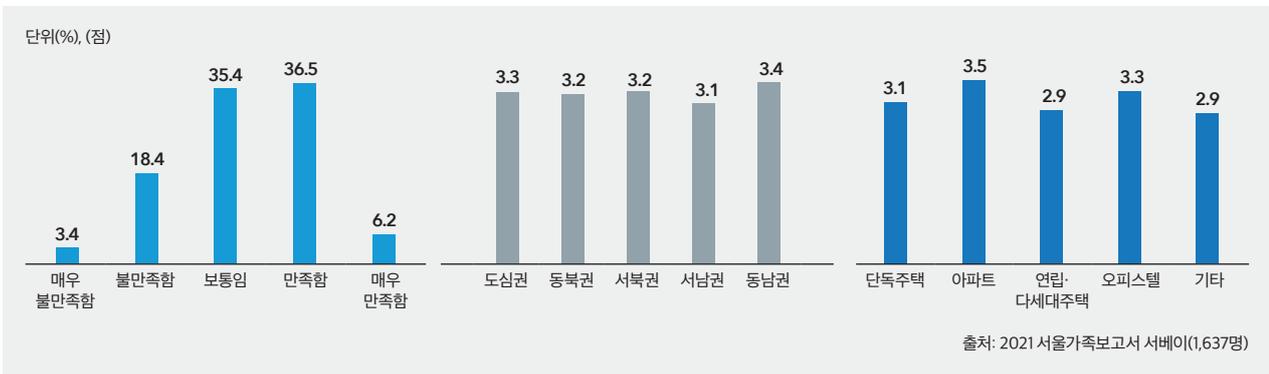


주거환경 만족도 2021 Seoul Family Survey

서울시민의 **집 및 주거환경 전반적 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집 및 주거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평균 3.2점(범위: 1-5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만족’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2.7%(만족함+매우만족함)로 응답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자신이 거주하는 집 및 주거환경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동남권(3.4점)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서남권(3.1점) 거주자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거주하는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3.5점) 거주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기타를 제외한 연립·다세대주택(2.9 점) 거주자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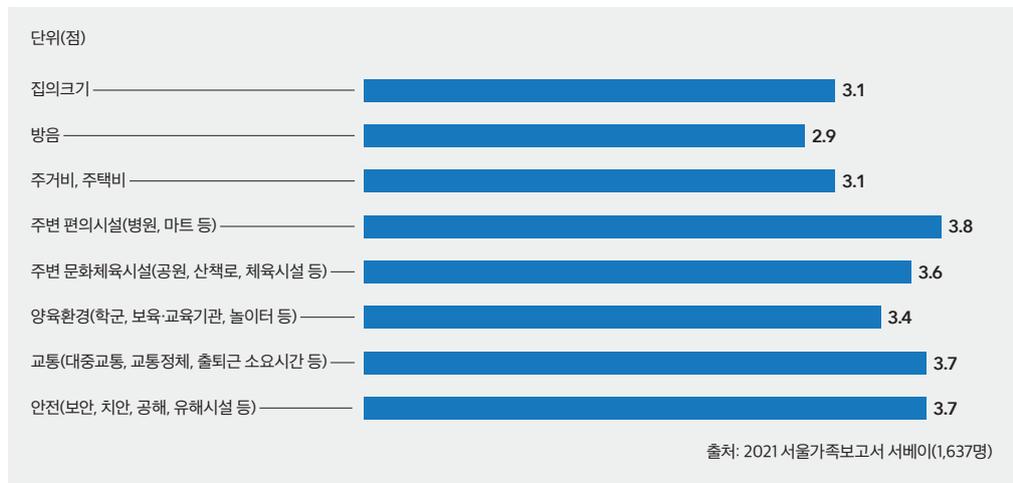
권역별, 주택 유형별 주거환경 만족도



집과 주변환경에 있어 서울시민은 주변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집의 방음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집과 주변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범위: 1-5점)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주변 편의시설(병원, 마트 등)’(3.8점)로 나타났고 ‘방음’(2.9점)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전반적으로 집과 관련된 항목(크기, 방음, 주거·주택비)의 만족도가 주변환경과 관련된 항목(편의시설, 문화체육시설, 양육환경, 교통, 안전)의 만족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과 주변 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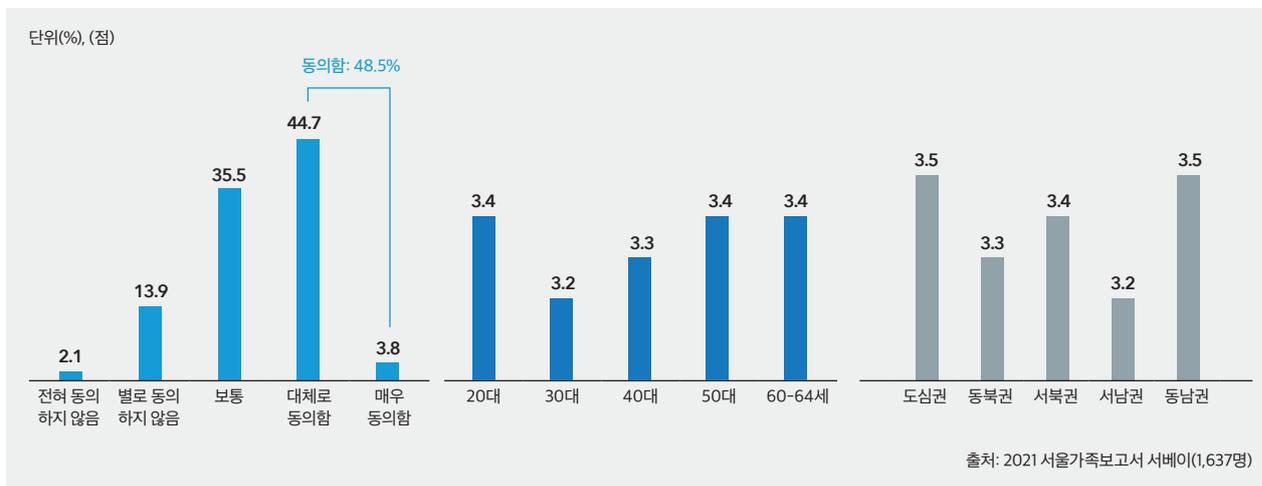


서울시와 자치구에 대한 가족친화 인식 2021 Seoul Family Survey

서울시민 2명 중 1명은 서울시가 가족친화적인 시라고 생각합니다.

‘귀하는 서울시가 가족이 살기 좋은 가족친화적인 ‘시’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범위: 1-5점)에 ‘동의’한다는 비율은 48.5%로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서울시가 가족친화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와 60대(평균 3.4점)는 서울시가 비교적 가족친화적이라고 인식한 반면, 30대(3.2점)는 유의하게 낮았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동남권 거주자(3.5점)의 인식이 가장 높았고, 서남권 거주자(3.2점)는 유의하게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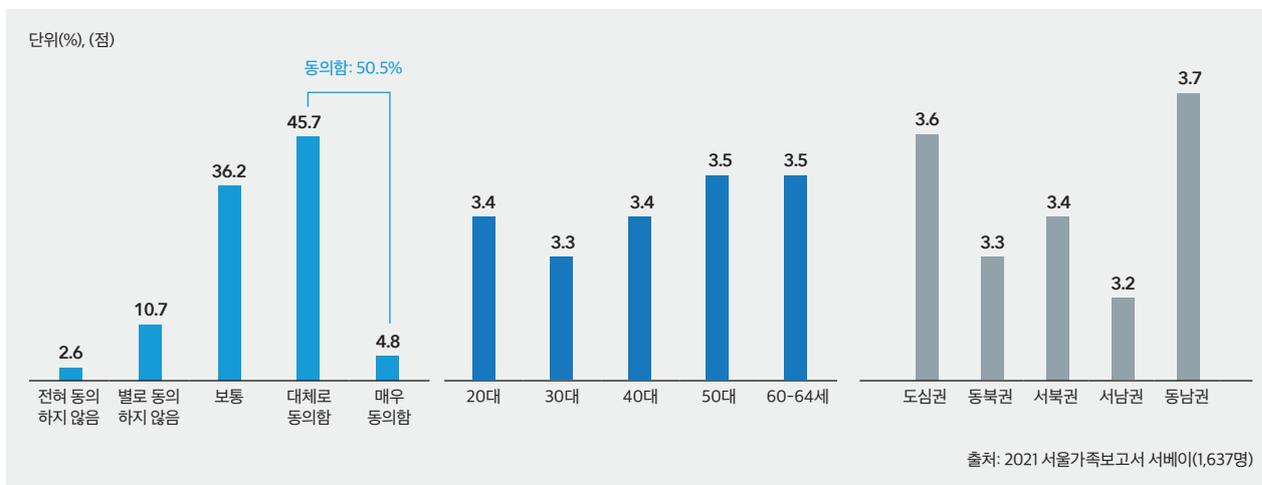
연령대별, 권역별 서울시에 대한 가족친화 인식



서울시민 2명 중 1명은 자신이 속한 자치구가 가족친화적인 구라고 생각합니다.

‘귀하가 사는 구는 가족이 살기 좋은 가족친화적인 ‘구’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범위: 1-5점)에 ‘동의’한다는 비율은 50.5%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자신이 속한 자치구가 가족친화적인 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와 60대(평균 3.5점)는 자신이 살고있는 구가 가족친화적이라고 인식한 반면, 30대(3.3점)의 인식은 유의하게 낮았다. 권역별로 보면, 동남권 거주자(3.7점)의 인식이 가장 높았고, 서남권 거주자(3.2점)의 인식이 유의하게 낮았다.

연령대별, 권역별 자치구에 대한 가족친화 인식



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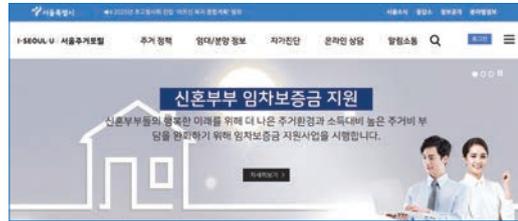
1.

주거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서울주거포털 *Seoul*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개인 및 가구에 맞춰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서울주거상담 *Seoul*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주거비지원, 주택개량, 주거생활, 주택금융, 기타 주거 관련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온라인 챗봇을 통한 주거상담을 제공한다.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Seoul*

서울시민들이 주거 관련 1:1 상담을 원할시 전화상담(1600-3456)이나 주거복지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긴급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 25 개소의 자치구 센터가 운영 중이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Seoul NEW*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일반 상담, 분쟁조정, 이 사시기 불일치 대출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차지원 사업 상담,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한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차지원사업 및 청년월세지원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담은 전화(02-2133-1200~8)와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2.

임대주택 공급정보



공공임대

무주택자들에게 가구당 소득수준 및 재산 규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영구임대

모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영구적(최장 50년)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국민임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생활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진 주택을 지어 최장 30년까지 저렴하게 임대한다.



장기전세 Seoul

무주택 서울시민들에게 주변 시세의 80% 이하인 전세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이사 걱정없이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주거환경임대

도시계획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철거된 세입자들에게 특별공급 후 남은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저렴한 금액의 임대주택이다.



재개발임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재개발 철거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간을 일반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3.

주거 비용 지원

보증금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Seoul

보증금이 부족한 최저주거취약계층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공사가 최대 9천만 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전세계약 체결 후 최장 20년까지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Seoul

무이자로 보증금 지원을 원하는 세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 원)을 서울시에서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지원한다.

임대료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및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용자지원 Seoul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일반 민간 월세 거주 저소득 시민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서울시 SH공사에서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저리로 용자 지원한다.

주거비 지원



맞춤형 주거급여 Seoul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실질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위소득 45% 이하 임차 가구는 임차급여(현금 지원),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현물 지원)를 지원받는다.

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4.

주택 개량 지원



희망의 집수리 지원 *Seoul*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한다.



서울시 집수리닷컴 *Seoul*

‘집수리닷컴’은 집수리 관련 상담, 교육프로그램 제공, 공구임대, 공사비 용자 지원, 기타 관련 정보 제공 등 집수리 관련 종합 플랫폼이다. 또한 서울시는 집수리아카데미 교육 이수자들로 구성된 ‘집수리실습 자원봉사단’과 함께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무료로 주택 수리를 지원하고 있다.



5.

다양한 가족 주거 지원



아동주거빈곤가구

최저 주거기준 미달인 주거빈곤가구 중 18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저소득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의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시세 30% 내 보증금 100만 원과 월세 25만 원~35만 원 사이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다자녀 가정 주거 지원

세자녀 이상인 가정은 ‘하수도 사용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전기료감액’, ‘난방비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 대출 연계사업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사업인 ‘나는 가장이다’는 주거자금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소액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1세대당 최대 500만 원(신용회복 세대 시 300만 원)이 대출 가능하며, 거치 기간 없이 대출받은 다음달부터 최장 60개월 분할하여 자동으로 상환이 가능하다.

6.

긴급 주거 지원



소득 상실, 질병 또는 부상, 가구구성원의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 화재에 따른 곤란 등 긴급 위기 사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에게 임시적으로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해외 사례

7.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 조성 *Seoul*

서울시는 '아동·여성·고령' 3대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가족 친화적 포용도시로, 영유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 구축 및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UNICEF Child Friendly Cities)'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준수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2021년 8월 기준 서울시에는 17개의 자치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출처: <https://www.unicef.or.kr/child-rights/initiative/child-friendly-cities.asp>

-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고 균형있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말한다. 2021년 1월 기준, 서울시는 13개의 자치구가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출처: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9063

2021년도 아동·여성 친화도시 인증 현황

지역구	아동친화	여성친화	지역구	아동친화	여성친화
강남구			서대문구	○	○
강동구	○	○	서초구		○
강북구	○		성동구	○	
강서구	○		성북구	○	
관악구	○	○	송파구	○	○
광진구	○		양천구	○	○
구로구	○		영등포구		○
금천구	○	○	용산구		
노원구	○		은평구	○	
도봉구	○	○	종로구	○	○
동대문구	○	○	중구		
동작구		○	중랑구		
마포구		○			

- 세계보건기구(WHO)는 고령화 및 도시화의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 Communities: GNAFCC)'를 2006년부터 추진하였다. 서울시는 2013년에 GNAFCC에 가입하였고 도시 내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왔으며 나아가 전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지향하고 있다.

출처: <https://afc.welfare.seoul.kr/afc/about/progress.action>

1.

코로나19 주거정책

코로나19로 주택시장의 혼란이 야기되자 OECD 국가들은 '임대료 부담 완화' 등 주거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신속히 대응하였다(정기성, 2021). OECD 23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주거 안정 지원방안은 자가 주택 소유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상환금 납부 유예'와 임차인을 위한 '퇴거 유예'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스트리아 및 스페인 정부는 무주택 임차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퇴거 유예', '임대차 계약 연장', '임차료 지불 유예'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자가 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였다. 그 밖에 캐나다와 뉴질랜드에서는 긴급 거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출처: 정기성 (2021). OECD 국가들의 코로나19와 주거정책. 국제사회보장리뷰, 17, 5-14.

IV

서울에서 혼자 살기

1. 코로나19 시대, 나 혼자 산다
2. 행복하게 혼자 살기, 관계와 건강
3. 안심하고 혼자 살기, 주거와 안전
4. 걱정없이 혼자 살기, 경제와 일자리



카드뉴스 서울에서 혼자 살기

2021년
서울 1인가구의 주거생활
을 들여다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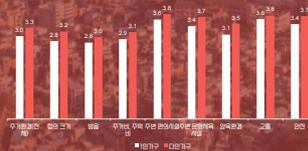
서울시 1인가구는
주거비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서울시 1인가구의 생활안 어려움 (단위: 백만명)



다인가구에 비해
집의 크기, 방음 등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1인가구 주거환경 만족도 (단위: 백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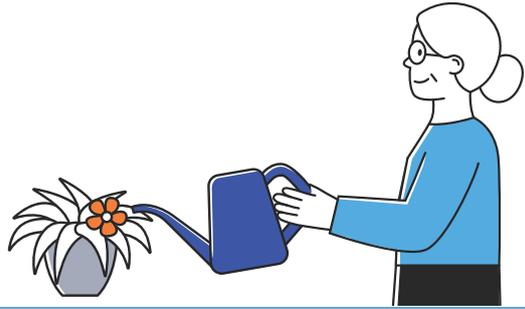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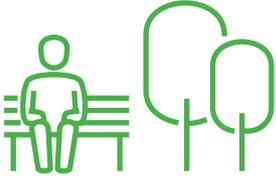
주거비 감소, 주거환경 향상 등
1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거정책이 궁금하다
면?
서울1인가구 포털에서 찾아보세요!



서울1인가구 포털 바로가기

1.

코로나19 시대, 나 혼자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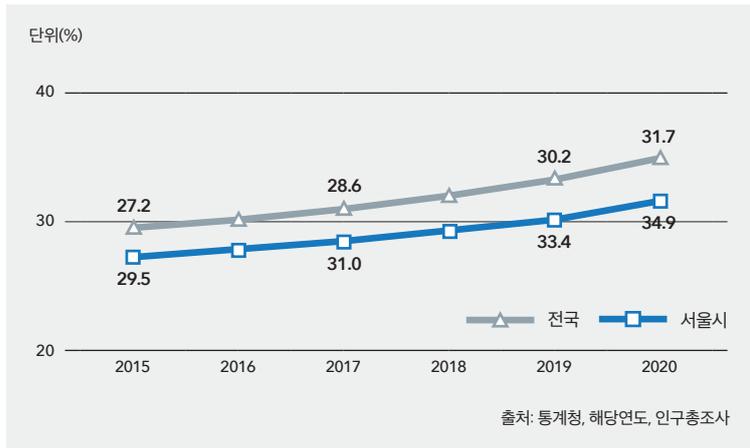


다양한 1인가구

2020년 기준 서울시의 1인가구는 총 1,390,701가구로, 서울시 전체 가구의 34.9%입니다.

2020년 기준 서울시의 1인가구는 총 1,390,701가구로, 서울시 전체 가구의 34.9%를 차지한다(통계청, 2021). 1인가구 중 53.2%가 여성으로, 남성보다 여성 1인가구가 더 많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26.1%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30대(22.3%)와 40대(13.1%)가 많다.

연도별 전국 및 서울시 1인가구 비율



2020년 기준 서울시 1인가구는 20대가 26.1%로 가장 많습니다.

서울시 1인가구 연령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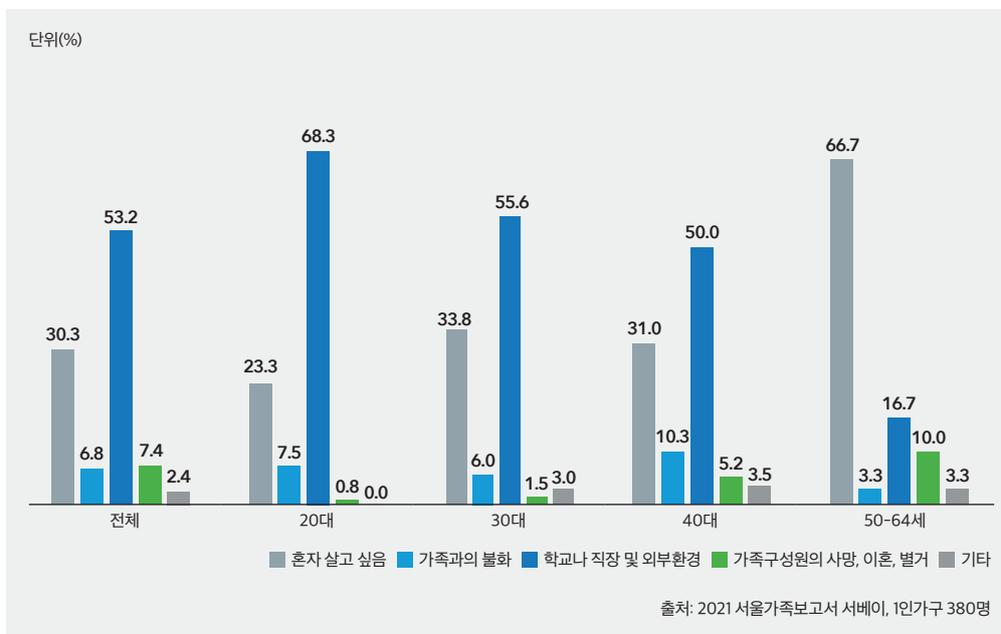


1인가구 지속 기간 및 이유 2021 Seoul Family Survey

1인가구의 **50% 이상은 학교, 직장 및 외부환경을 이유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2021년 도시정책지표조사(서울특별시, 2021)에 따르면, 서울시 1인가구가 혼자 지낸 기간은 평균 9.7년이다.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에서 1인가구(총 380명)를 대상으로 '귀하가 1인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인가구 중 53.2%는 '학교나 직장 및 외부환경'을 주된 이유로 응답했고, 그다음은 '혼자 살고 싶어서(30.3%)'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20-40대는 '학교나 직장 및 외부환경'으로 인해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50-60대는 '혼자 살고 싶다'는 이유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대별 서울시 1인가구가 혼자 생활하는 이유



정책 제안

40대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

고령화, 비혼주의 증가 등으로 인해 1인가구 중 40대 이상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19 서울서베이(서울특별시, 2020)에 따르면, 40대 이후부터 개인 재정상태 만족도, 사회활동 만족도, 건강상태 만족도 폭이 크게 감소하며, 1인가구의 행복도 또한 다인가구에 비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현재 1인가구 정책의 상당수는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40대 1인가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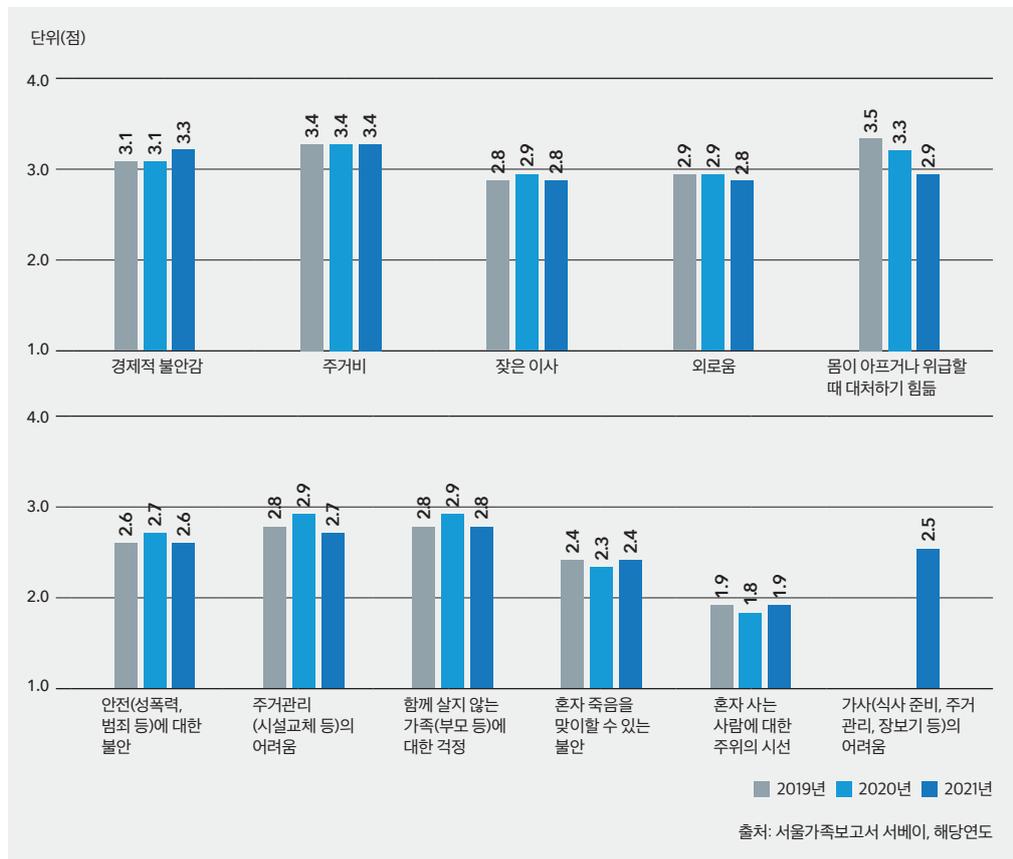
출처: 서울특별시, 2020,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303414?tr_code=snews

1인가구의 생활상 어려움 Seoul Family Survey

1인가구가 겪은 어려움 중 '경제적 불안감'과 '과도한 주거비' 관련 어려움은 **매년 증가**한 반면, '외로움', '몸이 아프거나 위험할 때 대처'와 같은 어려움은 **매년 감소**했습니다.

'귀하는 평소 생활하시면서 어려움을 얼마나 경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2019-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3개년 결과를 비교해보면, '경제적 불안감' 및 '주거비'와 관련된 어려움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로움', '몸이 아프거나 위험할 때 대처'와 같은 어려움은 점차 감소하였다.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에는 '가사(식사 준비, 주거 관리, 장보기 등)의 어려움' 항목을 추가하였다. 2021년 조사 결과, '주거비가 많이 들어서 힘들다'가 평균 3.4점(범위: 1-5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경제적으로 불안해서 힘들다'(3.3점),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기가 힘들다'(2.9점)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연도별 서울시 1인가구의 생활상 어려움



법령 소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전면개정 (2021)

서울시는 2021년 1인가구를 위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를 개정했다. 1인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책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인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를 강화하고 내실있는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1인가구지원센터 등을 설치하고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을 통해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2.

행복하게 혼자 살기, 관계와 건강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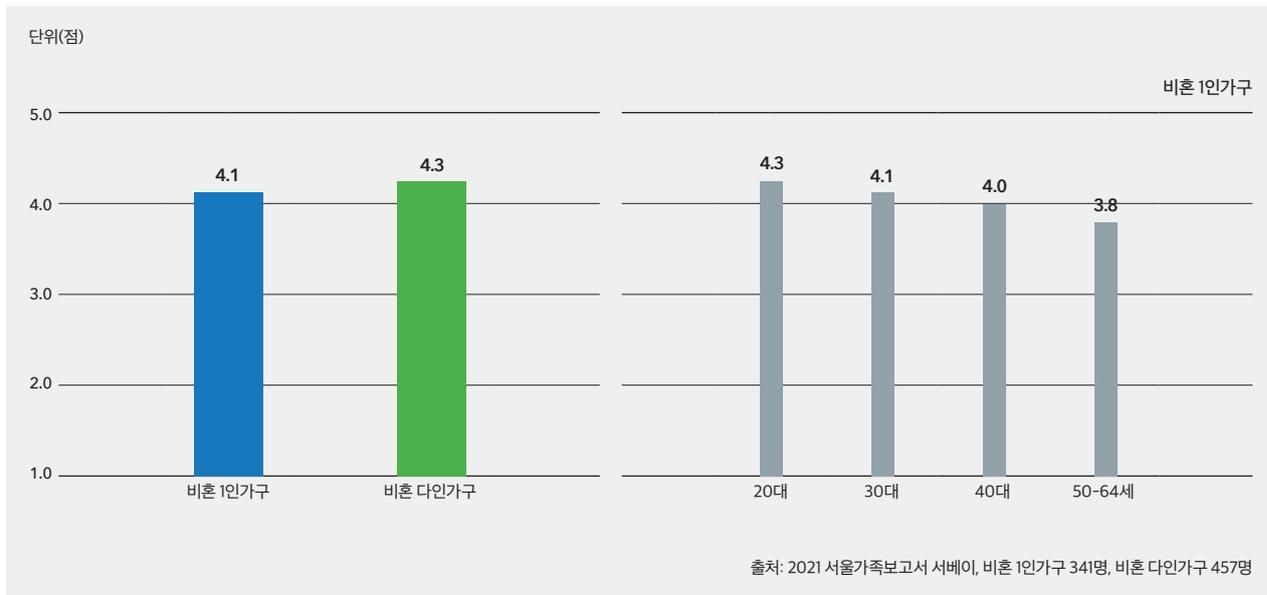
1) 이 절에서는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에 응답한 1인가구(380명) 중 비혼인 341명만을 분석하였다.

비혼 1인가구가 인식한 가족의 중요성 *2021 Seoul Family Survey*

비혼 1인가구 중 **20대 청년 비혼 1인가구가 가족의 중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하의 가족은 귀하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라는 질문에서, 비혼 1인가구가 인식하는 가족의 중요성은 평균 4.1점(범위: 1-5점)으로, 비혼 1인가구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4.3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가 낮아졌다. 비혼 다인가구(4.3점)와 비교해보면,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 정도에 있어 비혼 1인가구가 비혼 다인가구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비혼 1인가구와 비혼 다인가구 비교 및 비혼 1인가구 연령대별 비교: 가족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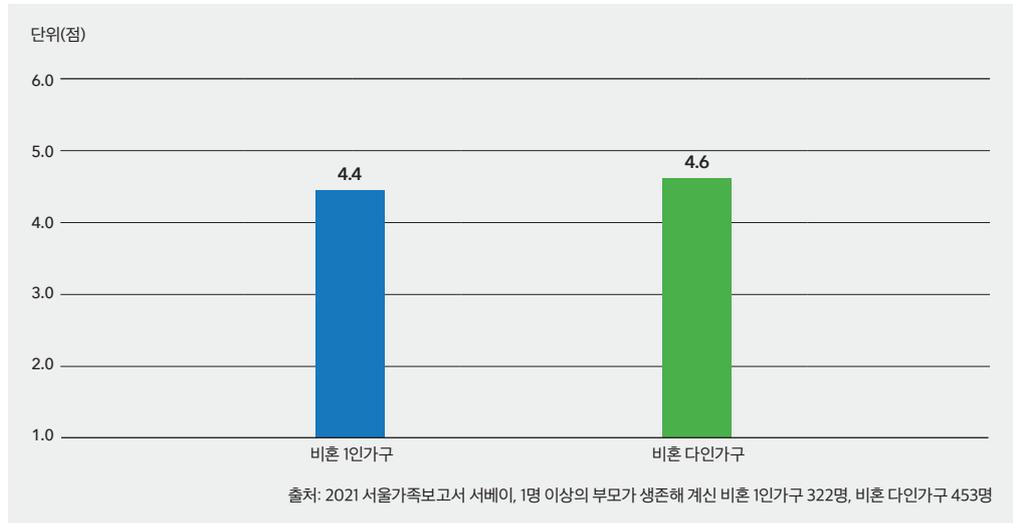


비혼 1인가구의 부모와의 관계 2021 Seoul Family Survey

비혼 1인가구는 **부모와 약간 가깝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인생의 현 시점에서 귀하는 부모님과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니까?’라는 질문에, 비혼 1인가구는 평균 4.4점(범위: 1-6점)으로 부모와 약간 가깝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비혼 다인가구(4.6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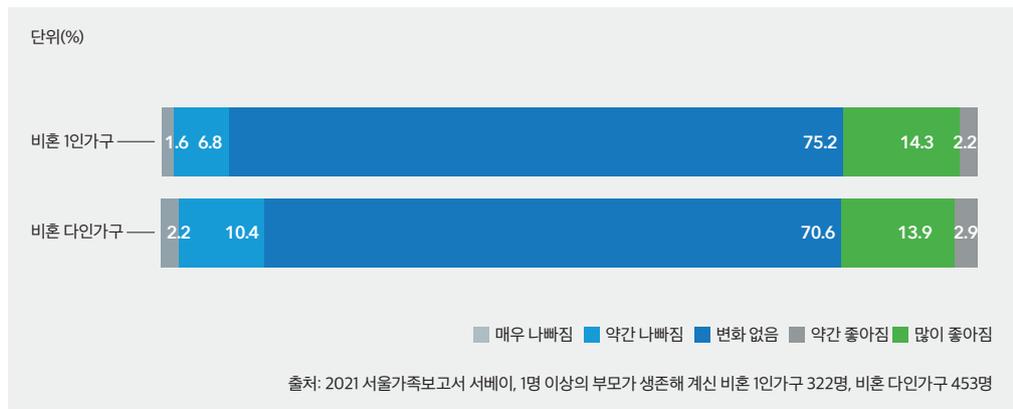
비혼 1인가구와 비혼 다인가구 비교: 부모와의 관계



비혼 1인가구의 **75.2%**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부모와의 관계를 이전처럼 유지하고 있었고 16.5%**는 **관계가 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혼 1인가구 비율이 75.2%로 가장 많았다.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약간 좋아짐+많이 좋아짐)은 16.5%로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인 8.4%보다 높았다. 비혼 다인가구와 비교했을 때, ‘좋아졌다’는 응답 비율은 비슷하였으나, ‘나빠졌다’는 응답은 비혼 다인가구(12.6%)보다 비혼 1인가구(8.4%)가 더 낮았다. 이는, 비혼자에 있어 코로나19 이후 홀로 거주하는 것이 함께 거주하는 것보다 부모와의 관계를 덜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비혼 1인가구와 비혼 다인가구 비교: 코로나19 이후 부모와의 관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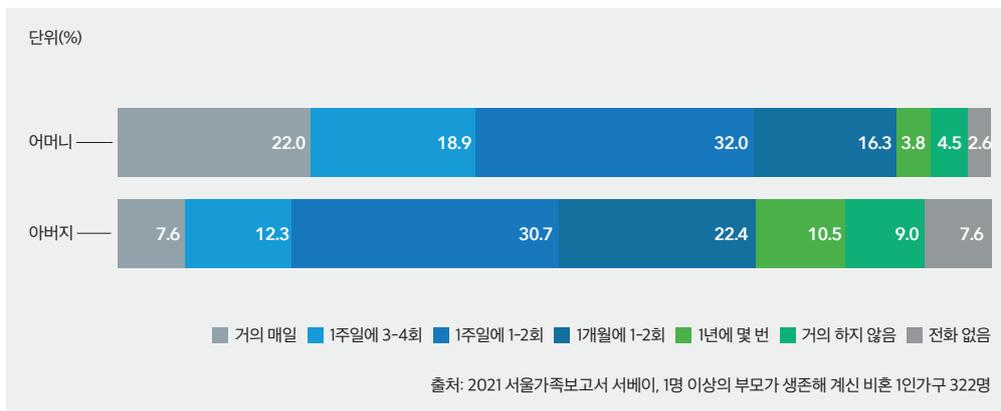


비혼 1인가구의 부모와 연락 빈도 2021 Seoul Family Survey

비혼 1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부모와 **일주일에 1회 이상 연락**하였습니다.

‘귀하는 다음의 가족원과 전화, 문자나 특으로 얼마나 자주 연락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비혼 1인가구는 부모와 연락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와 주 1회 이상 연락하는 경우가 72.9%로 나타났고, 아버지와 주 1회 이상 연락하는 경우는 50.6%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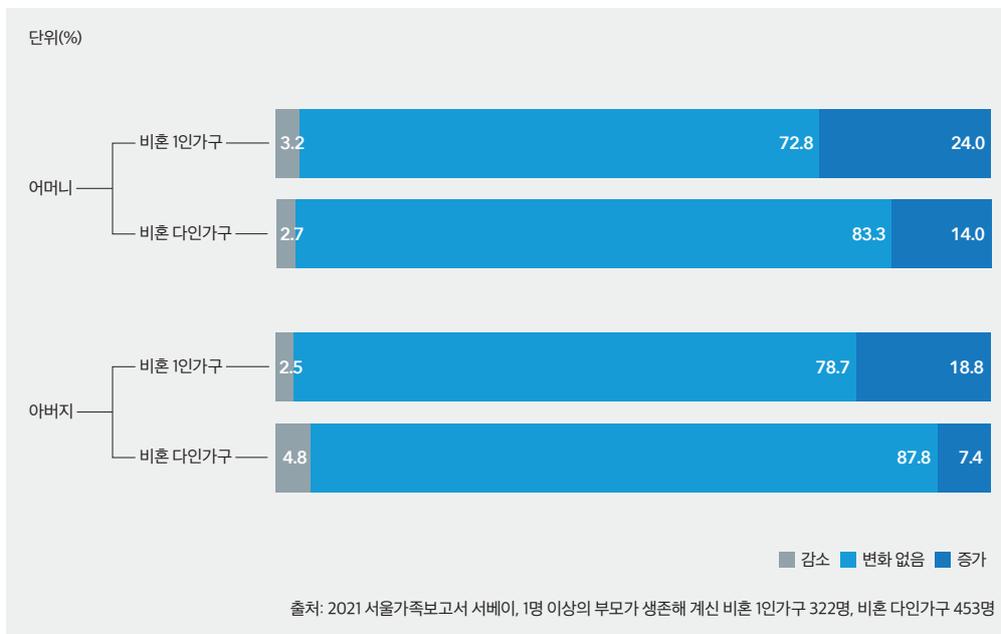
비혼 1인가구의 부모와 연락 빈도



코로나19 이후 비혼 1인가구의 부모와의 연락 빈도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귀하의 부모와 전화나 문자, 특으로 연락하는 횟수에 변동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어머니와 아버지와 연락 빈도가 ‘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2.8%, 78.7%로 가장 높았다. 비혼 다인가구와 비교해보면, 어머니·아버지와의 연락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혼 1인가구에서 더 높았다.

비혼 1인가구와 비혼 다인가구 비교: 코로나19 이후 부모와의 연락 빈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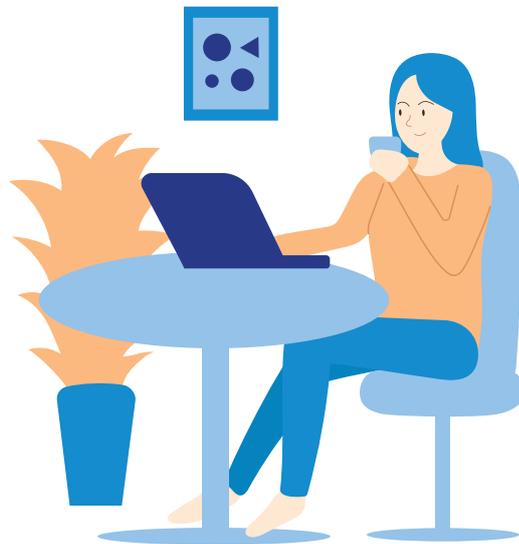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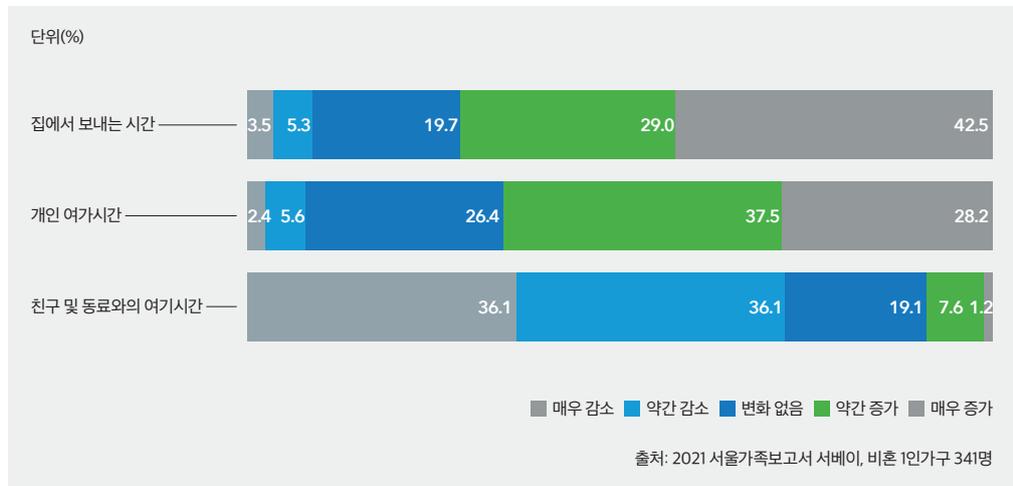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비혼 1인가구의 시간 사용 변화 2021 Seoul Family Survey

코로나19 이후 비혼 1인가구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 개인 여가시간이 전보다 증가한 반면, 친구 및 동료와의 여가시간은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귀하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비혼 1인가구의 71.5%는 ‘코로나19 전보다 증가하였다(약간 증가+매우 증가)’고 응답하였다. ‘코로나19 이후 귀하의 여가시간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비혼 1인가구의 65.7%는 ‘개인 여가시간이 증가하였다(약간 증가+매우 증가)’고 응답한 반면, 72.2%는 ‘친구 및 동료와 보낸 여가시간이 감소하였다(약간 감소+매우 감소)’고 응답하였다. 즉,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비혼 1인가구는 친구나 동료 등 타인과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코로나19 이후 비혼 1인가구의 시간 사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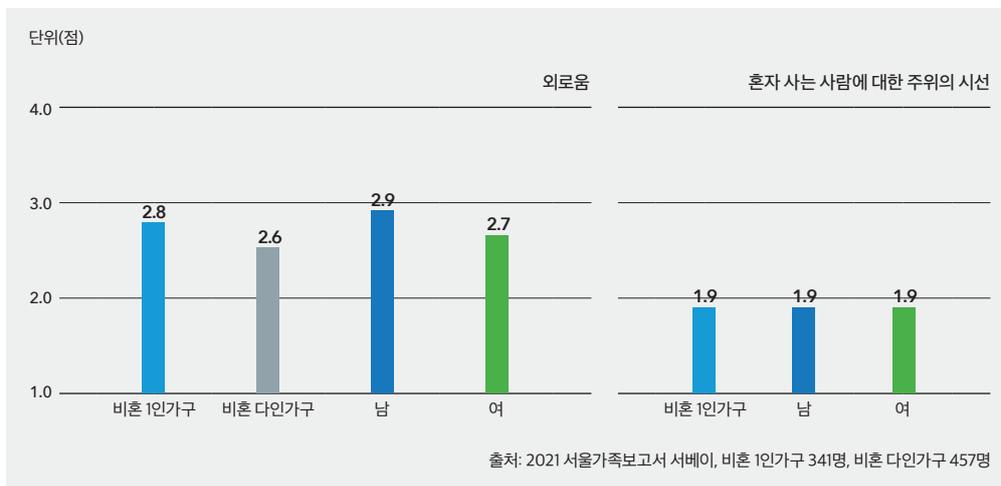


비혼 1인가구의 관계와 건강상 어려움 2021 Seoul Family Survey

비혼 1인가구는 관계로 인한 어려움은 크게 경험하고 있지 않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외로움으로 인해 더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비혼 1인가구가 평소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살펴보면, '외로움 때문에 힘들다'는 응답은 평균 2.8점(범위: 1-5점)으로 나타났고,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주위의 시선 때문에 힘들다' 1.9점으로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크게 경험하지 않고 있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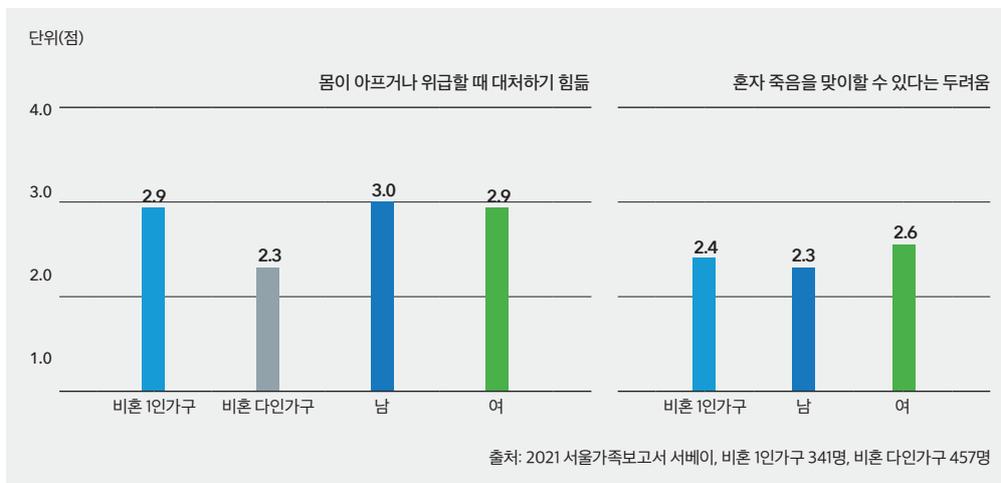
비혼 1인가구의 관계 어려움



비혼 1인가구는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비혼 다인가구보다 대처하기 더 힘들어**했습니다.

비혼 1인가구의 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살펴보면,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기 힘들다'는 응답은 평균 2.9점(범위: 1-5점), '혼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힘들다' 2.4점으로 나타났다. 비혼 다인가구와 비교하면, 비혼 1인가구는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기 더 어려워하였다. 혼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두려움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혼 1인가구의 건강상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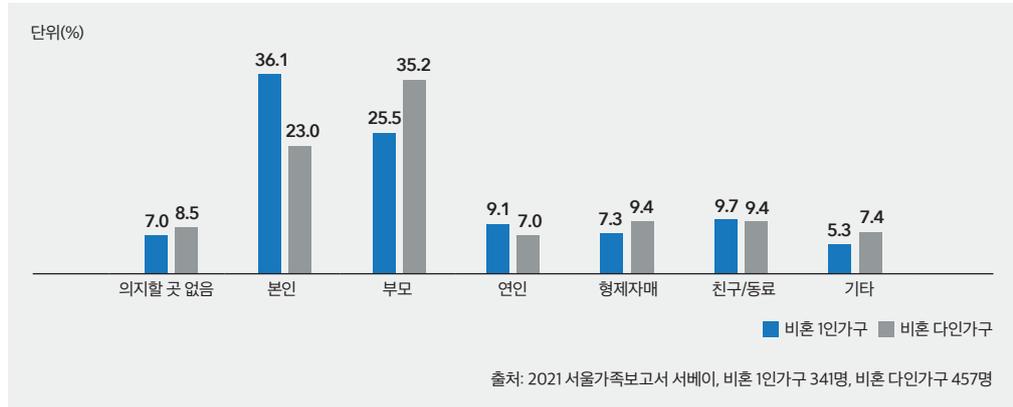


비혼 1인가구에게 의지가 되는 존재 2021 Seoul Family Survey

비혼 1인가구는 **어려울 때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심적으로 가장 의지가 되는 존재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비혼 1인가구는 ‘본인’(36.1%)을 가장 많이 뽑았고, 그다음으로 ‘부모’(25.5%), ‘친구/동료’(9.7%), ‘연인’(9.1%) 순으로 응답하였다. 비혼 다인가구(35.2%)는 부모에게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과 달리, 비혼 1인가구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비혼 1인가구에게 의지가 되는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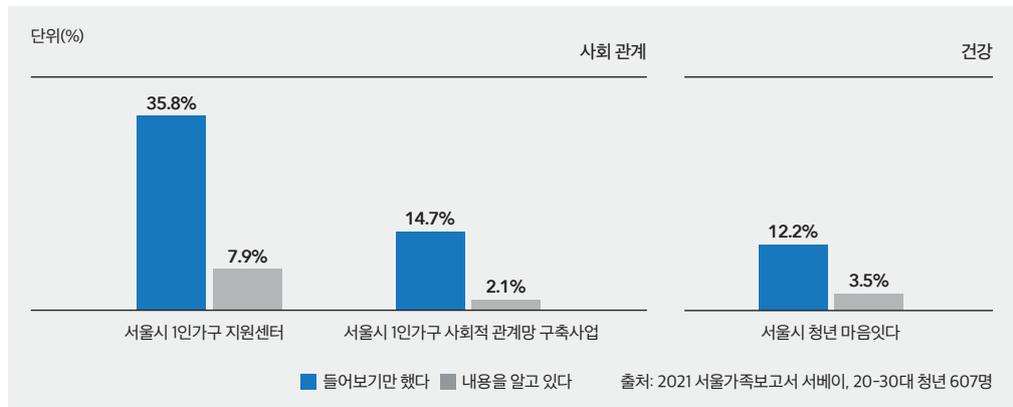


사회적 관계 및 건강 관련 1인가구 지원 정책 인지도 2021 Seoul Family Survey

20-30대에게 있어,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와 건강 관련 지원 정책 중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응답자 중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와 건강 관련 1인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35.8%)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를 ‘들어본 적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50% 이상을 차지했으며, ‘서울시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사업’과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마음있다’ 또한 80% 이상이 ‘들어본 적 없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하면,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및 건강 관련 지원 정책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20-30대의 사회적 관계 및 건강 관련 1인가구 지원 정책 인지도



서울시 1인가구를 위한 서비스

1.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서비스

1인가구지원센터 Seoul

1인가구지원센터는 1인가구의 관계, 건강, 교육·여가문화 등 1인가구 지원사업을 통해 1인가구가 미래를 설계하고, 떨어져 사는 가족과의 적당한 관계 유지 등 1인가구의 운택한 생활을 돕는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가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1인가구 포털



서울시 1인가구 인스타그램

접수중인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
<p>참가접수중</p> <p>혼.확.행</p> <p>1인가구 심리상담 "혼.확.행" 대상자 모집</p> <p>행사일시 2021-07-01 00:00 ~ 2021-12-01 00:00 접수기간 2021-07-01 00:00 ~ 2021-11-30 00:00</p>	
<p>참가접수중</p> <p>너의 목소리가 들려</p> <p>[성동구] 1인가구 당신의 이야기, 너의 목소리가 들려</p> <p>행사일시 2021-07-01 09:19 ~ 2021-12-15 09:19 접수기간 2021-07-01 09:19 ~ 2021-12-15 18:19</p>	
<p>참가접수중</p> <p>술로NOT홀로 1인가구 심리상담</p> <p>[금천구] 술로NOT홀로 1인가구 심리상담</p> <p>행사일시 2021-03-05 00:00 ~ 2021-11-30 00:00 접수기간 2021-03-05 00:00 ~ 2021-11-30 00:00</p>	
<p>참가접수중</p> <p>온(溫)마을</p> <p>[구로구] 1인가구 전문상담 '온(溫)마을'</p> <p>행사일시 2021-02-01 09:00 ~ 2021-12-31 18:00 접수기간 2021-02-01 09:00 ~ 2021-12-31 18:00</p>	

출처: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서울시 1인가구를 위한 서비스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Seoul

서울시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1인가구가 건강한 사회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

오프라인 공간인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는 19개 자치구에 설립되어 1인가구를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한다.



출처: 2021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 리플렛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G

강남구에 위치한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G'는 휴식, 운동, 문화생활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서울청년센터 오랑

'서울청년센터 오랑'은 서울청년에 필요한 정책 및 정보를 제공하며, 공간도 저렴하게 대관할 수 있다.



서울1인가구 포털 Seoul NEW

서울시는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커뮤니티 활동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1인가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웃살피미 Seoul

고독사 위험에 놓인 사회적 고립 가구가 이웃의 관심을 통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이웃살피미는 교육과 워크숍에 참여한 후 지역 내 고립상황의 가구를 지원한다.

2.

1인가구 및 청년층의 건강을 위한 서비스

1인가구의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서울시는 청년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온·오프라인에서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1인가구 상담멘토 그룹 *Seoul NEW*

1인가구의 고립감 및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상담 멘토링 사업으로,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가족센터(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출처: <https://familyseoul.or.kr/node/11869>

온라인고민상담소 'hi, there'

자신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온라인 홈페이지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교육을 수료한 마음친구에게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마음있다' *Seoul*

심리지원이 필요한 만 19-39세 서울청년을 대상으로 1:1 심층 상담과 상담료를 지원한다.



출처: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0054>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Seoul NEW*

응급상황을 대처하기 어려운 1인가구를 위해 병원에 가는 모든 과정에서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서비스이다. 1인가구이거나 가족이 부재하여 1인가구 상황에 처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이다.

※ 콜센터: 1533-1179(2021.11.1~)

출처: 서울시, 2021,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2666>

서울시 1인가구를 위한 서비스

3.

1인가구를 위한 정책 및 서비스 안내서 제공



1인가구 생활 홍보지 *Seoul*

1인가구의 주거, 안전, 경제, 여가, 건강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정책 및 서비스를 소개한다. 성별, 연령대별, 생활영역별로 필요한 맞춤형 사업과 프로그램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정책 소식

서울시·자치구 1인가구 지원 협력체계 구축

서울시는 1인가구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1인가구 특별대책 총괄인 서울시는 중요사업을 기획·발굴하고, 자치구는 1인가구 총괄TF를 설치함으로써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해외 사례

1.

1인가구의 관계망



영국 | 서포트 버블(Support Bubble)

코로나19 이후 봉쇄령이 내려진 영국은 '서포트 버블'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거나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 장애인, 영유아가 있는 가족 등을 지원하였다. 이 정책은 최대 두 가구를 연결해 봉쇄 기간에도 서로의 집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스트레스와 긴장을 감소시키고 정서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출처: 황수영 (2021). 영국 1인 가구 현황과 관련 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www.kwdi.re.kr/research/frtrandView.do?p=1&idx=127729> (2021.08.31)

3

안심하고 혼자 살기, 주거와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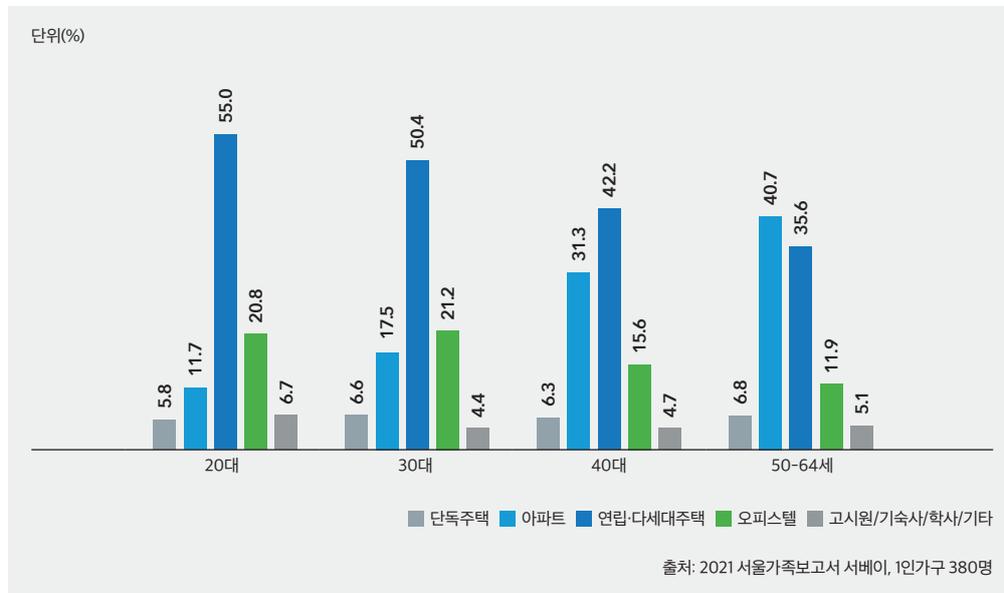


1인가구 주거 현황 2021 Seoul Family Survey

1인가구 중 20-40대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50-60대는 아파트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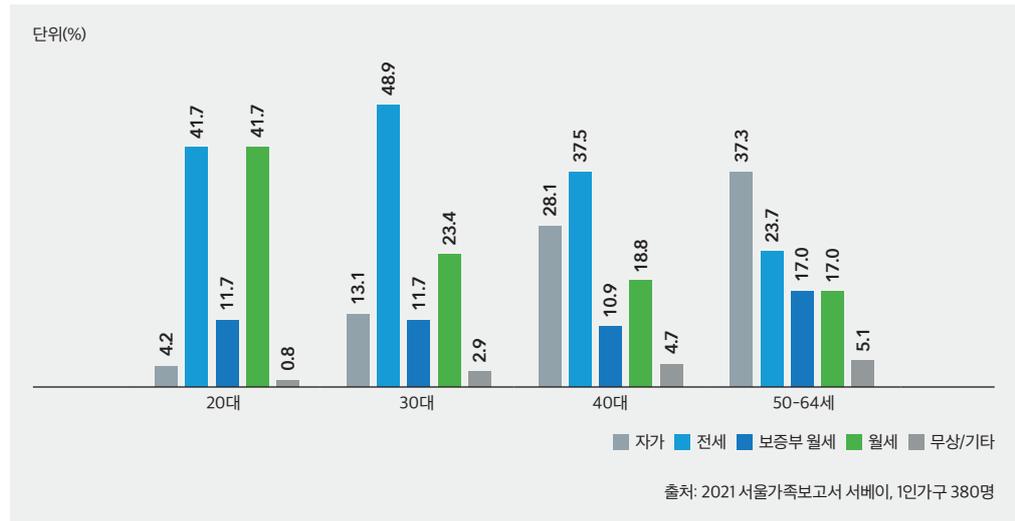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에 참여한 1인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20-40대는 '연립·다세대 주택', 50-60대는 '아파트'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점유 형태를 보면, 20대는 '전세'와 '월세', 30-40대는 '전세', 50-60대는 '자가'가 가장 많았다.

1인가구의 주택 유형



1인가구 중 **20-40대는 전세, 50-60대는 자가에 가장 많이 거주** 하고 있었습니다.

1인가구의 점유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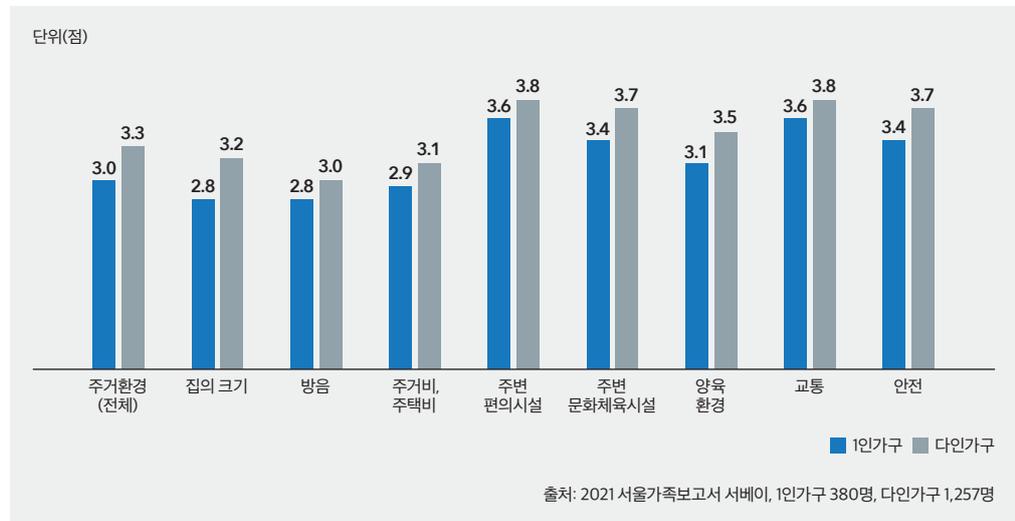


1인가구 주거환경 만족도 2021 Seoul Family Survey

1인가구는 주거환경 중 **방음, 집의 크기, 주거비**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1인가구의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는 평균 3.0점(범위: 1-5점)으로 보통 수준이나, 다인가구(3.3점)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 주거환경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면, 1인가구는 ‘방음’(2.8점), ‘집의 크기’(2.8점), ‘주거비’(2.9점)와 관련한 만족도가 낮았다.

1인가구 주거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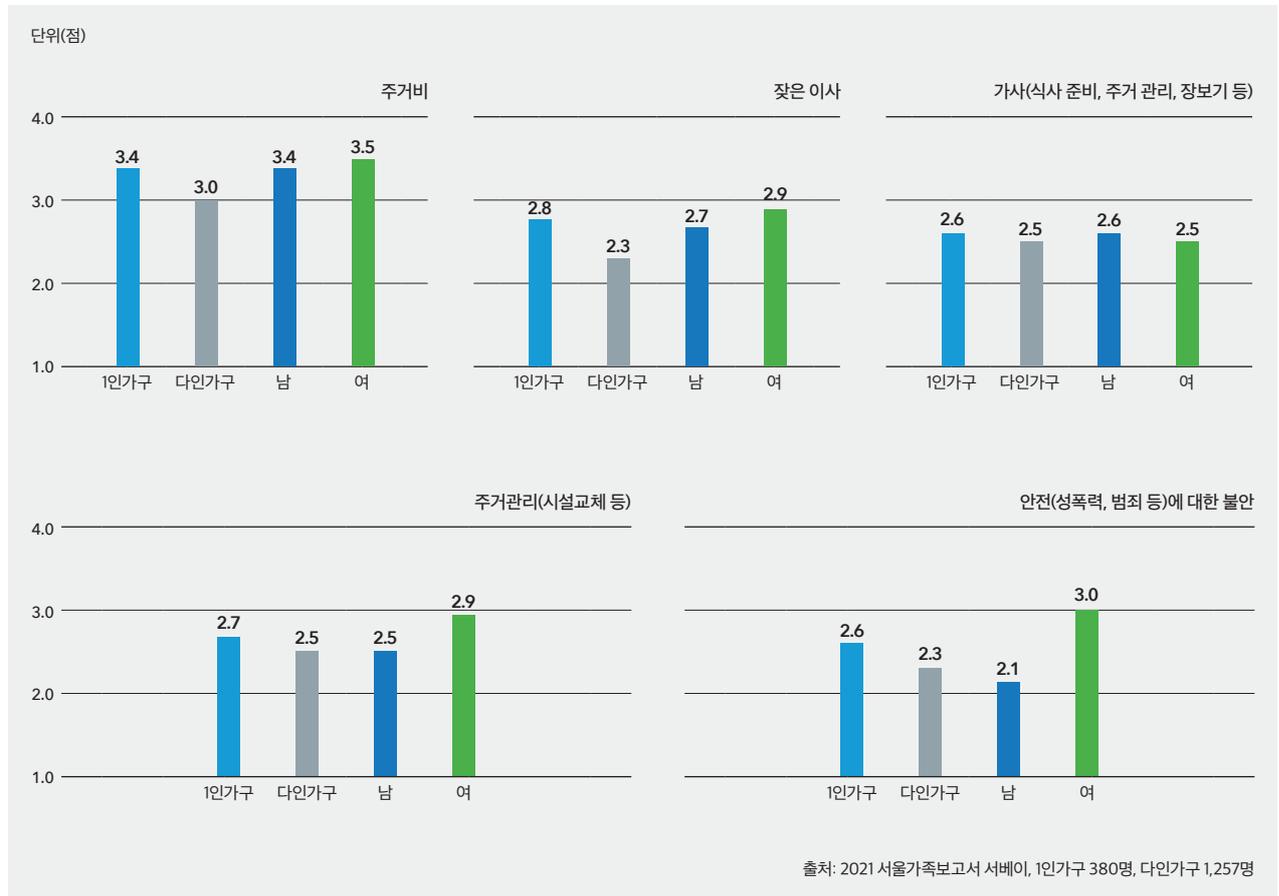


1인가구 주거와 안전상 어려움 2021 Seoul Family Survey

1인가구는 높은 주거비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남자보다 여자가 주거관리의 어려움과 안전에 대해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1인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어려움을 파악한 결과, '주거비가 많이 들어서 힘들다' 평균 3.4점(범위: 1-5점), '이사를 자주 해야 해서 힘들다' 2.8점, '주거관리(시설교체 등)가 힘들다' 2.7점 순이었다. 다인가구와 비교했을 때, 1인가구는 주거비, 잦은 이사, 주거관리, 안전에 대한 불안 등의 영역에서 다인가구보다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였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주거관리로 인한 어려움과 안전에 대해 더 불안감이 더 높았다.

1인가구 주거와 안전상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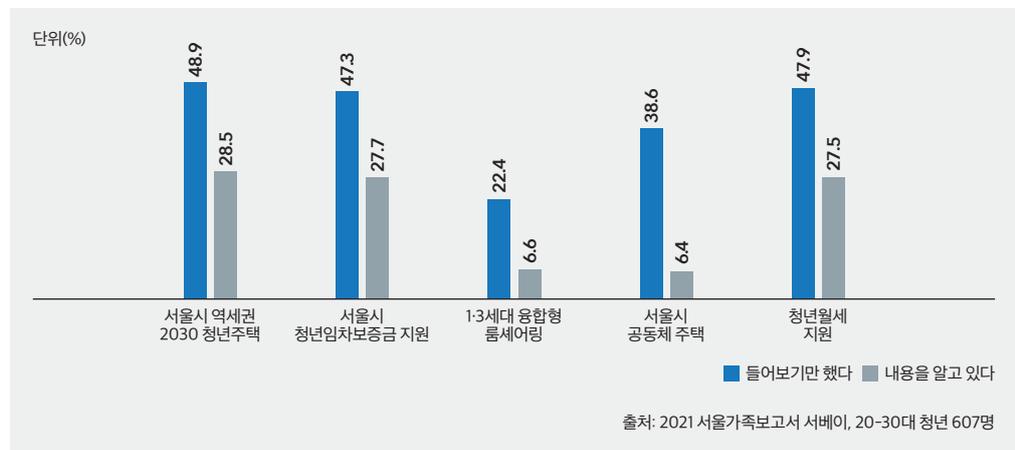


주거와 안전 관련 1인가구 및 청년 지원 정책 인지도 2021 Seoul Family Survey

20-30대 청년 응답자의 절반은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에 참여한 20-30대 청년층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주거 및 안전 관련 1인가구 및 청년 지원 정책의 대부분을 듣거나 알고 있었다. 주거 지원 정책 중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은 응답자의 약 50%에 가까운 사람이 들어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용을 아는 사람도 30%에 가까웠다. 그러나 '1·3세대 융합형 룸셰어링'이나 '서울시 공동체 주택'에 대해 내용을 아는 사람이 7% 미만으로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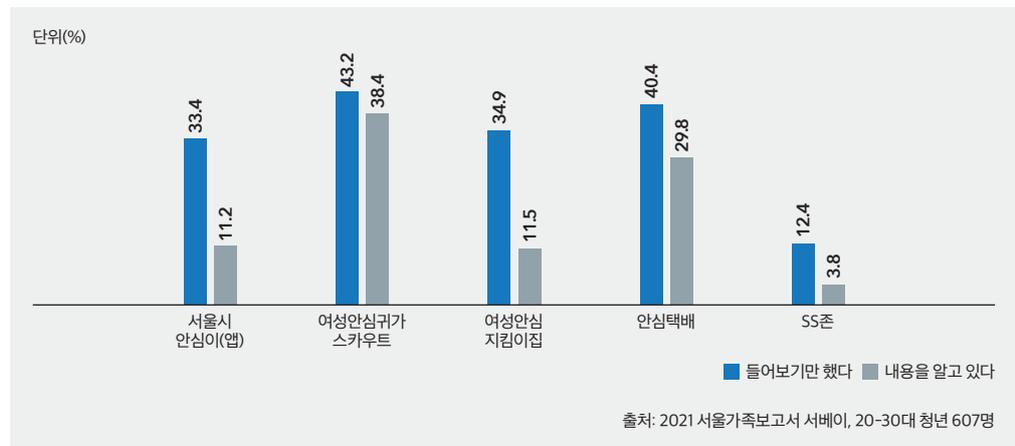
20-30대의 1인가구 및 청년 주거 정책 인지도



20-30대 응답자는 1인가구 및 청년 안전 지원 정책 가운데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와 안심택배**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1인가구 안전 지원 정책 중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와 '안심택배'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서울시 안심이 앱'과 '여성안심 지킴이집'은 들어보기만 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고, 응답자의 83.8%는 '안심장비 지원사업(전 SS존)'을 들어보지 못한 것을 고려할 때, 홍보가 필요하다.

20-30대 1인가구 및 청년 안전 지원 정책 인지도



서울시 1인가구 및 청년을 위한 서비스

1.

안전을 위한 서비스

서울시 안심이

여성을 포함한 누구나 늦은밤 홀로 귀가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앱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CCTV와 연결되어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고, 위급상황 시 경찰의 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안심망 서비스이다.



출처: 서울정보소통광장, 2019,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22105760>



여성안심지킴이집

편의점을 활용하여 위급상황에 처한 여성이 대피하거나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4시간 대피소이다. 서울시 안심이 앱이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근 여성안심지킴이집을 찾아볼 수 있다.

출처: 서울시, 2014, <https://opengov.seoul.go.kr/civilappeal/2896330>

안심택배함

바쁜 생활로 택배를 수령하기 어렵거나 낯선 사람을 대면하기 두려울 때 거주지 근처에 설치된 무인택배보관함을 통해 택배를 받거나 보내는 서비스이다. 서울시 안심이 앱이나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택배함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서울시, 2021,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11589>



안심택배

서울시 1인가구 및 청년을 위한 서비스

안심장비 지원사업 Seoul

서울시는 여성 1인가구와 여성 1인점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여성 1인가구에게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창문 잠금장치, 스마트 안전센서와 같은 안심 홈세트를 지원한다. 혼자 점포를 운영하는 여성에게는 구청 CCTV 관제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경찰의 긴급출동을 지원하는 무선 비상벨 설치를 지원한다.

출처: 서울시, 2021,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1720>

안심마을보안관 Seoul NEW

여성 등 1인가구 밀집지역 중 범죄취약구역을 전담하여 경비하는 안심마을보안관을 배치하여 심야 시간대에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서비스이다. 21시부터 익일 2시 30분까지 주 5일간 활동하여 1인가구의 범죄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한다.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사업 Seoul NEW

1인가구의 안전한 삶을 위해 도어카메라, 긴급출동서비스 등 가정용 보안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인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출처: https://in.seoul.go.kr/front/board/boardContentsView.do?board_id=1&contents_id=a3a3dbefbbdb48aeacc3f89692bde1d8



I-SEOUL U

신청하세요!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여성 1인 점포
안심 점포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

여성 1인 점포
'안심점포' 무선비상벨 지원

안심장비를 위한 안내사항 및 지원 구급 CCTV관제센터와의 연계 긴급출동 지원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창문 잠금장치, 스마트 안전센서, 무선비상벨, 긴급출동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 접수, 신청서 접수 확인, 신청서 접수 확인, 신청서 접수 확인, 신청서 접수 확인

신청기간: 2021. 9. 6.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처: 서울특별시청 1층 100호 (서울특별시청 1층 100호)

서울특별시

여성 1인 가구 안심지원사업 '안심홈세트', '안심점포' 신청안내

I-SEOUL U

서울특별시

1인가구 주거안전이 걱정이라면?
안전 도어지킴이

도어카메라, 긴급출동 서비스

최소 1년간 연간비용 월 1,000원
~유료 긴급출동서비스 월 5,000원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 접수, 신청서 접수 확인, 신청서 접수 확인, 신청서 접수 확인, 신청서 접수 확인

신청기간: 2021. 9. 6.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처: 서울특별시청 1층 100호 (서울특별시청 1층 100호)

서울특별시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신청안내

2.

주거 정책 및 서비스

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

2030세대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과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우선 공급하지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주거급여수급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Seoul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역세권에 저렴하고 질이 좋은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혹은 신혼부부이다.



희망하우징 Seoul

서울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임대보증금 100만 원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이다.

기타 청년 주거 지원

행복기숙사	청년 전세임대

주거 비용 지원



청년 월세 지원 Seoul

만 19-39세 서울 거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이다. 생애 한 번,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의 월세를 지원한다.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목돈 마련이 어려운 만 19-39세 이하 청년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민이거나 1개월 이내로 서울에 전입 예정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이거나,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 1인가구 및 청년을 위한 서비스

기타 청년 주거비 지원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i>Seoul</i>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서울형 주택바우처 <i>Seoul</i>
			

주거 공유 서비스



노장청 셰어하우스(한지붕 세대공감) *Seoul*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방 1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노인의 남은 방을 서울시 소재 대학(원)의 재학생·휴학생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사업이다.



공동체 주택

독립된 공동체 공간(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한 주거공간으로, 입주자들이 공동체 규약을 마련하여 생활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 활동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이다. 주택의 유형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노인 등 공동의 목적을 지닌 누구나 거주할 수 있다.



청년협동조합주택

자립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주택으로, 만 19-35세 이하의 청년, 1인 직장인 및 입주자모집공고 연도의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일반 청약통장보다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하여 청년이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대상은 만 19-34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며, 금리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가구 공공홈케어(안심주거) *Seoul NEW*

1인가구의 주택 내 불편사항에 대한 지원 서비스로, 간단한 주거불편을 해결하는 '긴급 생활불편처리', 1인가구 맞춤형 소규모 집수리 '홈케어 서비스', 독거노인, 장애인 등 홀로 정돈하기 어려운 1인가구를 지원하는 '클린케어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에 거주 중인 1인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는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120%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 소요비용의 50%를 지불해야 한다.

서울전입 청년 1인가구 웰컴박스 *Seoul NEW*

서울에 처음 이사 온 1인가구 청년의 독립을 돕고자 생활에 필요한 서울시 정책 소개 책자, 식기세트, 홈트레이닝 세트 등으로 구성된 웰컴박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내 서울시로 전입신고한 만 19-29세 1인가구 청년이며, 서울청년포털에서 신청하면 집으로 배송해준다.

4

걱정없이 혼자 살기, 경제와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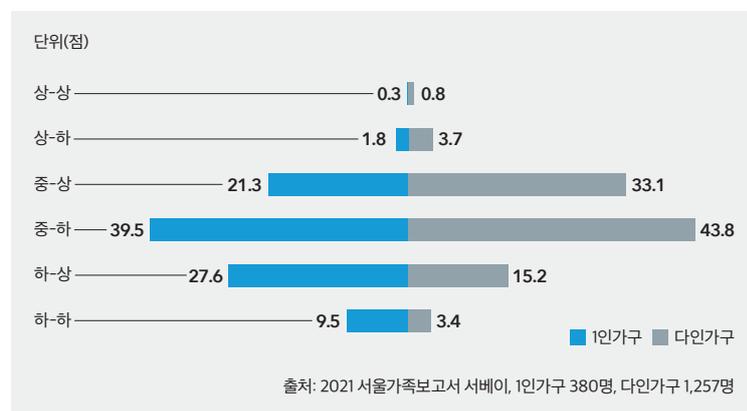


1인가구 경제생활 2021 Seoul Family Survey

1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하층, 하-상층이라 생각하였으며, 다인가구보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살펴본 결과, 39.5%가 중-하층으로 인식하였으며, 하-상층은 27.6%, 하-하층은 9.5%였다. 주로 중-하층(43.8%)과 중-상층(33.1%)으로 인식하는 다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가 인식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는 낮았다.

1인가구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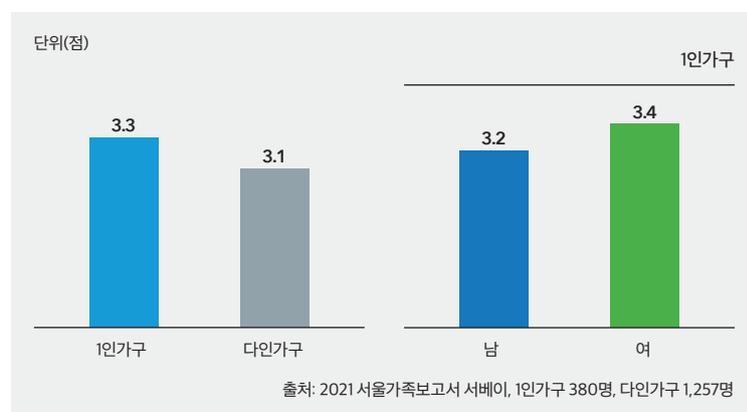


1인가구의 경제적 불안감 2021 Seoul Family Survey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경제적 불안감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1인가구의 경제적 불안감은 평균 3.3점(범위: 1-5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그러나 다인가구(3.1점)에 비해 1인가구의 경제적 불안감이 높았다. 성별에 따르면 여성 1인가구(3.4점)의 경제적 불안감은 남성 1인가구(3.2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1인가구 성별 경제적 불안감



서울시 1인가구 및 청년을 위한 서비스

1.

일자리 제공 서비스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Seoul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들이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기후환경을 포함한 미래전략 분야와 청년지원서비스, 사회적경제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분야 기업에 청년을 연결해줌으로써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출처: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

서울형 뉴딜일자리 Seoul

참여자가 사업 동안 기술·직무교육 등 취업역량을 키우고, 사업 참여 후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서비스이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이다.



출처: 서울일자리포털 홈페이지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Seoul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교육과정과 실무중심의 인턴십 과정을 제공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이하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일기(도시청년 지역상생일자리 사업) Seoul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소재 기업 또는 대학(원)에 다니는 만 19-39세 청년이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8개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2.

취업 지원 서비스

서울시 일자리 카페 Seoul

전문 상담, 멘토링, 취업특강 등을 제공하여 청년이 취업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이다. 만 15-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p>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 청년 특화공간,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입니다. 서울시 중구 무료 만 15세 - 만 39세 청년대상</p>	 <p>LH남부권주거복지지사 마더룸 같이 편안한 서울시 일자리 카페입니다. 취업... 서울시 강남구 무료 만 15세 - 만 39세 청년대상</p>
 <p>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청년들이 내일을 위해 상상하고 나누고 배우는 청년... 서울시 구로구 무료 만 15세 - 만 39세 청년대상</p>	 <p>동대문도서관 동대문구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정책 강화를 위한... 서울시 동대문구 무료 만 15세 - 만 39세 청년대상</p>
 <p>동부여성발전센터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연결을 만들어가는 공간 서울시 광진구 무료 만 15세 - 만 39세 청년대상</p>	 <p>헝스터디카페건대점 청년들의 공을 응원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광진구 무료 만 15세 - 만 39세 청년대상</p>
 <p>루아오피스 시작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공존을 통해 시너지... 서울시 마포구 무료 만 15세 - 만 39세 청년대상</p>	 <p>비즈액티브 신림 비즈액티브는 예비창업자, 청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서울시 관악구 무료 만 15세 - 만 39세 청년대상</p>

일자리 부르릉: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Seoul

취업 및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서울시 여성들이 많은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1:1 맞춤형 취업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총 2대의 버스가 현장을 찾아가고 있다.



3.

취업 관련 경제적 지원

청년 수당 Seoul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수당으로,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생애 1회 지급된다.

4.

기타 지원 서비스

아래의 기타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4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형 긴급 지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서울시 50+ 보람 일자리
		

V

서울가족의 변화와 미래

1. 변화하는 서울가족
2. 서울가족의 기대와 미래
3. 서울시 가족정책의 지향



카드뉴스 서울가족의 변화와 미래

#5
서울가족의 변화와 미래

2021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서울시민의 생각은 어떨까요?

#5
서울가족의 변화와 미래

서울에는 다양한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 다양한 가족 모습

평균 가구원 수 2.3명	부부+비혼자녀 가구 비율 28.3%	다문화가구 수 69,790가구
1인가구 비율 33.9%	합계출연율 0.64명	변리등록 보유 가구수 20%

#5
서울가족의 변화와 미래

서울시민은 가족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수용 정도 (단위: %)

다문화 가족	39
1인가구	36
가족으로 지어낸 연인관계	35
홀로 영유아 키우기	35
1인가구 공동체	34
생활양식에 상관 없이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31
홀거	31
핵심가족만	28
변리등록	25

#5
서울가족의 변화와 미래

'서울별별가족이야기'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세요!

1.

변화하는 서울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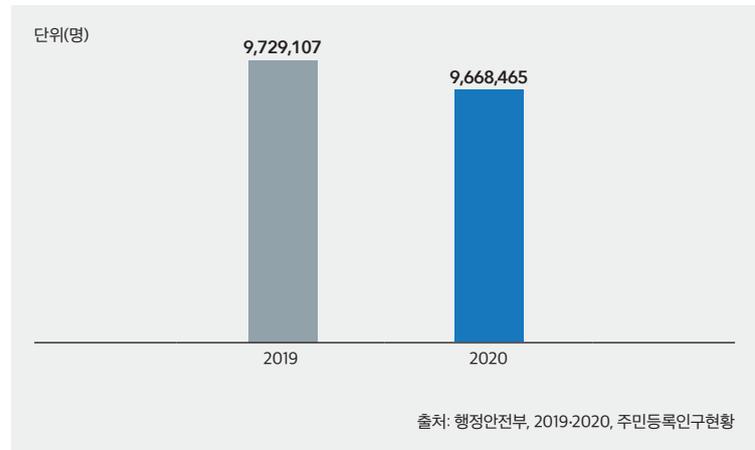


1) 서울시 가족 현황

서울시 총 인구 수

2020년 서울시에는 총 **9,668,465명**이 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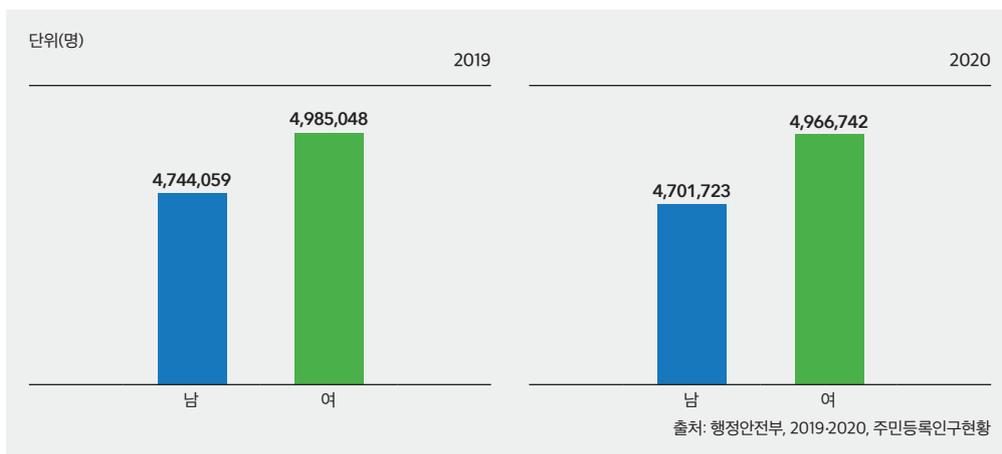
2020년 기준 서울시에는 총 9,668,465명이 살고 있으며, 2019년 9,729,107명과 비교해 약 60,000명이 감소하였다(행정안전부, 해당연도). 서울시 총 인구는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서울시 성별 인구 수

2020년 서울시에는 **남성 4,701,723명, 여성 4,966,742명**이 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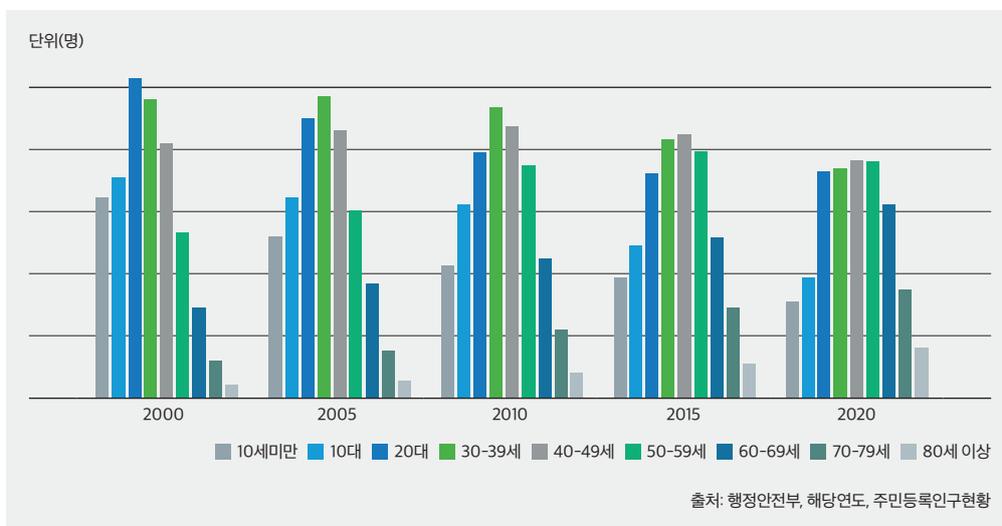
2020년 기준 서울시 인구 중 남성은 총 4,701,723명으로 2019년 4,744,059명과 비교해 약간 감소하였고, 여성은 2020년 4,966,742명으로 2019년 4,985,048명에서 약간 감소하였다(행정안전부, 해당연도). 서울시의 남녀성비(여자 100명당 남자 수)는 2020년 기준 94.7로, 전국에서 남성 대비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다.



서울시 연령대별 인구 수

2020년 서울시에는 **40대 인구가 1,528,182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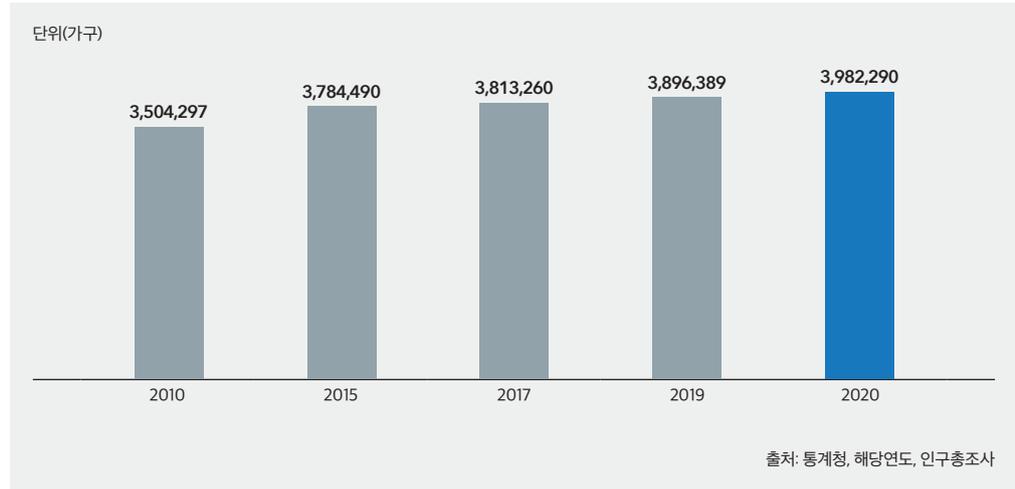
2020년 기준 서울시 연령대별 인구는 40대가 1,528,182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시 전체 인구의 15.8%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50대 1,523,556명(15.8%), 30대 1,475,106명(15.3%), 20대 1,460,411명(15.1%), 60대 1,243,954명(12.9%) 순이다(행정안전부, 2020). 2000년에는 20대가, 2005년과 2010년에는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2015년부터는 계속 4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해당연도).



서울시 총 가구 수

2020년 서울시에는 **3,982,29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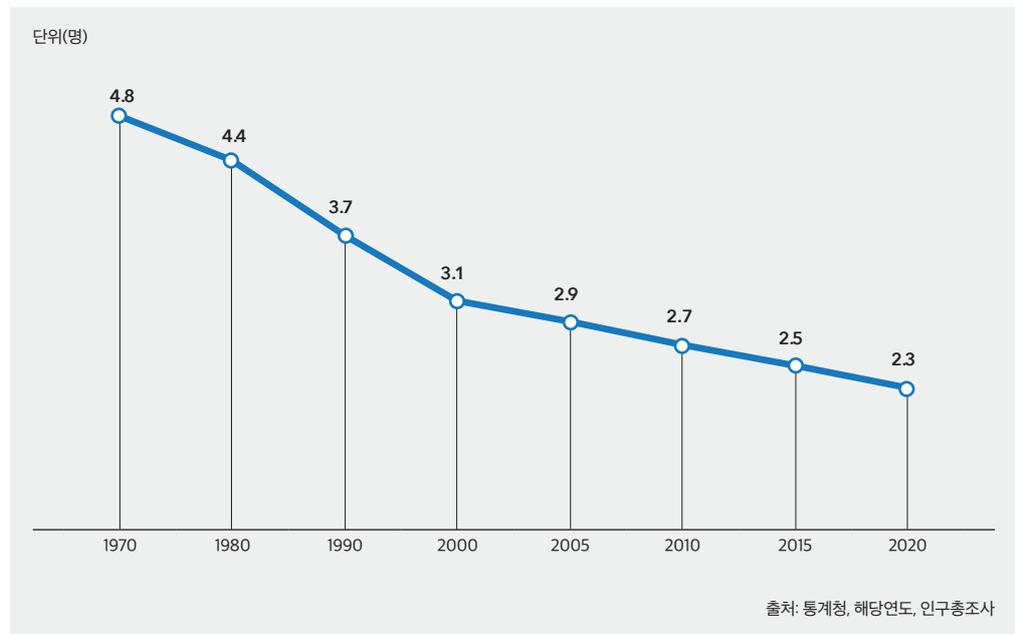
2020년 서울시 가구 수는 3,982,290가구로 2019년 3,896,389가구와 비교해 2.2% 증가하였다. 서울시의 인구 수 감소와 달리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가구 규모가 작아지면서 가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해당연도).



서울시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2020년 서울시에는 가구당 **평균 2.3명**이 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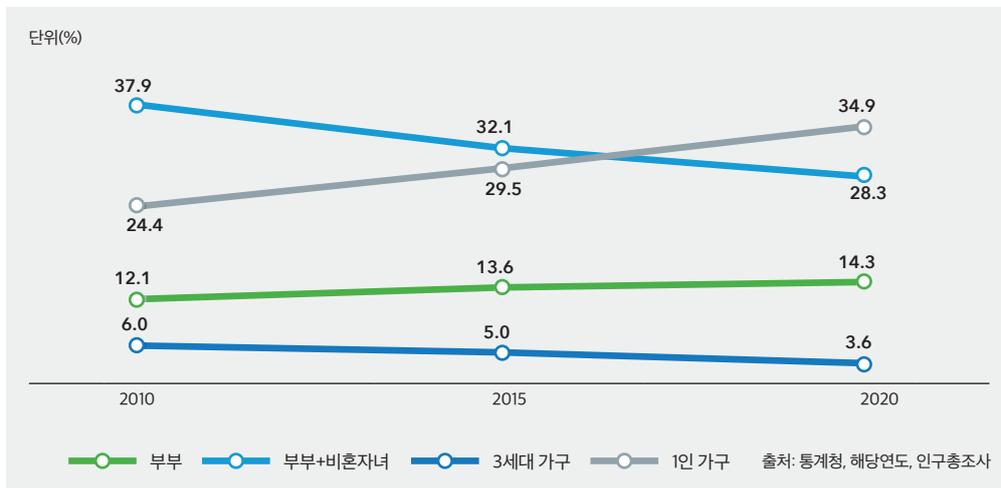
2020년 서울시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3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통계청, 해당연도).



서울시 가구형태별 가구 수

2020년 서울시 가구 중 **1인가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부와 비혼자녀 가구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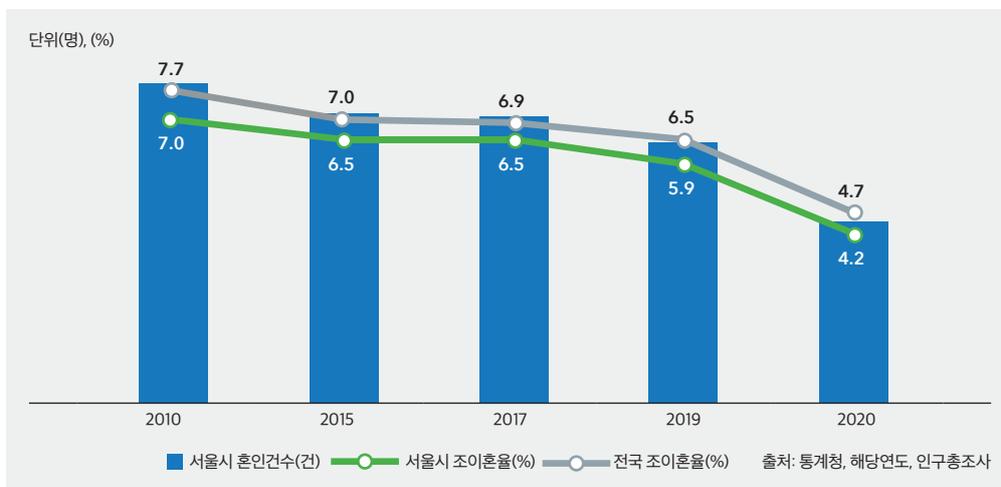
2020년 기준 서울시 가구는 1인가구가 1,390,701가구(34.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부와 비혼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1,127,169가구(28.3%)로 많다. 2010년 이후 서울시의 가구형태별 가구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인가구는 2010년에 24.4%였으나 2017년부터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통계청, 해당연도). 부부와 비혼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2020년 기준 28.3%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혼인건수와 조혼인율

2020년 한 해 서울시에서 **44,746쌍이 결혼**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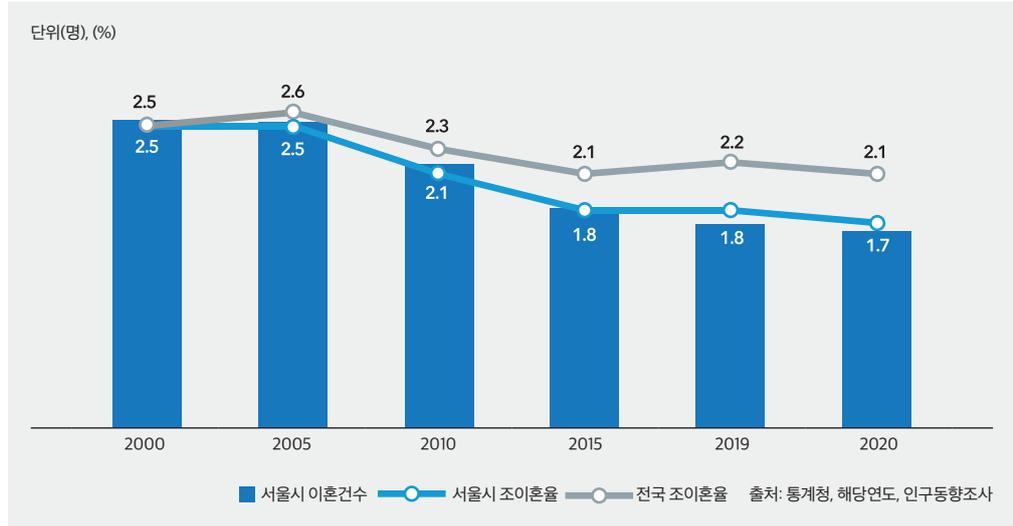
2020년 기준 서울시의 혼인건수는 44,746건으로 2012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통계청, 해당연도). 혼인건수 감소에 따라 인구 1,000명당 해당연도 혼인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4.7%로 나타났으나, 전국 평균인 4.2%보다는 높다.



서울시 이혼건수와 조이혼율

2020년 한 해 서울시에서 **16,282쌍이 이혼**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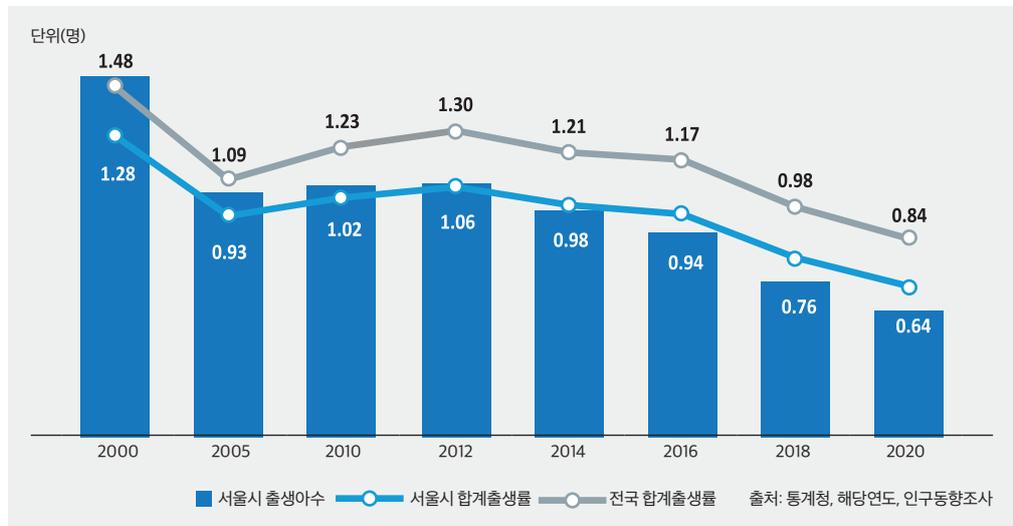
2020년 기준 서울시 이혼건수는 16,282건으로 2019년 16,972건과 비교해 약간 감소했다(통계청, 해당연도). 인구 1,000명당 해당 연도 이혼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은 2020년 1.7%로, 전국 평균 2.1%보다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 출생아 수와 합계출생률

2020년 서울시의 **합계출생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0.64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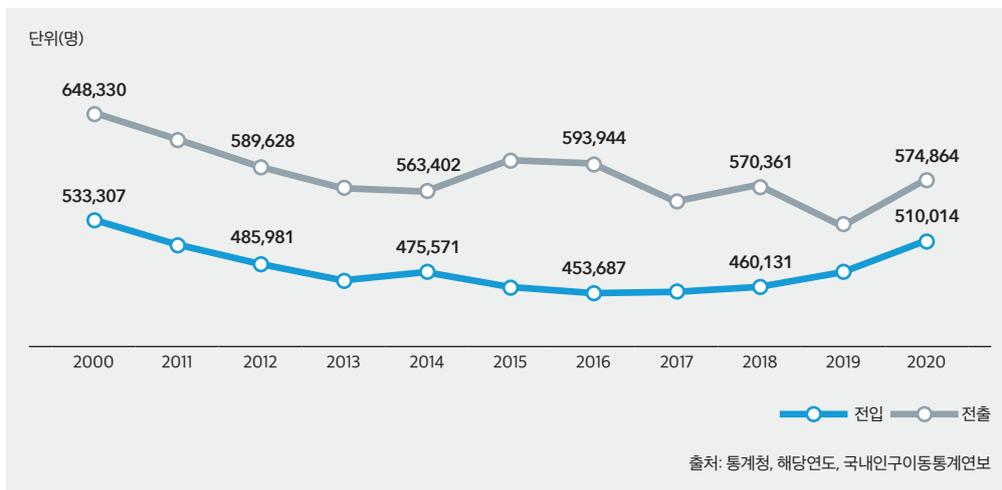
2020년 기준 서울시 출생아 수는 47,40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통계청, 해당연도).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합계출생률은 2016년 0.94명으로 1.0명대 이하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0.64명으로 감소하였다.



서울시 전입 전출 현황

2020년 한 해 서울시 전입 인구는 510,014명, 전출 인구는 574,864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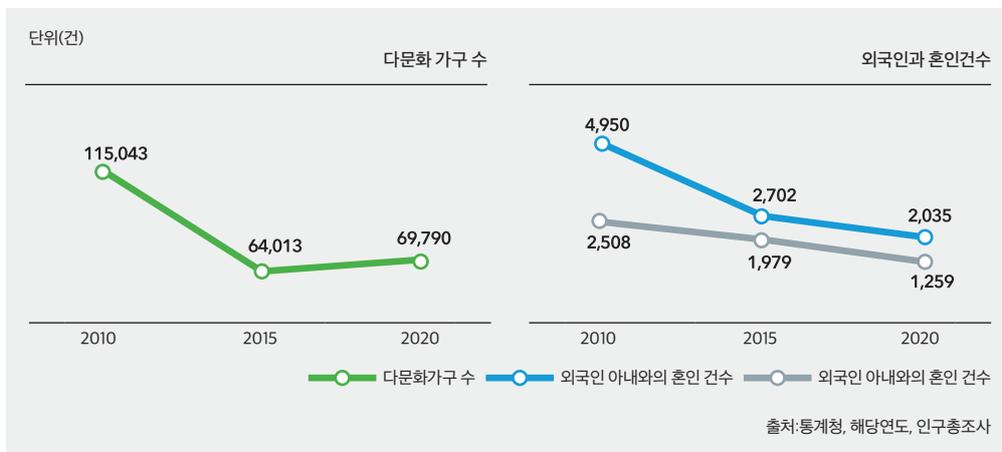
2020년 기준 서울시의 전입 인구는 510,014명, 전출 인구는 574,864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입 인구의 경우 2017년부터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전출 인구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2019년과 비교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통계청, 해당연도).



서울시 다문화가구 수 및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2020년 서울시에는 **다문화가족 69,790가구가 살고 있으며,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3,294건**입니다.

2020년 기준 서울시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구(국제결혼가족 및 외국인가족) 수는 69,790가구이다(통계청, 해당연도). 서울에서 혼인신고한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2020년 기준 3,294건이다. 그 중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혼인건수는 2,035건이며,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중국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베트남, 일본, 태국 순이다.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결혼은 1,259건이며,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미국, 중국 순으로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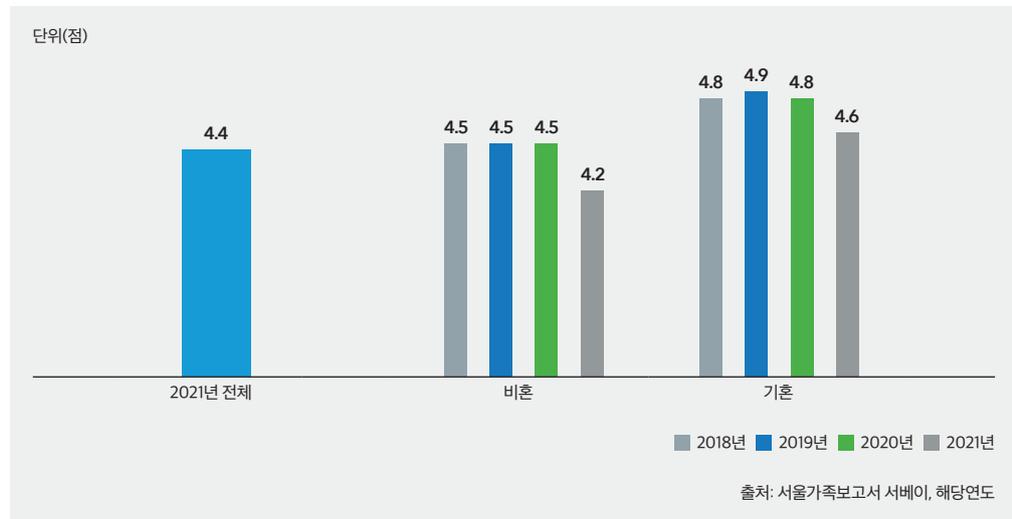
2) 서울시민의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족의 중요성 *2021 Seoul Family Survey*

가족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한 2021년 서베이 결과는
지난 3개년과 비교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비혼자보다
기혼자가 가족의 중요성을 더 높게 느끼는 경향은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귀하의 가족은 귀하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평균 4.4점(범위: 1-5점)으로, 서울시민은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혼인여부에 따라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2021년 기준 기혼자는 4.6점, 비혼자는 4.2점으로 기혼자가 비혼자보다 가족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2021년 이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가족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다소 낮아졌다.

연도별 혼인여부에 따른 가족의 중요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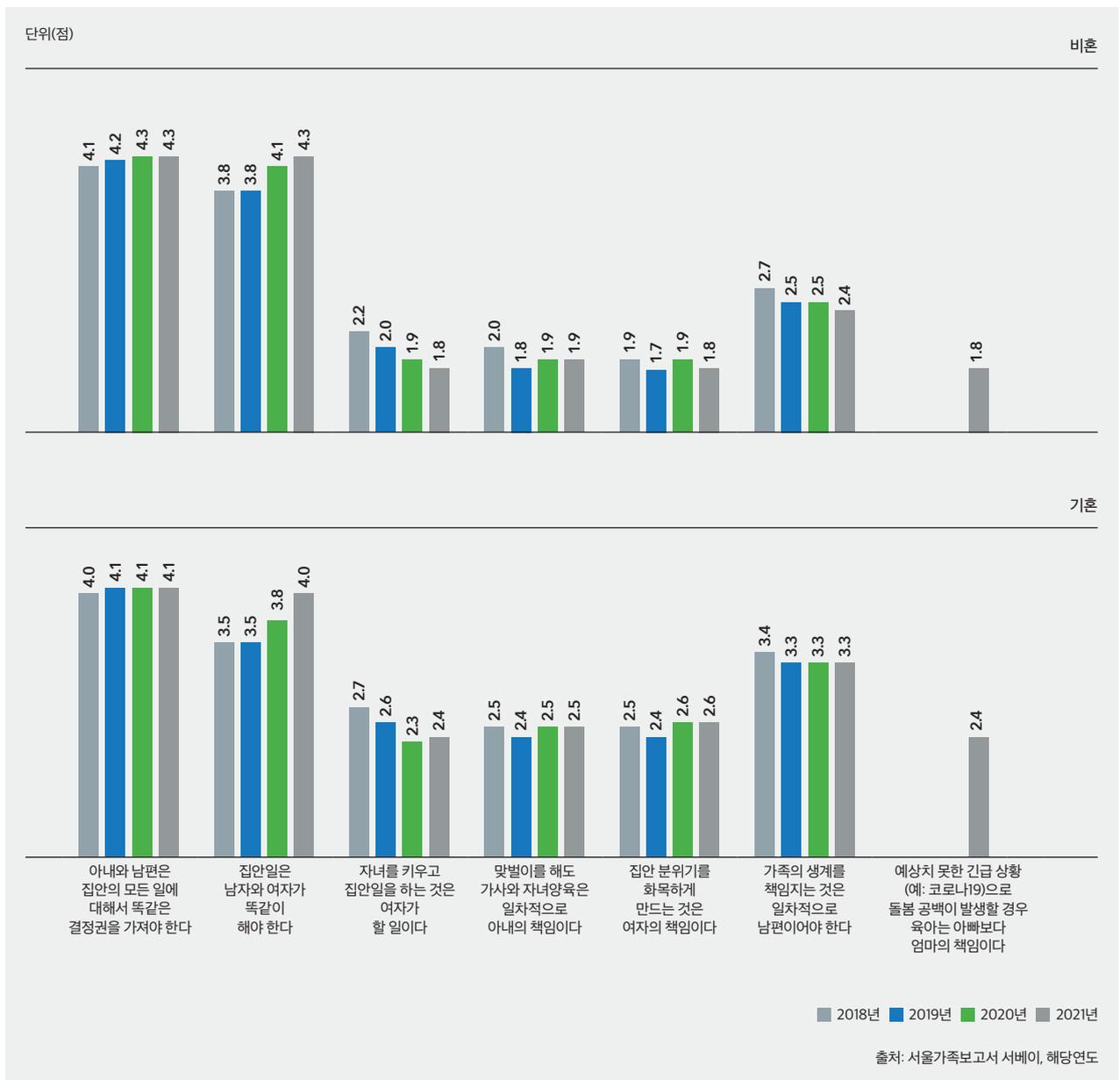


가정 내 성역할에 대한 태도 *Seoul Family Survey*

가정 내 성역할에 대한 서울시민의 태도는 성평등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혼자와 비교해 비혼자의 성역할 태도가 더욱 평등한 편입니다.

가정 내 성역할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평등한 성역할과 관련하여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등 2개 문항과, 전통적인 성역할과 관련하여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것은 여자가 할 일이다' 등 5개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범위: 1-5점)를 질문하였다. 또한 2021년 조사에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육아는 아빠보다 엄마의 책임이다' 문항을 추가하였다. 4개년 서베이 비교 결과, 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동의 정도는 증가하고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동의 수준은 감소하여 서울시민의 가정 내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평등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혼인여부에 따른 가정 내 성역할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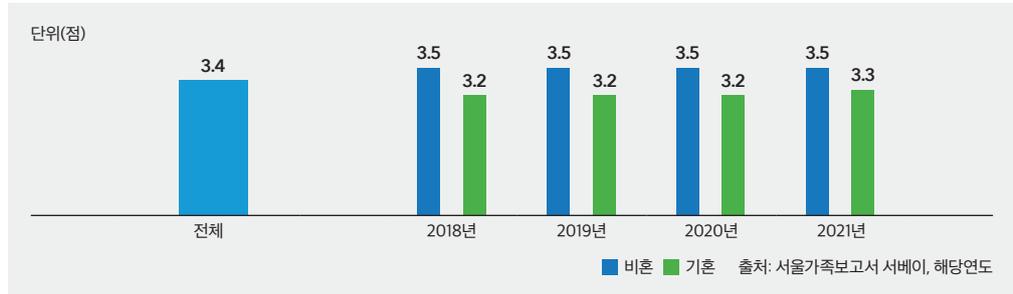


부모 부양에 대한 생각 *Seoul Family Survey*

서울시민들은 4개년 조사에서 **일관되게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에 대한 동의 수준이 보통보다 약간 높았으며, 기혼자보다 비혼자가 더 높은 수준으로 동의했습니다.**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동의하는 수준은 전체 평균 3.4점(범위: 1-5 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았다. 비혼자는 3.5점, 기혼자는 3.3점으로 비혼자가 기혼자보다 나이 든 부모에 대한 경제 부양에 동의하는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혼인여부에 따른 부모부양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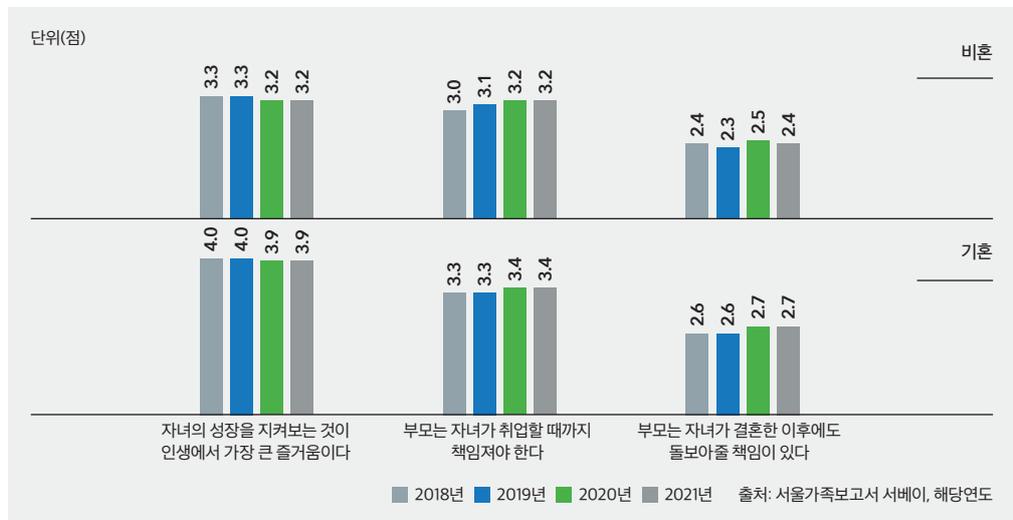


자녀양육에 대한 생각 *Seoul Family Survey*

비혼자보다 **기혼자가 자녀양육에 대해 더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으며 책임의식도 더 높습니다.**

서울시민의 자녀양육에 대한 생각을 살펴본 결과,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에 대해 2021년 기준 기혼자는 평균 3.9점(범위: 1-5점)으로 비혼자(3.2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다. 4개년도 서베이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부모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와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돌봐줄 책임이 있다’는 부모의 책임을 묻는 문항에서도 기혼자의 동의 수준이 비혼자보다 높았다.

혼인여부에 따른 자녀양육 인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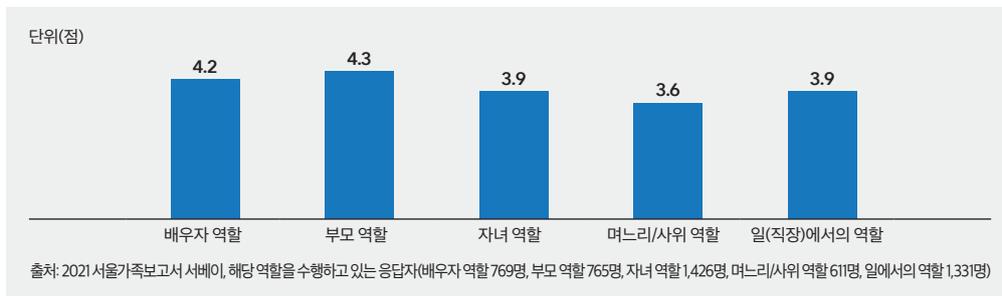


가족 내 역할별 중요도 2021 Seoul Family Survey

서울시민은 여러 역할 중 **부모 역할과 배우자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에게 '배우자 역할', '부모 역할', '자녀 역할', '머느리/사위 역할', '일(직장)에서의 역할' 중 자신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질문한 결과, 모든 역할에 대해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응답하여 해당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 역할'은 평균 4.3점(범위: 1-5점)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다음으로 '배우자 역할'이 4.2점 순으로 나타나 가족 역할 중 부모 및 배우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역할별 중요성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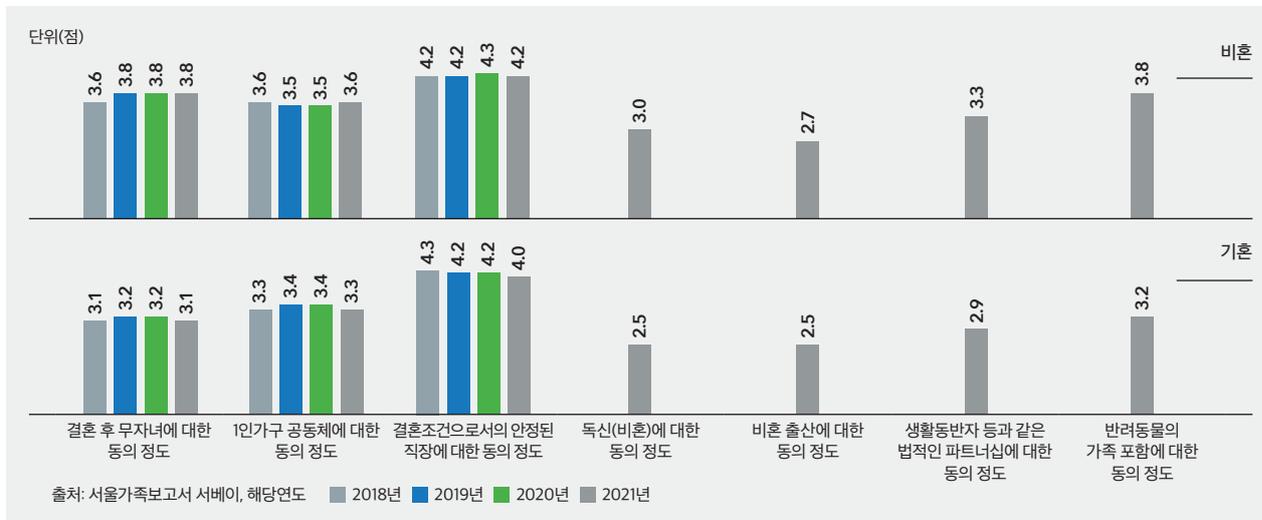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태도 Seoul Family Survey

서울시민의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태도는 **삶의 방식에 따라 동의 수준이 상이하**였으나, 기혼자보다 **비혼자가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수용 정도가 더 높**았습니다.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질문 중 '결혼 후 무자녀 부부', '1인가구 공동체', '결혼조건으로서의 안정된 직장', '생활동반자 등과 같은 법적 파트너십', '반려동물의 가족 포함'에 관한 진술에 대한 동의 수준은 중간 이상으로 비교적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으나, '비혼 출산'에 대한 동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혼인여부별 차이를 살펴보면, '비혼', '결혼 후 무자녀 부부', '1인가구 공동체', '비혼 출산' 등 대부분의 문항에서 기혼자보다 비혼자의 동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결혼조건으로서의 안정된 직장'에 대한 동의 정도는 기혼자보다 비혼자의 동의 수준이 높았다.

혼인여부에 따른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태도



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1.

다양한 가족 이해교육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별별가족이야기

서울에 사는 다양한 가족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소개를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해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모바일로 간편하게!
... 서울별별가족이야기 보는 방법 ...

STEP1

유튜브에서 '서울별별가족이야기' 검색하기

STEP2

원하는 이야기를 시청하고, 감상평 남기기

STEP3

남긴 감상평을 캡처한 후 이벤트 페이지 접속!

1회 나는 고향이 없습니다.

2회 소꿉주물 아십니까?

3회 20세, 싱글영 Vlog

4회 1인거주, 우리도 가족입니다.

*게시물 하단에 영상 바로가기 링크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SEOU U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출처: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oufamilyc/222364413661>

2.

세상모든가족함께 캠페인

여성가족부 약속 챌린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인식 확산을 위한 SNS 캠페인을 통해 세상 모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상모든가족 함께하기로, 약속해요!
#약속챌린지

약속챌린지란?
우리 주변의 모든 다양한 가족들을 편견 없이 존중할 것을 약속하는 대국민 캠페인으로 우리 사회의 가치 다양성을 포용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여방식

1. 약속을 뜻하는 수어동작 사전보기
*2인 1세대 시를 약속하는 손동작으로도 참여 가능
2. 약속에 대해 남기기 #세상모든가족함께하기로, 약속해요!
3. 필수 해시태그 남기기 #세상모든가족함께 #약속챌린지
4. 함께 약속할 친구 지목
*약속챌린지를 함께 하고 싶은 친구(2명) 2인 이상 태그(인스타그램 일련번호)

1인 참여 시

2인 참여 시

챌린지에 참여하신 분들 중 일부에게 "약속반지"를 드립니다
8월-11월 챌린지 참가자 분들에게는 약속반지를 드립니다!
*약속반지는 다양한 색상과 모양이 연결되어 하나의 반지가 되듯, 다양한 모습의 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여성가족부 **행동중심** 캠페인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88439>

주민등록법 시행령: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도자료(2021년 7월 4일)를 통해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통해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에서 '부', '모', '자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 7. 4).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5445#none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부모 지원 근거 최초 마련

정부는 자녀양육, 생계, 학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세 미만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 변경 및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2021년 3월 23일 일부 개정하였다. 양육하는 부모 모두 청소년(24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부모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방문건강관리·상담 등 '가족지원서비스'와 생활·의료·주거 등 '복지지원',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출처: 청소년복지 지원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0447&viewCls=lsRvsDocInfoR#>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한국 국적의 아동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 지원

정부는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 관리 등 절차를 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021년 4월 13일 공포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이 모 또는 부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다.

출처: 여성가족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229951675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시행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의 절차, 대상과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1년 7월 13일 일부개정되었다. 이번 시행령은 2020년 6월과 2021년 1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7월 13일 이후에는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감지명령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정지요청과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253>

2.

서울가족의 기대와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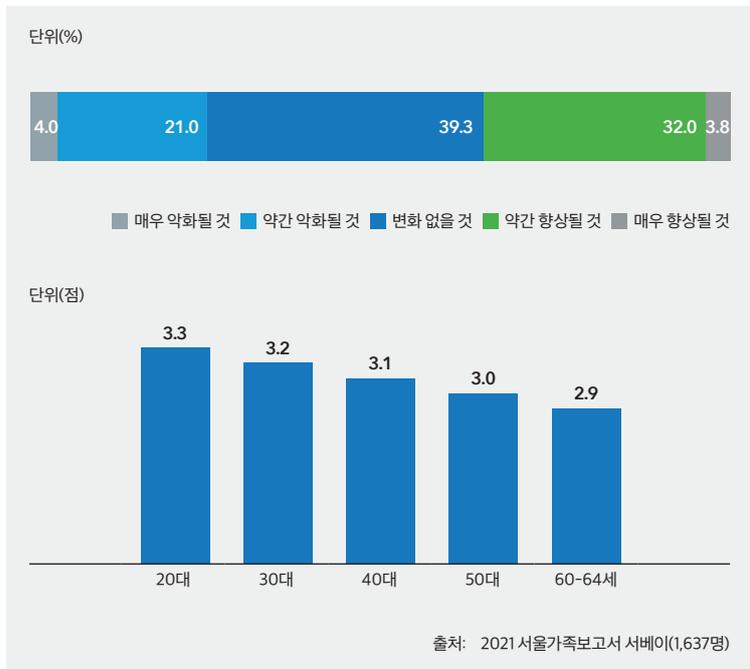
1) 서울가족의 기대

1-2년 후 삶의 여건에 관한 기대 2021 Seoul Family Survey

20대의 1-2년 후 삶의 여건에 대한 기대가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2년 후 귀댁의 삶의 여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서울시민의 39.3%는 ‘변화 없을 것’으로 응답하였고, ‘향상될 것’(약간 향상될 것+매우 향상될 것)이 35.8%로 ‘악화될 것’(약간 악화될 것+매우 악화될 것) 25.0%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의 기대가 평균 3.3점(범위: 1-5점)으로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여건에 대한 기대가 유의하게 낮아졌다.

연령대별 1-2년 후 삶의 여건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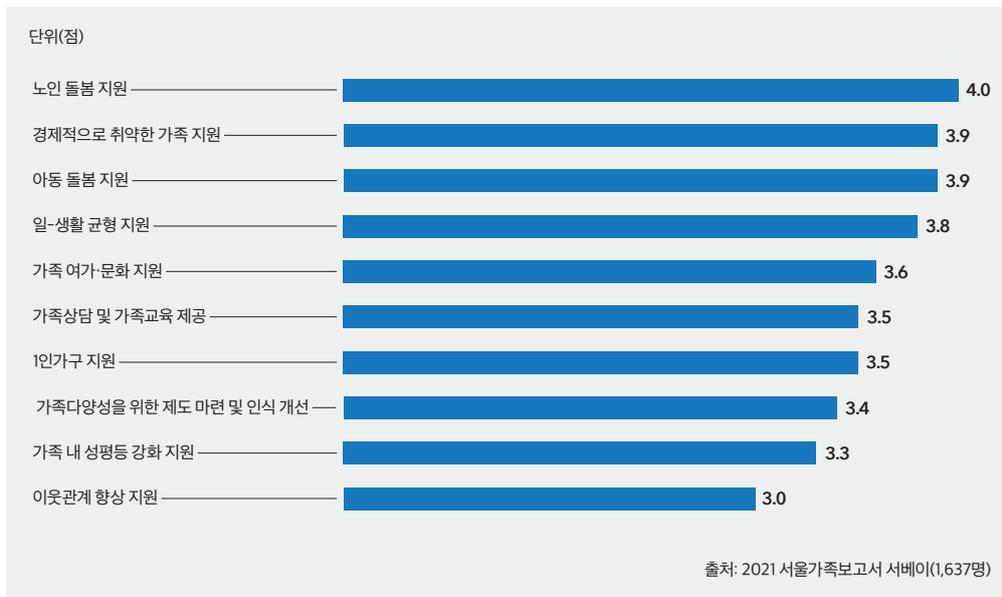


가족서비스 요구도 2021 Seoul Family Survey

서울시민은 '노인 돌봄 지원'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서비스에 대한 영역별 요구도를 살펴본 결과, 서울시민들은 '노인 돌봄 지원'(평균 4.0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범위: 1-5점).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족 지원'(3.9점), '아동 돌봄 지원'(3.9점), '일-생활 균형 지원'(3.8점), '가족 여가·문화 지원'(3.6점),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제공'(3.5점) 순으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영역별 가족서비스 요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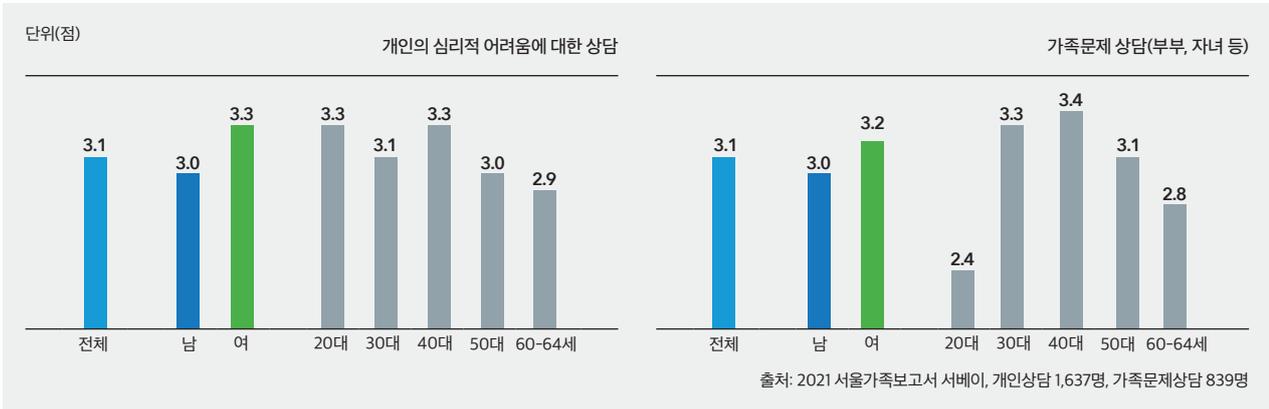


상담서비스 이용 의향 2021 Seoul Family Survey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의향은 20대와 40대가 높았으며, 가족문제 상담 의향은 40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시민이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 및 '가족 문제 해결(부부, 자녀 등)'을 위해 개인 및 가족 전문상담을 받을 의향은 전체 평균 3.1점(범위: 1-5점)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 및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의향이 모두 높았다. 연령대별 상담 의향을 살펴보면,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은 20대와 40대의 의향이 높았고, '가족문제 상담' 의향은 40대가 3.4점으로 가장 높았다.

성별, 연령대별 상담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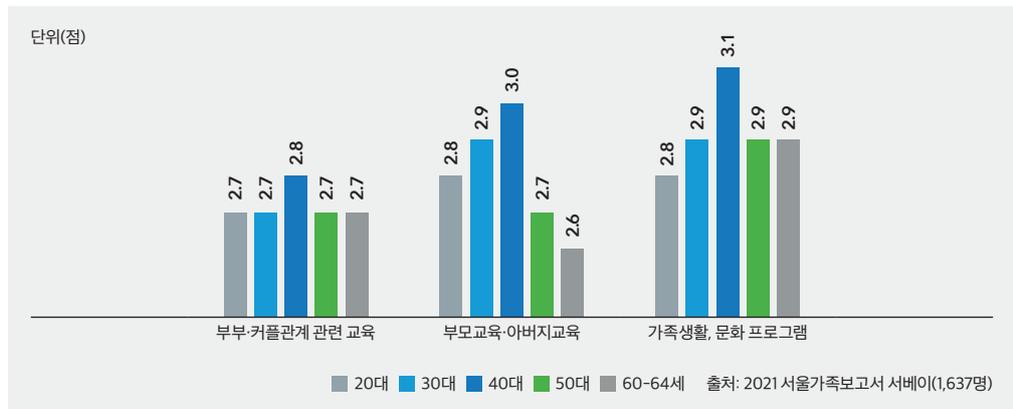


가족교육서비스 이용 의향 2021 Seoul Family Survey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40대 서울시민의 '부모교육/아버지교육', '가족생활·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가족교육 참여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부·커플관계 관련 교육', '부모교육·아버지교육', '가족생활·문화 프로그램'과 같은 가족교육 참여와 관련한 서울시민의 의향은 전반적으로 보통보다 다소 낮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부모교육·아버지교육'과 '가족생활·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40대의 교육참여 의향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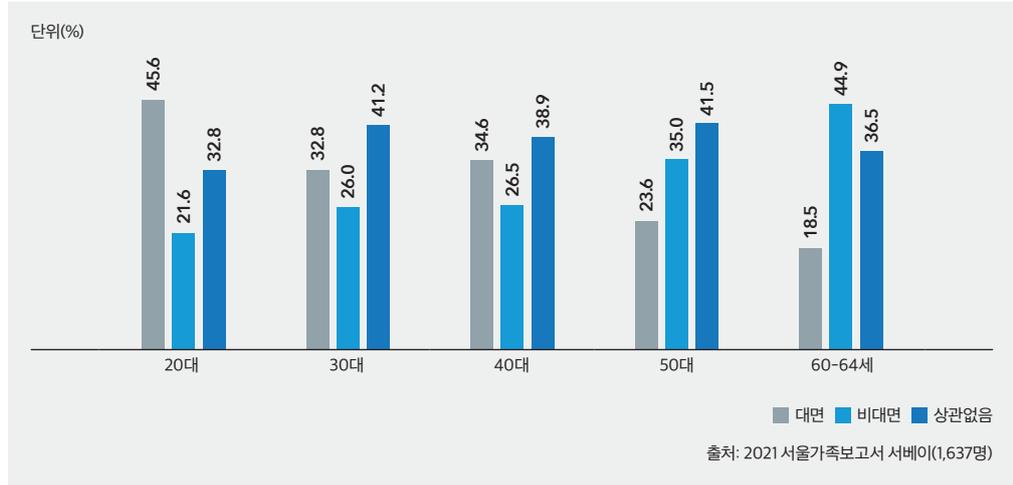
연령대별 가족교육 참여 의향



20대는 대면 가족상담을 선호하였으나,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비대면 가족상담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 가족상담 서비스 제공 형태 선호도를 살펴보면, 20대는 '대면 가족상담'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45.6%로 가장 높았고, 30대-40대는 '상관없음'이 가장 많았으나 '비대면' 보다는 '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60대는 '비대면', '상관없음'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60대의 경우 '비대면 가족상담'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44.9%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비대면 가족상담'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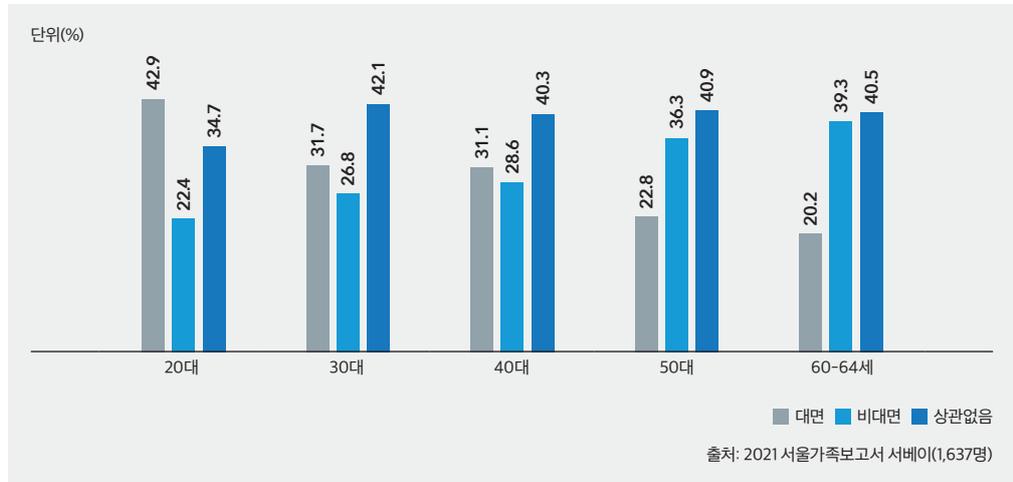
연령대별 가족상담 서비스 제공 형태 선호도



20대는 대면 가족교육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고, 30-50대는 '상관없음'이 가장 높았습니다.

연령대별 가족교육 서비스 제공 형태 선호도를 살펴보면, 20대는 '대면' 서비스를 가장 선호하였고, 30대-60대는 대면이나 비대면 '상관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흥미롭게도 가족교육에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령대별 가족교육 서비스 제공 형태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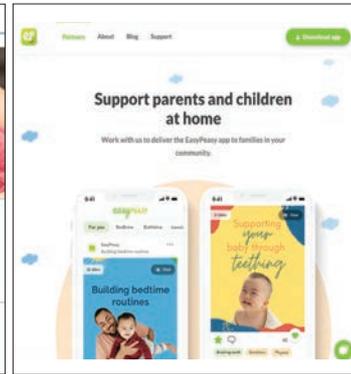
1.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가족서비스



호주 | Triple P Online

영국 | EasyPeasy App



이용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및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가족서비스가 여러 국가에서 제공되고 있다. 호주의 Triple P Online(Positive Parenting Program Online)은 온라인에서 부모가 스스로 학습하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이 프로그램은 주요 양육기술에 대해 상호작용 중심 학습(interactive instruction)을 제공하고 관련된 내용의 학습이 마무리된 후 다음 모듈로 이동할 수 있다. Triple P Online은 부모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태도 향상, 자녀의 문제행동 감소 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영국의 EasyPeasy 앱은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돕기 위한 정보와 양육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 양육 팁을 제공하는 등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온라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충실성 측면에서 장점을 갖지만, 교육 참여자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내용 민감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매체 접근성이 낮은 가족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와 같은 상황에서 온라인 서비스는 확대될 수 밖에 없으므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온라인 서비스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출처: EasyPeasy App: <https://www.easypeasyapp.com/partners>

Triple P Online: <https://www.triplep-parenting.net/global/get-started/online-parenting-course-toddlers-to-twee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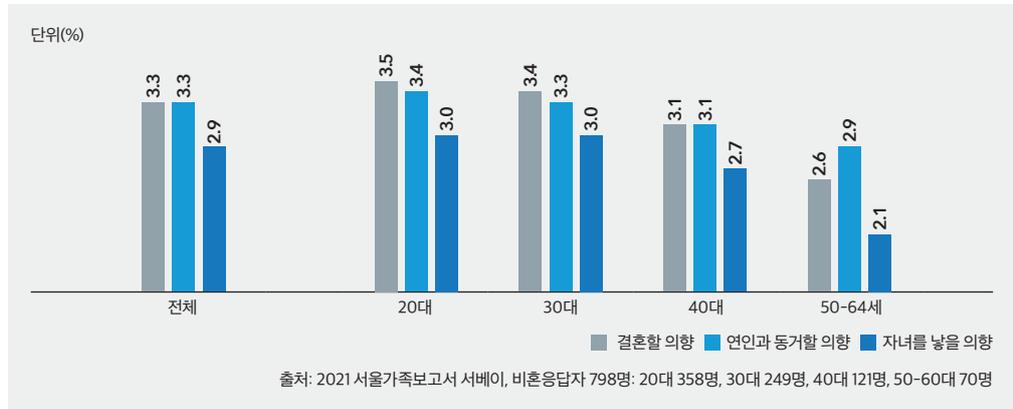
2) 서울가족의 미래

비혼자의 가족형성 의향 2021 Seoul Family Survey

비혼자의 결혼 의향과 연인과의 동거 의향은 보통보다 높았으나, 자녀를 낳을 의향은 중간보다 낮았습니다. 비혼자의 가족형성 의향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졌습니다.

비혼 응답자를 대상으로 결혼, 동거, 자녀 출산 등 '가족형성 의향'을 질문한 결과, '결혼할 의향'과 '연인과 동거할 의향'은 각각 평균 3.3점(범위: 1-5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자녀를 낳을 의향'은 2.9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40대는 '결혼할 의향'과 '연인과 동거할 의향'이 유사했으나, 50-64세의 경우 '결혼할 의향'보다 '연인과 동거할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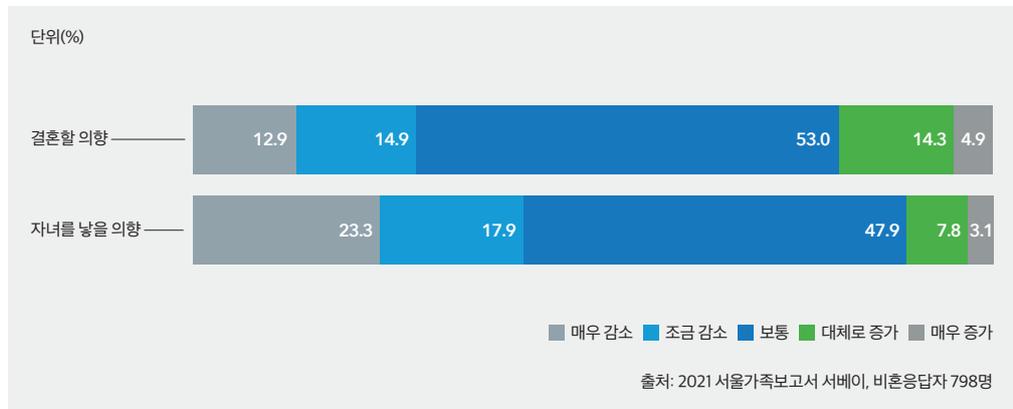
연령대별 가족형성 의향



코로나19 이후 결혼 의향은 27.8%, 자녀 출산 의향은 41.2% 감소하였습니다.

비혼자의 결혼 및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이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27.8%가 '결혼할 의향'이 감소(매우 감소+조금 감소)했다고 보고하였으며, '자녀를 낳을 의향'은 41.2%가 감소(매우 감소+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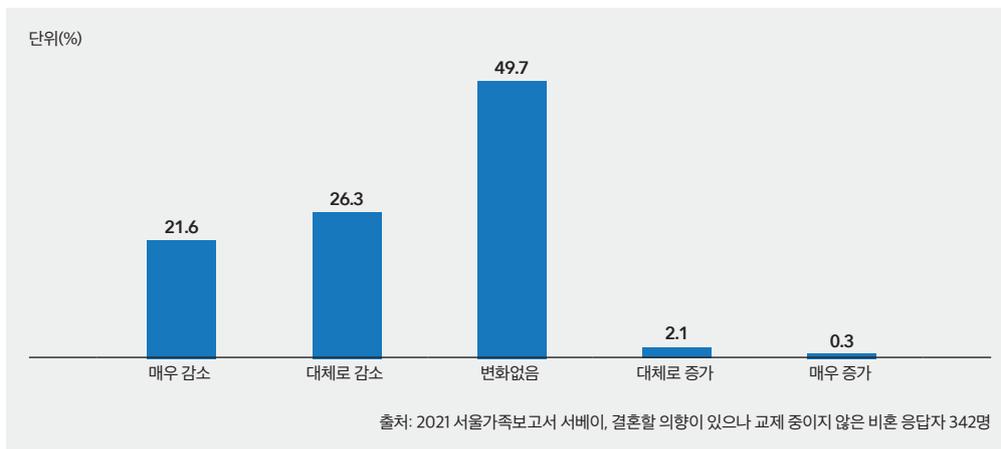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결혼 및 자녀 출산 의향



코로나19 이후 47.9%가 새로운 교재 상대를 만나거나 소개받은 횟수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비혼자 중 결혼할 의향이 있으나 현재 교재 중인 사람이 없는 응답자 34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새로운 교재 상대를 만나거나 소개받은 횟수의 변화 정도'를 질문하였다. 새로운 교재 상대를 만나거나 소개받은 횟수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49.7%로 가장 많았으나, '감소(매우 감소+대체로 감소)하였다'는 응답 또한 47.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교재 상대 소개 및 만남 횟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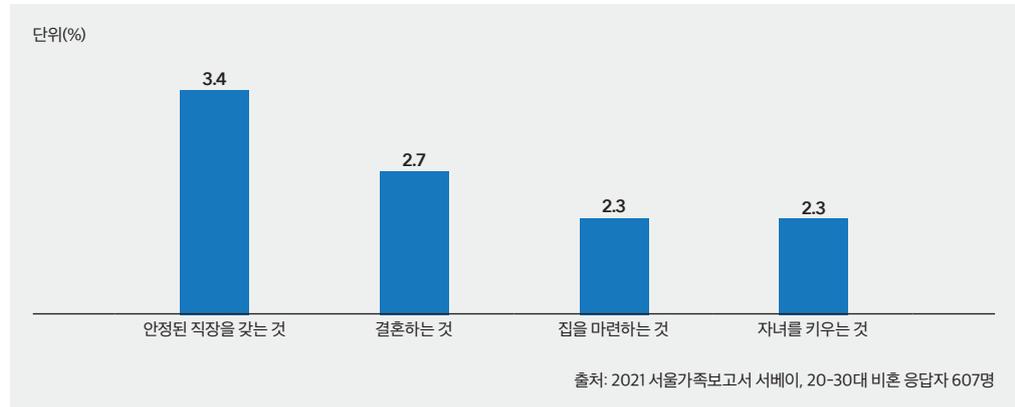


비혼자의 생애 전망 2021 Seoul Family Survey

20-30대 비혼자들은 결혼, 내 집 마련, 부모됨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20-30대 비혼 응답자들에게 '귀하의 삶에서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 결혼하는 것, 집을 마련하는 것, 자녀를 키우는 것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한 결과,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은 평균 3.4점(범위: 1-5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다고 전망한 반면, 결혼(2.7점), 내 집 마련(2.3점), 출산(2.3점)의 가능성은 보통보다 낮게 전망하였다.

20-30대 비혼자의 취업, 결혼, 내 집 마련, 부모됨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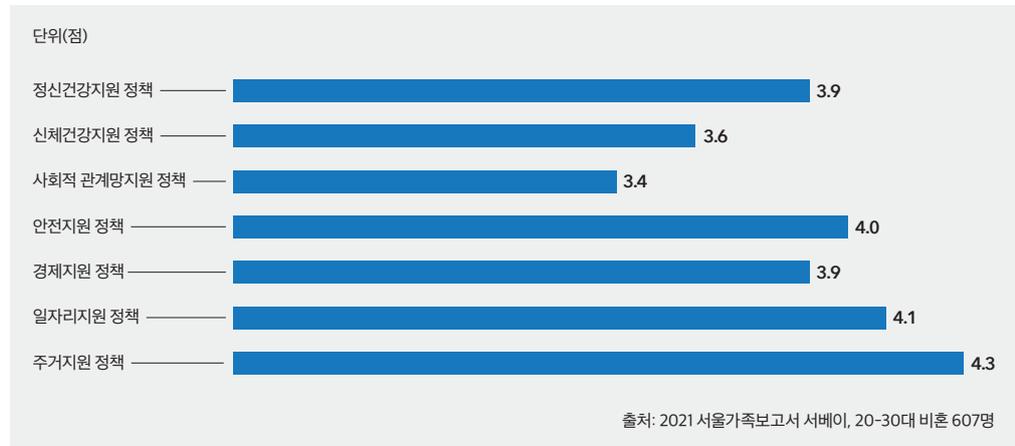


1인가구 지원정책 요구도 2021 Seoul Family Survey

1인가구 지원정책 중 주거지원 정책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39세 이하 비혼 응답자에게 '1인가구 관련 정책의 필요 정도'를 질문한 결과,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평균 4.3점(범위: 1-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자리지원 정책'(4.1점), '안전지원 정책'(4.0점), '경제지원 정책'(3.9점), '정신건강지원 정책'(3.9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인가구 정책 요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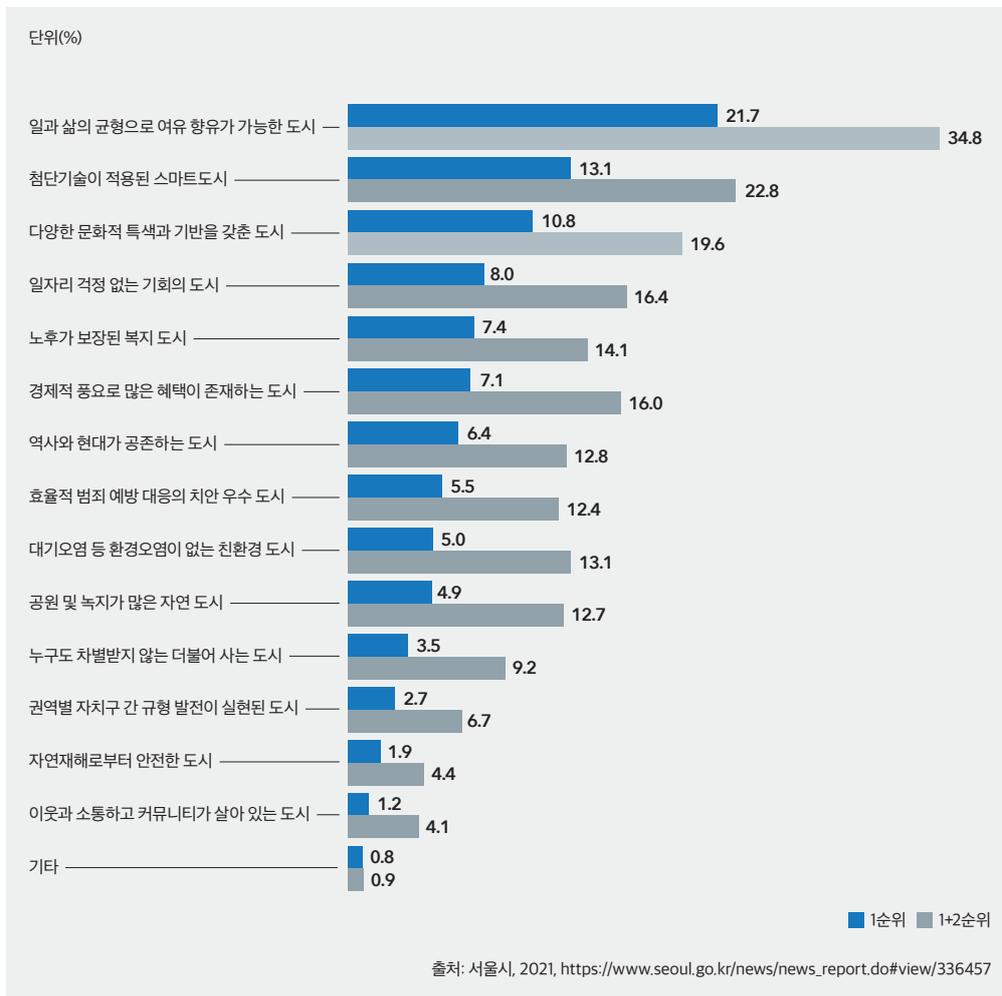


서울시민이 바라는 2030년 서울의 미래

서울시민이 10년 후 바라는 **서울의 미래상**은 **‘일과 삶의 균형으로 여유 향유가 가능한 도시’**입니다.

2020년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미래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서울시, 2021), 향후 10년 후 원하는 서울시 미래상으로 ‘일과 삶 균형으로 여유 향유가 가능한 도시’를 기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30년 서울의 미래상



해외 사례



미국 |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American Families Plan: When American Families do well, Our Nation Thrives)

미국은 2021년 4월 28일 보육, 교육 등의 인적 인프라 투자 계획을 담은 1.8조 달러 규모의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American Families Plan)을 발표했다.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은 미국 중산층 가족 번영의 토대인 교육, 의료, 보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가족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의 혜택이 인종, 젠더,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와 기회 확대, 가족의 경제적 안정성 지원,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세금 혜택 확대 등을 포함한다.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이 시행될 경우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임시적 지원조치가 상당 부분 영구화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등을 강화하는 내용은 경제 전반에 걸친 성별 및 인종 불평등을 감소시키려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진미정(202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과 한국 가족정책의 현주소. 2021 가정학분야 춘계공동 학술대회, 한국은행(2021). [현지정보] 바이든 대통령, 1.8조 달러 규모의 American Family Plan 공개.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223/view.do?nttlid=10064212&menuNo=200082>

정책 제언

사회적 재난상황에서 가족 특성별 맞춤형 및 가족탄력성 강화 가족서비스 필요

코로나19의 장기화는 가족에게 긍정적·부정적 측면 모두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가족은 가족관계 향상을 보고하는 반면, 다른 가족은 가계경제 악화, 가족갈등, 가족 내 돌봄 부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보고하기도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가족관계의 변화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 성별 및 자녀의 연령 등과 같은 가족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경험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성미애 외, 2021; 손서희 외, 2021; 진미정 외, 2020).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가족생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위기상황에서 발휘되는 가족의 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악화가 가족의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가족탄력성은 가정경제가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손서희 외, 2021).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약화된 가계경제에 대한 지원과 함께 가족탄력성을 강화하는 가족서비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출처:

성미애, 진미정, 장영은, 유재언, 손서희(2021). 가족의 코로나19 관련 정책 인지도, 이용 정도, 이용 만족도 및 요구도. 가족정책연구, 1(1), 3-20.

손서희, 성미애, 유재언, 이재림, 장영은, 진미정(2021).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경제 악화가 가족생활과 심리적 복지에 미친 단기중단적 영향과 조절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6(1), 3-25.

진미정, 성미애, 손서희, 유재언, 이재림, 장영은(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의 변화와 스트레스.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8(3), 447-461.

3

서울시 가족정책의 지향



서울시는 '2021년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시행계획'을 2021년 8월에 발표하였다. 이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따른 것으로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을 주요 과제로 한다. 서울시는 4개의 영역별 과제에 따라 7개 단위의 정책과제를 마련하여, 11개 부서에서 43개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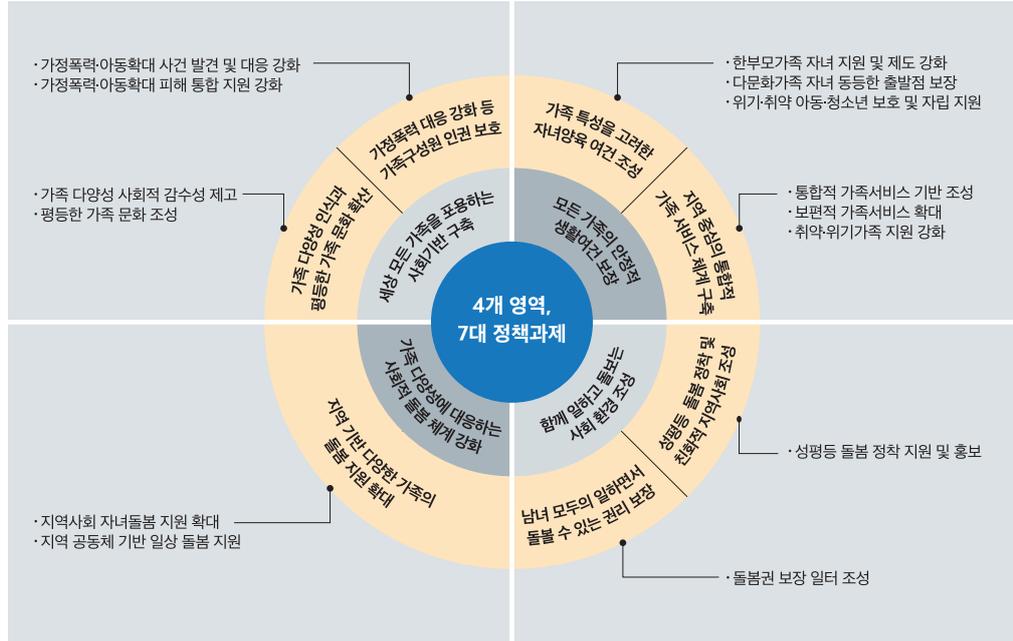
서울시가 마련한 7개 단위의 정책과제는 ① 가족 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 문화 확산, ② 가정폭력 대응 강화 등 가족구성원 인권 보호, ③ 가족 특성을 고려한 자녀양육 여건 조성, ④ 지역 중심의 통합적 가족서비스 체계 구축, ⑤ 지역 기반 다양한 가족의 돌봄 지원 확대, ⑥ 남녀 모두의 일하면서 돌볼 수 있는 권리 보장, ⑦ 성평등 돌봄 정착 및 돌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이다.

여성가족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서울특별시 2021년 건강가정시행계획



2021년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시행계획 7대 정책과제 및 사업 계획



① 가족 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 문화 확산

- 가족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를 위해 다문화 수용성 교육 확대 및 가족 다양성 이해 향상을 위한 매체 홍보 활성화
- 가족과 개인이 공존하는 평등한 가족 문화 조성을 위해 민주적 문화 확산을 위한 부모교육 추진 및 성별·세대 간 소통 지원 프로그램 운영

② 가정폭력 대응 강화 등 가족구성원 인권 보호

-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발견 및 대응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 피해 상담 및 긴급지원 강화,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운영, 관련 기관 협업체계 구축
-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통합 지원강화를 위해 피해자 안전·인권보호 및 자립 지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확대, 결혼이민자 가족 인권보호 인식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지원

③ 가족 특성을 고려한 자녀양육 여건 조성

-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발달을 위한 지원 및 제도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 수행기관 및 지원 대상 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의 동등한 출발점 보장을 위해 다문화가족 아동 방문교육 및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 청소년 이중언어 역량 개발, 다문화가족 자녀 진학·진로 관련 정보 제공 등 강화
- 위기·취약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위기 청소년 발굴·정보 공유, 원가정 분리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 제공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

④ 지역 중심의 가족센터 가족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 가족센터 가족지원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전환하고 생활SOC 설치를 단계적 확대
- 보편적 가족서비스 확대를 위해 가족센터의 가족 상담 서비스 확대, 가족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 지역사회 기반 취약·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한부모 대상 맞춤형 지원, 위기 다문화가족 대상 사례 관리 지원 확대, 위기가족 심리적 안정 및 상황 해결 지원

⑤ 지역 기반 다양한 가족의 돌봄 지원 확대

- 지역사회 자녀돌봄 지원 확대를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및 초등 온종일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 지역 공동체 기반의 일상 돌봄 지원을 위해 1인 가구의 사회관계망 지원 및 위기 대응 시스템 강화, 가족 간 소통·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간 마련 및 운영, 주민주도형 공동체 돌봄 활동 지원, 아동·노인 등 지역별 돌봄 플랫폼 구축

⑥ 남녀 모두 일하면서 돌볼 수 있는 권리 보장

- 돌봄권을 보장하는 일터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및 운영 내실화

⑦ 성평등 돌봄 정착 및 돌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 성평등 돌봄 정착을 위한 지원 및 홍보를 위해 남성 돌봄자를 위한 돌봄정보 제공, 명절 및 가정의 달 상호돌봄 확산 캠페인 실시

부록

01.
서울시 가족지원 서비스
기관 현황

02.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조사개요

03.
2015-2020 서울가족보고서

01. 서울시 가족지원 서비스 기관 현황

1) 서울지역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계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한다.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두 기관이 통합하여 가족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며,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사 본관 5층	02-3479-7600	www.kihf.or.kr
서울특별시 (서울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광역기관)	중구 소파로4길 6	02-318-0227	familyseoul.or.kr
강남구	강남구 개포로 617-8	02-3412-2222	gangnam.familynet.or.kr
강동구	강동구 양재대로138길 41, 2층	02-471-0812	gangdong.familynet.or.kr
강북구	강북구 한천로129길 6	02-987-2567	gangbuk.familynet.or.kr
강서구	강서구 강서로5길 50, 곰달래문화복지센터 4층	02-2606-2017	gsfc.familynet.or.kr
관악구 *	관악구 신림로3길 35, 남파김삼준문화기념관 3-4층	02-883-9383	gwanak.familynet.or.kr
	관악구 낙성대로 4가길 5, 낙성대동주민센터 4층	02-883-9390	
광진구	광진구 능동로 30길 23, 2층	02-458-0622	gwangjin.familynet.or.kr
구로구 *	구로구 우마2길 35, 구로구가족통합지원센터 2,3층	02-869-0317	gurofc.familynet.or.kr
금천구 *	금천구 금하로11길 40, 1,3층	02-803-7747	geumchfc.familynet.or.kr
노원구	노원구 동일로173가길 94, 가온빌딩 3층	02-979-3501~2	nowon.familynet.or.kr
도봉구 *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2층	02-995-6800	dobong.familynet.or.kr
동대문구 *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다사랑행복센터 6,7층	02-957-0760	ddmhfc.familynet.or.kr
동작구	동작구 동작대로29길 63-26 2,3층	02-599-3301	dchfc.familynet.or.kr
	동작구 양녕로25길 60-23, 미소가 B동 302호		
	동작구 신대방1길 42, 신대방동구립지역아동센터 3층		
마포구	마포구 양화로 19 함정오피스빌딩 우측 지하2층	02-3142-5482	mapo.familynet.or.kr
서대문구 *	서대문구 증가로 244	02-322-7595	sdmfc.familynet.or.kr
서초구 *	서초구 양재동 25번지 서초구민회관 2층	02-576-2852	seocho.familynet.or.kr
서울중구	중구 퇴계로 460, 중구종합복지센터 10층	02-2279-3891	sujujng.familynet.or.kr
성동구	성동구 무학로 6길 9	02-3395-9447	sdfc.familynet.or.kr
성북구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102호	02-3290-1660	sbfc.familynet.or.kr
송파구	송파구 양산로 5 송파구보건지소 2층	02-443-3844	songpa.familynet.or.kr
양천구	양천구 남부순환로83길 53 신월6동 행정복합타운 3층	02-2065-3400	yhc.familynet.or.kr
영등포구 *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24-5, 4층	02-2678-2193	ydpfc.familynet.or.kr
(서울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거점기관)			
용산구	용산구 이태원로 224-19 한남동 공영주차장·복합문화센터 3층	02-797-9184	yongsan.familynet.or.kr
은평구 *	은평구 은평로 21가길 15-17	02-376-3761	eunpyeong.familynet.or.kr
종로구	종로구 종로53길 29 주민공동시설 토월 2층	02-764-3524	jongno.familynet.or.kr
중랑구	중랑구 용마산로 369	02-435-4142	jungnang.familynet.or.kr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수행기관

2) 서울지역 1인가구지원센터

1인가구지원센터는 서울시 1인가구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서울시 1인가구를 위한 정책 및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되었다. 2021년 8월 기준 서울시 19개(시비지원)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1인가구에게 사회적 관계망 형성·유지 및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교육·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역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강서구	강서로5길 50, 곰달래문화복지센터 4층	02-2606-2017	
관악구	관악구 신림로3길 35, 남파김삼준문화기념관 3층	070-5030-5423	
구로구	구로구 우마2길 35, 구로구가족통합지원센터 2,3층	070-4066-2957~8	
금천구	금천구 금하로11길 40, 1층	070-7487-5527	
노원구	노원구 동일로173가길 94, 가온빌딩 3층	070-4613-0623	
도봉구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2층	02-995-6800	
동대문구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다사랑행복센터 7층	070-7459-3303	
동작구	동작구 동작대로29길 63-26, 2층	070-7039-0700	
마포구	마포구 양화로 19, 합정오피스빌딩 우측 지하2층	070-7467-0752~3	
서대문구	서대문구 증가로 244, 2층	070-4905-0154	
서초구	서초구 사평대로 273, 반포1동 주민센터 4층	02-2155-8283	www.seochosingle.net
성동구	성동구 무학로6길 9, 3층	070-7477-8524	
성북구	성북구 정릉로27길 61-6	070-4203-6265	
양천구	양천구 남부순환로83길 53, 3층	02-6952-8855	
영등포구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24-5, 4층	070-4440-8437	
용산구	용산구 이태원로 224-19, 한남동 공영주차장·복합문화센터 3층	070-7492-2651	
은평구	은평구 은평로21가길 15-17	070-7492-5211	
종로구	종로구 종로53길 29 주민공동시설 토월 2층	02-764-3520	
중랑구	중랑구 용마산로 369	02-435-4144	

3) 서울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간제 보육, 온·오프라인 양육상담, 부모교육, 장난감 대여, 연령별 발달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 75-16, 1층	02-772-9814~9	seoul.childcare.go.kr
강남구	강남구 삼성로72길 7	02-546-1736~7	gncare.go.kr
강동구	강동구 성내로6길 16 강동어린이회관	02-486-3516~8	gdkids.or.kr:8443/front/user/main.do
강북구	강북구 인수봉로66길 9	02-944-7480~1	childcare.gangbuk.go.kr
강서구	강서구 수명로2길 50	02-2064-2732	gskids.or.kr
관악구	관악구 남부순환로 1491 관악가족행복센터 4층	02-851-2834~5	gwanak.go.kr/site/educare/main.do
광진구	광진구 동일로56가길 31, 군자어린이집 3층	02-467-1827~9	gjcare.go.kr
구로구	구로구 가마산로 203	02-859-5678	guroccic.guro.go.kr
금천구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지하1층	02-894-2264~5	happycare.or.kr
노원구	노원구 덕릉로 859 공공복합청사 4층	02-930-1944	nwsc.or.kr
도봉구	도봉구 방학로 12길 28 (창동점) 도봉구 우이천로 4길 24-5	02-3494-3341~2	doccic.go.kr
동대문구	(답십리점) 동대문구 황물로 62 (제기점) 동대문구 약령사로 7길 19	02-2237-5800 02-923-2272~3	ddmccic.or.kr

지역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동작구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11 3층~5층	1811-6579 (02-823-4567)	dcic.go.kr
마포구	마포구 상암산로1길 71	02-308-0202	mcic.or.kr
서대문구	서대문구 모래내로 15길 31	02-3217-9550	sdmccic.or.kr
서초구	서초구 남부순환로347길 46	02-598-9340	youngua.seoch.go.kr
성동구	성동구 고산자로16길 10-53(행당동)	02-499-5675~6	ccic.sd.go.kr
성북구	성북구 화랑로 18자길 13	02-962-2082	gongdan.go.kr/childCare/main/main.do
송파구	송파구 중대로 235 송파어린이문화회관 4층	02-449-0505	spssc.or.kr
양천구	양천구 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8층	02-2646-7790~1	yhcic.or.kr
영등포구	영등포구 신길로40길 5	02-833-6022	ydpcic.or.kr
용산구	용산구 백범로 329 용산꿈나무종합타운 본관 2층	02-749-9673	ysccic.or.kr
은평구	은평구 서오릉로25가길 4	02-351-8932~8941	epmjuccic.co.kr
종로구	종로구 성균관로1길 6-3	02-737-0890	jncic.or.kr
중구	중구 다산로32길 5	02-2263-2626	jgkids.or.kr
중랑구	중랑구 망우로67길 10 망우본동복합청사 5,6층	02-495-0030~1	jccic.or.kr

4)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seoulhanbumo.or.kr]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과 역량 강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에 설립된 기관이다. 한부모의 가족생활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정책개발 및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한다.

주소	전화번호
동작구 현충로 75 원불교 소태산기념관 4층	02-861-3020

5)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www.seoulworkingmom.or.kr]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을 위해 직장·가정 내 고충 상담, 역량강화교육 등 맞춤형 종합지원을 제공한다.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을 운영하여 노무사의 무료상담을 제공한다.

지역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남권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312호	대표: 02-852-0103 상담: 02-852-0102	www.gworkingmom.net
서북권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3층 301호	대표: 02-308-1220	www.seoulworkingmom.or.kr/sb
동부권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대표: 02-332-7171 상담: 02-335-0101	www.workingmom.or.kr

6) 서울우먼업 [www.seoulwomanup.or.kr]

서울우먼업은 서울지역 18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5개 여성발전센터, 그리고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을 통칭하는 명칭이다.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직업교육부터 취업상담, 취업연계, 창업 지원, 경력단절예방 등 원스톱 종합취업지원을 제공한다.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마포구 마포대로 89 POST TOWER 7층	02-590-1900	swrd.seoulwomanup.or.kr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

센터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남부여성발전센터	금천구 독산로50길 23	02-802-0922~3	nambu.seoulwomanup.or.kr
동부여성발전센터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02-460-2300	dongbu.seoulwomanup.or.kr
북부여성발전센터	노원구 동일로207길 50	02-3399-7699	bukbu.seoulwomanup.or.kr
서부여성발전센터	양천구 남부순환로 371	02-2607-8791	seobu.seoulwomanup.or.kr
중부여성발전센터	마포구 토정로35길 17	02-719-6307~8	jungbu.seoulwomanup.or.kr

서울특별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센터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강동구 양재대로 1458 길동빌딩 5층	02-475-0110	gd.seoulwomanup.or.kr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1관: 강북구 덕릉로 108 현웅빌딩 3층 2관: 강북구 도봉로 261 수유프라자 5층	02-980-2377 02-980-2381	gangbuk.seoulwomanup.or.kr/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강서구 까치산로 134 화곡빌딩 5층	02-2692-4549	www.hrbks.or.kr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관악구 쑥고개로 75 광장빌딩 1층~5층	02-886-9523~5	www.kwoman.or.kr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구로구 공원로 63 2층	02-867-4456	www.kurowoman.com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노원구 공릉로 187 건설빌딩 5층	02-951-0187~8	nowon.seoulwomanup.or.kr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동대문구 왕산로 60-1 포은빌딩 6층	02-921-2020	www.job2060.or.kr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동작구 사당로 299	02-525-1121	dongjak.seoulwomanup.or.kr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서대문구 신촌역로 10 해우빌딩 4층	02-332-8661	www.workers.or.kr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서초구 강남대로 216 양재플라자 3층	02-6929-0011	seocho.seoulwomanup.or.kr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성동구 성수이로 22길 37 성수IT종합센터 (아크밸리) 5층	02-3395-1500	sd.seoulwomanup.or.kr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송파구 중대로9길 34 대호빌딩 2층	02-430-6070	songpa.seoulwomanup.or.kr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영등포구 영중로 61	02-858-4514	www.ywcajob.or.kr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용산구 청파로 139-21	02-714-9762~4	yongsan.seoulwomanup.or.kr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은평구 녹번로 76	02-389-1976	ep.seoulwomanup.or.kr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종로구 대학로11길 23 스타시티빌딩 2~4층	02-765-1326	www.sbwomen.or.kr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중랑구 망우로32길 20 대림빌딩 3층	02-3409-1947	jungnang.seoulwomanup.or.kr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강서구 등촌동 700 투에프코트빌딩 7층	02-6929-0002	wsbt.seoulwomanup.or.kr

7) 서울시50플러스포털 [50plus.or.kr]

서울시50플러스포털은 만 50~64세의 중장년층이 50세 이후의 삶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중장년층을 위해 맞춤 교육, 취업·봉사 등을 통한 재도약 정보, 제2인생 컨설팅, 재무·법률·여행·취미 등의 관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울시50플러스포털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3층	02-460-5050	50plus.or.kr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2길 7	02-460-5151	50plus.or.kr/swc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2층	02-460-5250	50plus.or.kr/scc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구로구 오류로 36-25	02-460-5350	50plus.or.kr/ssc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13길 84 (창동 아우르네)	02-460-5450	50plus.or.kr/snc
강동50플러스센터	강동구 올림픽로 752	02-482-5060	50plus.or.kr/gdc
강서50플러스센터	강서구 강서로56가길 166 경동미르웰양천향교2차 203동 B1,2층	02-6295-5060	50plus.or.kr/gsc
금천50플러스센터	금천구 범안로17길 22	02-892-5060	50plus.or.kr/gch
노원50플러스센터	노원구 노원로30길 73	02-930-5060	50plus.or.kr/nwc
도심권50플러스센터	종로구 수표로26길 28 동의빌딩	02-3672-5060	50plus.or.kr/dsc
동작50플러스센터	동작구 노랑진로 140 메가스터디타워 2층	02-3482-5060	50plus.or.kr/djc
양천50플러스센터	양천구 남부순환로83길 53, (신월6동 행정복합타운 4층)	02-2607-5060	50plus.or.kr/ycp
영등포50플러스센터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2 여의도복지관 3층	02-2635-5060	50plus.or.kr/ydp
서대문50플러스센터	서대문구 통일로 484 공유캠퍼스(유진상가) 2층	02-394-5060	50plus.or.kr/sdm
서초50플러스센터	서초구 영곡말길 9	02-579-5060	50plus.or.kr/sch
성북50플러스센터	성북구 지봉로24길 26 3,4층	02-923-5060	50plus.or.kr/sbc

8)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www.seoulmaeul.org]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주민의 필요에 따라 계획하고 직접 만드는 마을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성장을 돕는 교육을 제공한다.

주소	전화번호
은평구 통일로 684 미래청 1동 3층 317호	02-385-2642

9)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seoul.dfsc.or.kr]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적 지원과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 운동을 통해 장애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센터이다. 위기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장애인가족 지원 프로그램, 동료상담 서비스 및 자조모임 등을 운영한다.

센터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영등포구 국회대로28길 17 한얼빌딩 3층 304호	02-6949-3133~4	seoul.dfsc.or.kr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강남구 광평로 60길 22, 미미위강남세움센터 4층	02-3412-8551	gn.dfsc.or.kr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강동구 상일로 12길 95, 102 B동 401호	02-6959-4439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kr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강북구 오현로 199-9 (번동) 3층	02-6238-8859	gb.dfsc.or.kr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강서구 마곡동로3길 6, 마곡NY타워 401호	02-6956-1991~2	gsdfsc.or.kr
관악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관악센츄리타워 401호	02-886-9005	관악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kr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광진구 아차산로 390 제일빌딩 5층	02-456-0708	gj.dfsc.or.kr
구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 구로구 안양천로 552, 5층	02-2614-9579	gr.dfsc.or.kr
금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30 금천어울림복지센터 4층 401호	02-802-0502	gc.dfsc.or.kr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노원구 상계로5길 32, 금호프라자 1층	02-6956-5179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kr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도봉구 노해로63길 43 행정지원센터 B101	02-907-9633	db.dfsc.or.kr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8층 (용두동, 다사랑행복센터)	02-2249-1717	ddm.dfsc.or.kr
동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16 보라매아카데미타워 505호	02-835-7780	dj.dfsc.or.kr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 1층 마포함께이름센터 111호 (합정동, 마포한강푸르지오1차)	02-303-3618	mp.dfsc.or.kr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대문구 세검정로 78-19 을해피장애인복지센터 1층	02-394-4430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kr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초구 강남대로 6길 66-18, 2층 (양재동 358-6, 광산빌딩)	02-597-8339	sc.dfsc.or.kr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성동구 상원길36, KTP빌딩 5층	02-6929-2456	seongdongdfsc.or.kr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성북구 종암로 129, 305호(청한빌딩)	02-912-5991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kr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송파구 동남로28길 40, 4층	02-430-9681	spf.dfsc.or.kr
영등포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영등포구 영등포로 146, 4층	02-2069-0328	ydp.dfsc.or.kr
용산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용산구 서빙고로 245, 장애인커뮤니티센터 2층	02-798-9935	ys.dfsc.or.kr
은평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은평구 은평로 147 (응암동, 미주빌딩)	02-357-3345~6	ep.dfsc.or.kr
종로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로구 삼청로 91-1, 2-4층(삼청동)	02-722-7941	jng.dfsc.or.kr
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중구 서애로1길 2,3층	02-2279-7680	jgdfsc.modoo.at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36 신내테시앙플렉스 B동 B1층, OB101호	02-2209-0665	jn.dfs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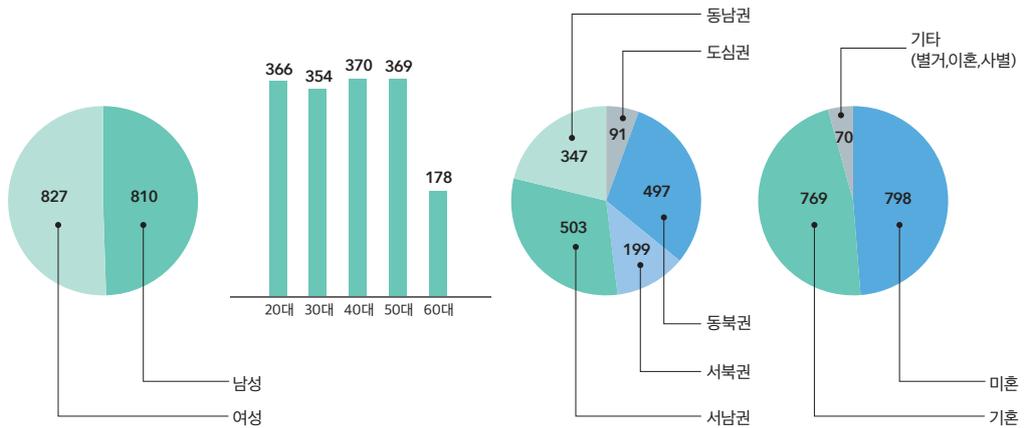
02.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조사개요

조사대상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는 만 20-64세 서울시민 1,63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남성 810명(49.5%), 여성 827명(51.5%)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연령대별 참여자는 만 20-29세가 366명(22.4%), 만 30-39세가 354명(21.6%), 만 40-49세가 370명(22.6%), 만 50-59세가 369명(22.5%), 만 60-64세가 178명(10.9%)이다. 연령대와 거주권역은 인구비례에 기초해 할당표집하였다. 응답자 중 미혼자는 798명(48.8%), 기혼자는 769명(47.0%), 기타(별거, 이혼, 사별) 70명(4.3%)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명	%
전체	1,637	(100.0)
성별	남자	810 (49.5)
	여자	827 (50.5)
연령	만 20-29세	366 (22.4)
	만 30-39세	354 (21.6)
	만 40-49세	370 (22.6)
	만 50-59세	369 (22.5)
	만 60-64세	178 (10.9)
거주권역	도심권	91 (5.6)
	동북권	497 (30.4)
	동남권	347 (21.2)
	서북권	199 (12.2)
	서남권	503 (30.7)



조사방법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 2021년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온라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업체의 온라인패널 구성원에게 조사 참여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응답자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조사에 응답하였다.

조사내용

서울시민의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족관계', '일·생활 균형 및 돌봄', '가정경제 및 주거환경', '1인가구 생활 경험', '가족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여부', '서비스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03. 2015-2020 서울가족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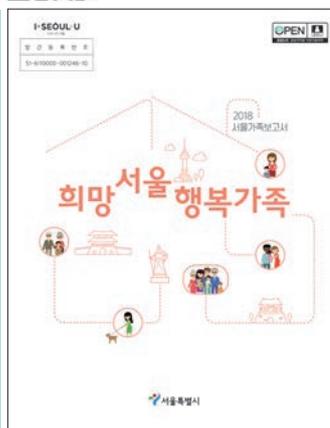
2015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는 서울가족보고서는 서울시민의 가족 현황 및 가족 관련 인식과 변화를 살펴보고, 가족 관련 국내·외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2020 서울가족보고서



2019 서울가족보고서



2018 서울가족보고서



2017 서울가족보고서



2016 서울가족보고서



2015 서울가족보고서



2021 서울가족보고서

발행인	서울특별시
기획·편집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기획총괄팀
집필진	손서희(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이재림(서울대학교 교수) 서찬란(前 울산여성가족개발원) 김영선(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이지훈(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김경민(숙명여자대학교 가족학과)
발행처	서울특별시
발행일	2021. 11.
편집·디자인	(주)복스포어 032.837.5465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246-10
ISBN	979-11-6599-512-6



2021서울가족보고서	값 3,000원
	03310
9 791165 995126	
ISBN 979-11-6599-512-6	